

한국어판
제3권

2017년 가을

치빌타 카톨리카

LA CIVILTÀ CATTOLICA

세상의 유혹과 하느님의 유혹

식별력을 기르기 위한 도움들

밥 덜린. 노래는 아직도 바람 속에 흐르고

가톨릭 교회의 아동 보호

프란치스코 교종이 바라는 주교의 모습

루이 르브레:

교황 회칙 「민족들의 발전」의 멘토가 남긴 유산

‘마토’ 같은 교종:

‘작은 돌의 철학’과 ‘건전한 광기’

수도생활은 보편 성소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사랑의 기쁨」, 식별과 그리스도인의 성숙



치빌타 카톨리카

LA CIVILTÀ CATTOLICA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백성

BEATUS POPULUS, CUIUS DOMINUS DEUS EIUS

한국어판 제3권 6-8호

교회인가 서울대교구 2017년 2월 13일

발행일 2017년 10월 15일

발행인 김용수

기획 정제천 황정연

발행처 도서출판 이나시오영성연구소

주소 04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대길 11-8(신수동)

전화 02-3276-7799

구독 및 구입 문의 02-3276-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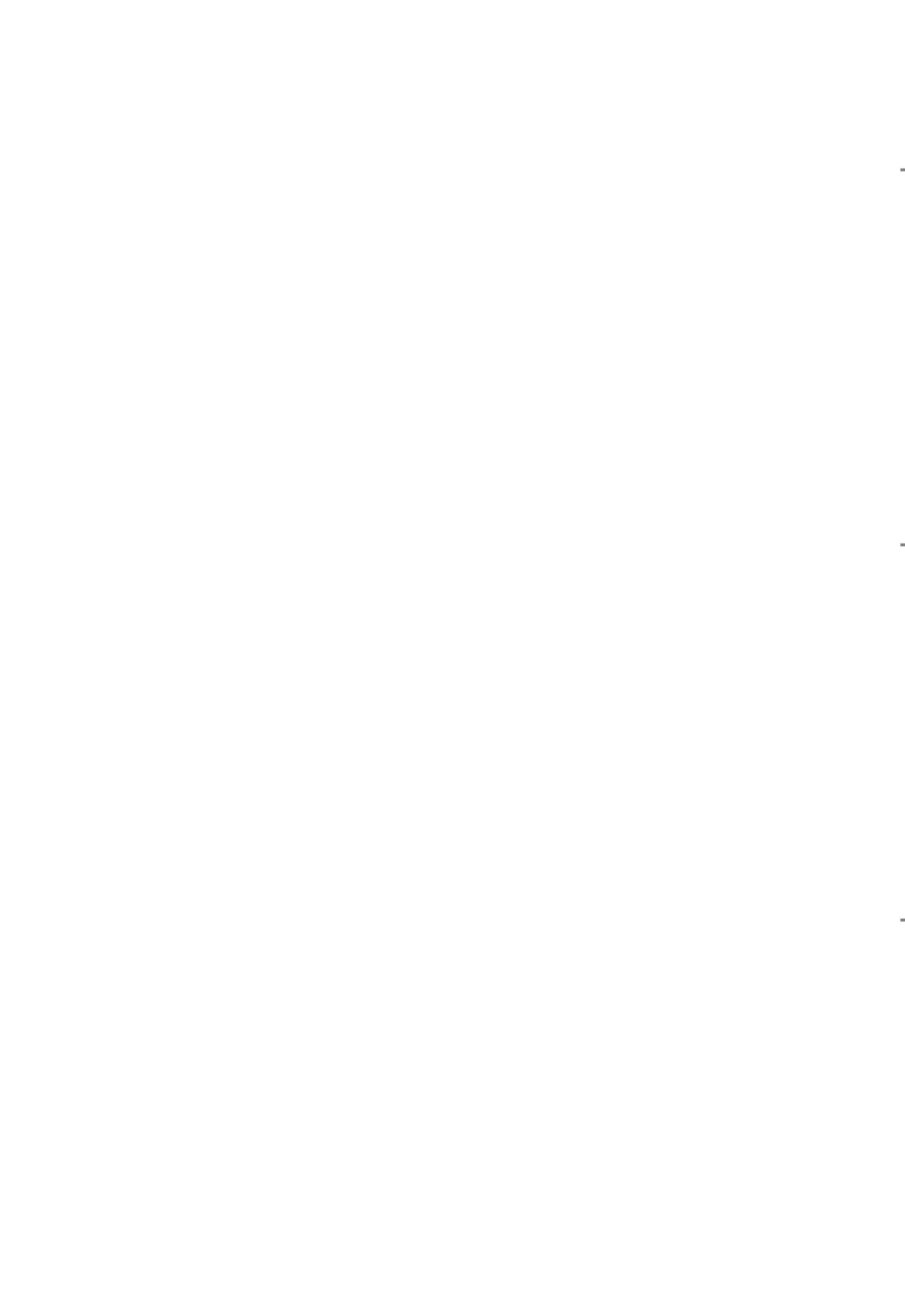
한국어판
제3권

2017년 가을

치빌타 카톨리카

LA CIVILTÀ
CATTOLICA





제3권 6-8호 합본호 목차

6호

6 **세상의 유혹과 하느님의 유혹**

벤하민 곤살레스 부엘타 신부(예수회)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전주교구, 광주가톨릭대학교) 옮김

19 **식별력을 기르기 위한 도움들**

디에고 하비에르 파레스 신부(예수회, 『치빌타 카톨리카』 집필자)
곽승룡 비오 신부(대전교구, 대전가톨릭대학교) 옮김

33 **밥 딜런. 노래는 아직도 바람 속에 흐르고**

클라우디오 존타(예수회)
국춘심 방그라시아 수녀(성삼의 딸들 수녀회, 축성생활신학 박사) 옮김

7호

46 **가톨릭 교회의 아동 보호**

한스 졸너 신부(예수회, 교황청 성직자성 고문, CCP 센터장)
임숙희 레지나(교황청립 혼인과 가정 대학 신학원) 옮김

55 **프란치스코 교종이 바라는 주교의 모습**

디에고 하비에르 파레스 신부(예수회, 『치빌타 카톨리카』 집필자)
김숙희 그라시아 수녀(성심수녀회) 옮김

74 **루이 르브레: 교황 회칙 「민족들의 발전」의 멘토가 남긴 유산**

페르난도 데라이글레시아 비기리스티 신부(예수회,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
이근상 시몬 신부(예수회) 옮김

8호

88 **‘마토’ 같은 교종: ‘작은 돌의 철학’과 ‘건전한 광기’**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예수회)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가르멜 수도회, 대전가톨릭대학교) 옮김

95 **수도생활은 보편 성소에 참여하는 것**

도날드 말다리, 예수회
심애정 쟈마 수녀(성바오로말 수도회) 옮김

107 **“예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사랑의 기쁨」, 식별과 그리스도인의 성숙**

피에트로 M. 스키타보네 신부(예수회)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대전가톨릭대학교) 옮김

세상의 유혹과 하느님의 유혹

식별력을 기르기 위한 도움들

밥 딜런. 노래는 아직도 바람 속에 흐르고

세상의 유혹과 하느님의 유혹

LA SEDUZIONE DEL MONDO E LA SEDUZIONE DI DIO¹⁾

벤하민 곤살레스 부엘타 신부(예수회)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전주교구, 광주가톨릭대학교) 옮김

유혹의 문화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유혹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근대의 위대한 유토피아, 곧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쇠퇴한 이후 절망의 의미는 근대 이후 사회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많은 노동과 왜곡된 환상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곧 많은 노동과 왜곡된 환상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를 의지할 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내면의 공허함과 삶의 초월적인 차원의 상실 앞에 두 가지 허황된 큰 기획, 곧 소비주의와 쾌락이 생겨나 다시 세상을 홀린다.

소비주의는 주머니에 약간의 돈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에나 퍼져있는 어마어마한 발명품이다.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다니고 즐기는 갖가지 방법이 무궁무진한 대형 쇼핑몰이 이를 상징한다. 상품 구입은 생활 양식을 반영한다. 대형 쇼핑몰 안에는 여러 색깔과 조명 그리고 거울의 효과로 진열된 제품들이 풍부하게 제공된다. 그 안에는 긴장을 풀어 주고 시간의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제품을 바라보게 하는 배경 음악과 함께 냉난방 설비를 통해 세련된 향기가 보이지 않게 흐른다. 약속된 땅과도 같은 그런 공간은 우리를 결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려는 듯하다.

두 번째 큰 기획은 오락, 여흥, 기분전환이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영화, 음악, 스포츠 및 온갖 종류의 공연에 즉시 접속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제 공받는다. 현대 문화의 새로운 신(神)들이 탄생한 것이다. 더 이상 영웅들의 시대도, 순교자들의 시대도 아니다. 오히려 유명인들, ‘명성’ 있는 이들의 시대가 도래

1) *La Civiltà Cattolica* 2017 | 573-585 | 4002 (11/25 marzo 2017)

했다. 유명인들과 명성 있는 이들은 그들의 공적이나 색다른 언행으로 대중 매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

소비와 오락을 위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텔레비전과 잡지를 제작하는 곳과 스튜디오와 연구소에서는 계속해서 새롭고 강하며 지능적인 느낌을 주는 제품을 정교하게 만들어 낸다.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은 감각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부로 파고들며 상점의 자극을 받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나 인위적인 구미에 항상 열려 있는 틈새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온갖 느낌이 정교하게 연구된다. 호텔의 향기, 진공청소기의 소음, 씹을 때 바삭바삭한 소리 또는 천이 찢어지며 나는 소리, 고급 승용차의 문을 닫을 때 나는 소리는 완벽한 느낌을 얻을 때까지 전문가들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요소이다. 아무것도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술가의 바구니에서 빠져나온 것과 같은 특수 효과로 유혹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자세하게 연구했다. 특수 효과는 우리를 속이고 현혹하여 이성을 잃게 한다.

신경 마케팅 neuromarketing은 우리의 반응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잠재의식의 감정 근처에 직접 가닿는 느낌을 찾아내기 위하여 현대의 가장 정교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어떻게 느낌이 인간 두뇌에 도달하는지 연구한다. 광고는 무엇보다 몸과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성을 작용하지 못하게 해 이미 계획된 대답을 얻으려고 한다. 우리를 통해서 광고가 결정한다. 우리는 자판만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오로지 느낌에 도취되어 넋을 잃고 미끄러진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강요받고 흘러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열정이 약한 세상에 살고 있다”(앤서니 기든스).

우리의 문화는 항상 바쁘게 살도록, 우리의 내적 필요에 대한 만족은 뒤로 미루고 오늘 예고되면 내일 우리 상점들에 도착할 신제품에 대한 만족을 기대하도록 한다. 그런 속도감은 깊이를 지니기 힘들다.

이런 유혹의 문화에서는 오로지 감각을 감지하는 것들만 중요하다. 그러므로 걸모양에 관심을 집중하고 유사한 것을 본질보다 앞세운다. 몸과 감정적인 잠재의식 상태가 유혹의 열쇠로 변질되는 반면에 사고는 미약하고 결정은 불안하다. “아니요.”라는 말도 못하고 “예.”라고 말하며 부부와 우정, 단체와 노동에서 취한 약속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

이 시대의 도전은 심리 치료사인 예수회원 카를로스 도밍게스 모라노 Carlos Dominguez Morano에 의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현대의 모든 심리학이 유혹이라는 개념에 부여하기로 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 중요성이 신화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의 자기애가 가정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행위는 외적 자극에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었다. 우리의 내면적인 특성은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자극의 현장에 따라 매번 변한다.”²⁾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복음화한다면 보다 더 깊은 차원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나쁜 행위는 이 시간을 거부하고 접근할 수 없는 탑 안에, 불가능한 무균의 거품 속에 우리를 가둬 놓도록 하는 것이며 가면을 쓰고 거리를 산책하며, 거절과 비난의 행위로써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이런 우리의 유혹 문화에 맞서 거칠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는가? 새 생명의 제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상상력은 고갈되었는가? 매혹적인 느낌을 만들어 내는 것들은 다가오는 세상을 계획하는 독점권을 갖고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런 문화에서도 활동하신다.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현존하지 않는 그런 민족, 문화, 종교, 상황,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이 설명을 중단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이 제안하시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의 집에 도달하는 전자 단말기들에서도, 유명 상표가 부착된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도 성령은 현존한다. 그러나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녀야 한다.

우리의 도전은 현실에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관조하기 위하여 현실에 다가가는 것이다. 유혹적이지만 쓸모없는 껍모습을 치워버리고, 현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활동하시며 무한한 창조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며 현실을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행

2) C. Dominguez Morano, *Psicodinámica de los Ejercicios Ignacianos*, Bilbao-Santander, Mensajero-Sal Terrae, 2003, 63.

을 고발하는 예언자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계시는 곳을 찾아내는 신비주의자도 필요로 한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막연히 언급하는 것만 아니라 그분께서 순간마다 삶의 줄거리를 다시 완성하시면서 활동하시는 장소와 방법을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는 개인적인 타락, 불의와 온갖 형태의 소외로 더욱 세속적으로 파괴된 현실에서 신비적인 감수성을 갖고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이나시오 영성

초기 예수회원들이 길목과 광장과 거리로 걸어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수도자들이요? 수도승들과 수도사들은 희망과 경당이 달린 개별 수도원이나 단체 수도원들에서 살며 자신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자기들이 관상한 내용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지만 여러분은 수도승들이나 수도사들처럼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소?” 나달 신부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문장 하나를 만들었다. “세상이 우리 집이요.” 다른 수도자들이 수도원의 희망을 거닐면서 아름다움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회원들도 도시의 떠들썩한 거리와 황량한 도로에서 그리고 그 시대의 지리와 종교 그리고 문화의 국경에서 하느님을 만났다. 그 시대는 마치 우리의 세계가 신세계의 발견과 함께 교회와 정치, 종교와 지리의 대변화로 요동치는 것과 같다.

이런 소명의 은총은 로울라의 이나시오가 만레사에서 카르도네르 Cardoner 강가의 끝자락에 앉아 있었을 때 겪은 체험에서 미리 알려진 것으로 드러난다. 이나시오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듯한 그런 큰 깨달음을 체험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았으며, 새로운 눈을 가졌다. 그의 체험은 시각의 변화였다. 라이네스 Lainez 신부는 그런 이나시오의 체험을 해석하면서 “이나시오는 특별한 방식으로 존엄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받고 지식을 얻으며 내적으로 깨달아, 다른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그는 하느님을 관상하고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온갖 사물과 모든 장소에서 매우 쉽게 신심을 느꼈다.”(J. 나달)

이나시오는 『영신수련』의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자신의 체험을 제시했

다. 여기서 이나시오는 모든 현실을 관찰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보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실재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해 준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요한 3,3) 이것이 우리가 받는 선물로, 곧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하느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영신수련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 삶을 질서 잡기 위하여 위하여 마음과 내면적인 감정을 바꾸어 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와 방법,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방법을 일상에서 감지하기 위하여 감수성도 바꾸어 준다. 그럴 때에만 그분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의 중심 자체에서 순간마다 솟아오르도록 하는 절대적인 새로움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활동할 수 있다. 우리의 손과 하느님의 손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우리의 손이 어디서 끝나고 하느님의 손이 어디서 시작되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서로 갈라놓을 수 없는 신비주의의 두 차원이 등장한다. “눈을 감은 신비가”는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는 (요한 15,1-17 참조) 무한하신 하느님과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맺어주는데, 이는 십자가의 성 요한 말하듯이, “영혼의 중심에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눈을 뜬 신비가”는 우리가 모든 현실의 궁극 진리로서 하느님을 관상하도록 해 준다. 그 현실이란 아름다움과 폐허, 죽어가는 것과 태어나는 것, 아벨의 번제물과 카인의 소출, 그리고 우리의 것과 우리와는 다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독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 바로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눈길이 머무는 법이다. *Ubi amor ibi oculus*, 즉 “사랑이 있는 곳에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성 빅토르의 리카르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폐허가 된 현실의 “아래에” 그리고 신비로운 현실의 “안쪽”에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고 관상할 수 있게 해준다. 현실의 밑바닥을 향하여 한 걸음씩 들어갈수록 우리는 창조계 전체를 맞아들이시는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더욱 더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개인적인 관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때에 하느님과 만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도 저버리지 않는다.

신비를 향한 새로운 감수성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자라나고, 매일 고유한 관심사에 따라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들의 시선을 통해서만 사물을 바라보려는 공간에서 자라난다. 현실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이익 추구하고 정치적 호전성, 그리고 보여주기름 통해 시선을 끌려는 정신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순수하지 않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시대의 현실을 지켜보시고 그분이 바라보신 것을 말씀하셨을 뿐, 회당에서 라삌들이 그분에게 바라보도록 가르쳤던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17,21) 이사야는 바빌론에서 벗어날 길 없이 오랜 세월 억압받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이사 43,19) 보는 것, 알아보는 것은 감각과 감수성에 대한 언급이다. 재능 있는 어느 한 예술가의 작품 앞에서 우리는 그 예술가가 표현하는 예술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냥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뛰어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이 작품이 암시하는 인간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구체적인 방식으로, 때때로 대화, 얼굴, 노래, 일, 궁핍 등과 같이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때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난다.

『영신수련』에서 “눈먼 상태”(『영신수련』 106번 참조)로 움직이는 사람은 예수님 관상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의 활동과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활동하시는 새로움을 바라보도록 인도된다.

현실에 대한 존중

때때로 종교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멀리하고 동떨어진 생각에 잠겨 들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웃, 친구, 종교 의식, 세상의 아름다움은 하느님과 영혼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후에 비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로 그때 처음에는 단지 꿈에 불과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다.”(시몬 베유)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현실을 감춘 채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한 가지는 우

리가 현실을 이상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악마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가 현실을 이상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그 견고함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약점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현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가 현실을 악마화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상황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상화하면서 빛나는 색으로 또는 악마화하면서 어둔 색으로 물들일 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활동 또한 이런 상황의 밑바닥에 감추는 것이다.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발견되는 그러한 측면의 현실이 있다. 오직 현미경을 통해서만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단지 관상으로도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차원도 있다. 관상을 통해 시선은 외적으로 덮여 있는 것을 벗겨 내어 내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과학적인 시선은 영혼이 병들어 길을 잃고 헤매는 어느 한 사람의 모든 특징을 진술할 수 있지만, 관상적인 시선은 이 하느님의 자녀가 지닌 무한한 품위를 느끼고 맛볼 수 있다. 이런 발견은 엄청난 효력을 지닌 역동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

눈을 뜨고 있는 신비가가 최고의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현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대단히 자유롭게 쉬지 않고 활동하시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시는 현실의 최종 진리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세상 유혹의 헛된 시도들

소비주의, 오락이나 정치적 호전성은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현혹적인 광경을 만들 수 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는 주요 스포츠 경기, 정치 캠페인, 대중 콘서트는 사람들의 열광적인 참여를 이끄는 정교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체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에서 종교적 동기를 듣게 된다 하여도 놀랍지 않다. 사람들을 모으고 경축하는 그런 행사의 힘을 알고 있기에 때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지를 받기도 한다. 2008년 중국 올림픽 대회의 개막식은 유토피아를 기리는 탁월한 비유가 되었다. 지상의 많은 민족들이 모든 인종이 지닌 독특한 특징과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복장을 입은 채, 어떤 차별이나 속임수도 없이 공정하게 경기

를 치루고 경축하기 위하여, 단 한 곡의 노래와 단 하나의 리듬으로 거대한 공동의 축제를 기리며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유토피아에 대한 거대한 세속적 비유로 볼 수 있다.

많은 예식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매우 인간적인 삶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들을 본다. 성령은 우리 존재 최상의 것을 표현하는 예술가들과 사람들 안에 머무시지만, 광경의 흐름을 움직이는 관심과 조작이 뒤엉켜 있기에 성령의 현존을 발견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참으로 세상을 기쁘고 황홀하게 만들려면, 아름답고 질서 잡혀 있으며 빛나는 것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약함, 즉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바다 속의 물처럼 녹아들어가 있는 개인적, 사회적 고통의 현실주의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관심을 없애고 기억을 지우려고 행하는 많은 예식들이 있다. 일부 음악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마약이 레드 카펫 사이에서 퍼지고 화면의 반짝거림에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과 같은 참된 예식은 쾌락과 과오로 얼룩진 일상생활에 빠진 인간 생명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인간 생명을 십자가의 가혹함에서 부활에서 생명의 변화로 이끌어준다. 생명에 대한 어떤 괴로운 시련도 축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잔치의 비유(루카 14,15-24 참조)에서 벌어진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재산도 집도 없이 버림받은 이들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을 집안에 들여 잔치를 벌인다. 하지만 각자 개인적인 수입에 만족하는 이들은 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계속해서 맴도는 대중적인 대형 서커스는 표상들과 매혹적인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파고든다. 서커스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현실에서 멀리 벗어나 긴장을 풀고 근심과 불안을 떨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안다. 서커스는 하느님께서 오늘날 한정된 우리 인류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보여 주시면서 이루시는 것을 관상하고 인정하고 거행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술로 달아오르는 자들! 그들은 비파와 수금, 손북과 피리 소리와 더불어 술을 마셔 대면서 주님의 업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손이 이루신 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이사 5,11-12)

우리는 우리 감각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유희의 문화에서 우리는 현실을 감지하는 방법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해하고 내면화한 내용에서 우리 감각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백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매혹적인 느낌”이 우리를 가로지르고, 우리는 가속화된 리듬, 우리 안에 “성급한 애정”을 자아내는 찰나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헤드폰을 낀 채 스크린만 계속해서 쳐다보면 우리는 결코 차분하게 생각하고 비교할 겨를도 없이 정보와 광경을 소모하는 “시청각 약탈자”로 변화되고 말 것이다. 더욱더 강렬한 자극은 우리의 감수성을 나약하게 하면서 성령의 현존과 계획의 명암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제안들의 압박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라고 말하며, 항상 우리의 선택을 유보하며 삶의 마지막까지도 일관성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는 이러한 유희의 문화 안에서 하느님이 이루어 내시는 새로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만드는 “감정의 이단”인 환멸이라는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눈이 멀 수 있다. 라오디케이아Laodicea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는 하느님이 바라 보시듯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기 위하여 안약이 필요하다.(묵시 3,18 참조) 성경에는 눈을 가렵게 할 수는 있지만 더 잘 볼 수 있게 해 주는 안약이 나온다. 첫 번째 안약은 욱이 잿더미에 앉은 곳, 곧 ‘오물’이다. 건강과 명예, 부귀와 안정된 가정을 누리는 상황에서 하느님을 본 다음에 욱은 모든 것을 잃는다. 잿더미에서 백성의 비참함과 하느님의 다른 표상을 본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 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뵈었습니다.”(욱 42,5)

두 번째 안약은 ‘광야’이다. 초연함과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대단히 명확하게 보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시고 당신의 원래 계획을 찾아내시며 유희를 극복하신다. 세 번째 안약은 ‘밤’이 될 수 있다. “나는 내 감각이 예민해지는 어둔 시간에 나의 존재를 사랑한다.”(라이너 마리아 릴케)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시지만, 도둑 또한 우리의 물건을 훔치러 온다. 우리는 우리의 감수성을 연마해야 한다. 끝으로 네 번째 안약은 ‘감시탑’이며, 도시의 국경에 보초가 세워져 있다. 접근하는 사람이 친구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 주는지 아니면 그가 원수

이고 우리를 파괴하러 왔는지를 바라보는 관상의 소명이다.

하지만 참된 안약은 ‘예수님 관상’이다. 예수님을 관상하는 사람의 모든 감각은 그분에 의해 깨끗이 정화된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깊은 현실의 질곡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느님의 새로운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에 참여하지 않는 관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멀리서, 특별 무대에서 현실을 관상할 수 없다. 오히려 현실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 안에서,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매일의 노동 안에서 현실을 관상할 수 있다. 언제나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활동이 그분의 활동과 결합되도록 우리 또한 활동해야 한다.

이사 58장은 우리를 밝혀 주는 기준점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친 제사와 제물에도 하느님께서 그들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가난한 이들과 사로잡힌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대답하신다.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이사 58,9) 어디에서 주님이 대답하시는가? 네 양식을 내어 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이사 58,10)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이사 58,8)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의 내면은 회복되고 그의 활동은 사회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너는 오래된 폐허를 재건하리라.”(이사 58,12)

“그리스도인의 신비주의적 차원이 수반하는 위험을 피하려면 선천적인 윤리-정치적 차원을 그 안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후안 마르틴 벨라스코³⁾)

테이야르 드 샤르댕은 그런 체험을 다음과 같이 기쁘게 표현한다. “신은 매 순간 우리 행동과 그때그때의 활동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의미로 신은 나의 펜, 나의 곡괭이, 나의 붓, 나의 바늘, 나의 마음, 나의 사상 그 첨단에 존재한다. 내가 형성해 가는 이 선, 이 점, 이 일격(一擊)이 자연적 최후의 성취에 이를 때 나는 비로소 나의 의욕이 향하는 최후의 목표를 파악한다.”⁴⁾

3) 스페인의 신학자, 사제, 철학 박사.—역자 주

4) P. Teilhard de Chardin, *L'Ambiente Divino*, Brescia, Queriniana, 2014, 39. 한국어 번역은 삐에르

하지만 관상은 복잡한 일도 수반할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일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응에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요한 10,32) 현실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인간의 고통을 진정시켜야 한다

우리가 인간적, 개인적이나 사회적 고통을 진정시키고 것처럼 하느님을 발견하는 반면에, 우리는 수백만 명을 현실 밖에 놔두며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인 고통의 개인적인 과정을 무시한다.

라이네 난민 수용소⁵⁾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백 명의 난민들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들의 나라에서는 친구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이 계속해서 총탄에 맞아 죽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서 활동하는 예수회 난민 서비스 Jesuit Refugee Service의 총괄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난민들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춤추며 평화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말했다. 내 눈앞에서 가장 많은 돌을 맞은 이들이 투석형(投石刑)에 쓰인 마지막 돌을 새 집의 초석으로 만드는 중이었다. 그것은 내가 삶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가장 아름다움 것 가운데 하나였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직도 나는 궁금해 하고 있는가?”⁶⁾

이것이 눈을 뜨고 있는 신비가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된다. 그것은 바로, 어느 모로 보나 하느님이 머물러 계실 수 없는 곳, 하느님의 부재가 더 명확하게 여겨지는 곳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감탄할 만한 복음적 의미를 지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된다.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생명을 해방시키지 않을 그런 인간적 약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간 상황의 한계까지 하느님 나라에 전념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메이야르 드 샤르맹, 「신의 영역」, 이문희 옮김, 분도출판사, 2010, 38을 사용함.—역자 주)

5) 기니의 대표적인 난민 수용소 세 곳 중 하나. —역자 주

6) G. Sánchez-Terán, *El silencio de Dios y otras metáforas*, Madrid, Trotta, 2008, 55.

것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다른 표상을 만난다. 우리는 멀리 계시는 하느님에서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강한 하느님에서 나약한 하느님으로, 처벌하시는 하느님에서 처벌받는 하느님으로, 무감각한 하느님에서 죽고 부활하신 파스카 하느님으로 건너간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현실

테이야르 드 샤르댕은 하느님의 현현만 아니라 모든 것의 명백함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가장 어려운 상황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둘세 마리아 로이나스 Dulce María Loynaz가 자신이 쓴 아주 짧은 시에서 “이 빛은? / 당신의 그림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둠 또한 조명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눈을 뜨고 있는 신비가들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내면의 밤과 역사의 밤을 건너갔다. 마치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수의 빈 무덤에서 생겨난 것처럼 그들은 체험을 통해 어둠과 무의미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을 안다.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느끼고 맛보는 새로운 표징들

현실이 우리에게 투명하게 드러난 곳에는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성사”가 생겨난다.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만난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보여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어울리기 위해 손을 펼쳐 소유하려는 것을 막는다.

우리는 온 세상이 이해하는 보편적인 “성사들”을 만난다. 인도의 마더 데레사 수녀의 장례식에서 일상에서는 원수로 지냈던 이들, 곧 회교인들과 힌두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일치되었다. 예수님과 그분의 뒤를 따라 많은 이들이 나중어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은 “반대를 받는 표징”이다.

만레사에서 이냐시오가 체험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안에서 과거와 미래의 삶을 구별해 주는 교차점의 “성사들”을 체험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작은 “성사들” 또한 갖고 있다. 우리는 그 작은 성사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

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빛으로 채워 준다. 교실, 주방, 우리가 다니는 길, 사무실이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하느님에 관하여 말해주는 수도원같은 공간이 될 수 있다.

예수회 전 총장 콜벤바흐 신부는 기도하면서 동방 이콘들을 바라보느냐는 질문에 “아니요. 그 이콘들이 저를 바라보던데요.”라고 대답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우리는 하느님께서 일상적인 공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삶의 의미에 색채를 더해 주시는 그분의 현존을 느끼면서 살 것이다.

새로운 관상적인 감수성

우리가 진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감각들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풍경 앞에서 화가는 모든 색을 볼 것이고, 건축 기사는 가능한 도시화의 설계를 볼 것이며 생태학자는 보호해야 할 생물 종을 볼 것이다. 눈에 쌓인 풍경 앞에서 우리는 하얗다고 말한다. 하지만 항상 눈과 얼음 사이에서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수십 가지의 눈을 가리키는 이름을 갖고 있다. 관상가는 예수님께서 가져다주신 생명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곳에서 현실의 마지막 차원을 볼 것이다.

현실을 감지하는 이런 방법은 절망해서 우리를 부동적이고 슬프게 만드는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삶의 특별한 역동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성 이냐시오는 『영신 수련』에서 예수님께서 오감을 통해 현실에 가까이 다가갔던 방법을 관상하도록 우리에게 제시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흩어진 현실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다. 우리가 진술한 이런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요한 3,3 참조) 다시 태어나도록 해 준다. “볼 줄 아는 사람에게에는 아무것도 세속적이지 않다.”(테이아르 드 샤르댕)

식별력을 기르기 위한 도움들

AIUTI PER CRESCERE NELLA CAPACITÀ DI DISCERNERE¹⁾

디에고 하비에르 파레스 신부(예수회, 『치빌타 카톨리카』 집필자)

곽승룡 비오 신부(대전교구, 대전가톨릭대학교) 옮김

프란치스코 교종은 폴란드 크라쿠프의 양성 담당 예수회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는 식별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식별을 실천하는 가운데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²⁾ 교종은 사제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영신수련’에서 받은 선물, 즉 식별의 지혜를 신학생들과 나눌”³⁾ 것을 사제 양성 담당 예수회원들에게 권고했다.

그런데 식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식별과 관련된 좋은 이론적 정의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식별이 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더 나은 순간을 찾고 발견하는 인간 이성의 능력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겠다.⁴⁾ 인간의 영적 단계에서 ‘더 좋은 순간’과 ‘더 구체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이는 항상 인간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십자가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바보’로 보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종은 식별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별한 ‘영적 성장 양식’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사목적인 회심이라는 쉽지 않은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자비의 매개가 죄 그리고 수백만, 수천만의 가난한 사람들이 각각 겪는 비참한 현실인

1) *La Civiltà Cattolica* 2017 I 377-389 | 4000 (11 febbraio 2017)

2) Papa Francesco, «Oggi la Chiesa ha bisogno di crescere nel discernimento», in *Civ. Catt.* 2016 III 348-349.

3) *Ivi*, 348.

4) “The measure and rule of intellectual virtue is not another kind of virtue, but things themselves.” (Tommaso d’Aquino, s., *Sum. Theol.*, I-II, q. 64, q. 3, ad 2um) 이는 식별에서 성장하기 위해 추상적인 성찰들을 배가하지 않게 하지만 현실에 관해 실천적으로 강화된 판단들이라는 것을 동등하게 말한다.(J. Pieper, *La realtà e il bene*, Brescia, Morcelliana, 2011, 103 참조).

것처럼, 식별의 선물을 담아내는 매개는 각 사람의 양심, 즉 모든 가정을 포함하여 모든 구체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다. 식별력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서는 인내와 용기를 지닌 친밀한 동반의 여정이 필요하다. 그 조 절점은 바로 모든 이가 지니고 있는 양심이다. 여기서 양심은 각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숙고”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식별이란 무엇인가? 우선 식별은 하나의 과정이지 답을 구하기 위해 “수학 문제처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복잡한 과정이 아닌데, 이는 복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님은 사람들이 비가 올지 예측하는 단순한 능력이 있으므로 시대를 읽을 수도 있다고 하시며 지금이 은총의 때임을 당연히 식별해 낼 수 있다고 하신다.(루카 12,55 참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식별은 특별히 지혜롭거나 총명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정신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어린이와 같이 소박한 이들이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은총의 순간”을 알아보는 능력을 말한다.

신약성경을 보면 올바른 또는 신중한 처신과 마찬가지로 식별 또한 성령의 은사임을 알 수 있다.(1코린 12,10 참조) 식별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백성을 이끌기 위하여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던 것과 같이(1열왕 3,9-12 참조)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 안에서 식별을 청하는 것이다.

결국, 식별의 개념 안에 하느님의 구원 지평과 여정의 개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식별은 선한 원의가 성숙하도록 돕는다.⁵⁾ 하지만 온전하고 총체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으로 들어서게 한다. 그것은 각기 다른 행동 동기에 귀를 기울이고 느끼기, 그 동기가 우리를 복음적 기준에 가까워지게 하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 따져보기, 그리고 따져본 결과에 따라 행동하기이다.⁶⁾

현실을 통해서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능력으로서 식별력은 그 본성상 항상 타

5) 식별은 선한 의지들과 나쁜 의지들의 정체성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과 정화에서도 원의 안에서 자라는 것에 봉사한다. A. Spadaro, «Desiderio di Dio e discernimento: il contributo della spiritualità ignaziana», in *Civ. Catt.* 2001 III 387-388 참조.

6) D. Gil, *Discernimento según San Ignacio*, Roma, CIS, 1983, 35 참조.

자 및 뒤따르는 적응과정에 열려있다. 그것은 마치 눈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끊임 없이 빛과 외부 형태에 적응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든 단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식별은 항상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다.

게다가, 아무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중할 수 없기에, 식별에는 항상 도움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과 확인은 외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식별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것이 무엇이 “타자(他者)”인지를 식별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 “타자”란 그 안에 들어가야 할 현실이기도 하며, 근본적으로는 큰 타자, 즉 우리 주 하느님인 큰 타자를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이다. 식별이 우리를 사려 깊게 이끌어주는 것은 중립적인 현실에서 주어지는 기회와 어려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경로를 통해서이다. 식별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행동해야 할 은총의 순간, 그리고 성령께서 공동선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고유한 양식과 은사를 발견하도록 해 준다.

식별력을 기르기 위한 여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단계가 세 가지 있을 수 있다. 첫째, 영혼에 유익하며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될 식별의 선물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식별에 대해 말할 때, 식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일반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 식별 과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 혹은 식별 여정에 있는 이들을 동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내용들을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찾아 보는 것이다.

장애물 제거하기

첫 번째 실천적인 길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식별의 여정에 나설 때 생길 수 있는 유혹들은 언급하지 않고, 보다 심각한 다른 유혹,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식별의 여정 자체를 글자 그대로 “사라지게” 할 두 가지의 유혹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그것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말 완전한 사람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드물고도 예외적인 카리스마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식별이란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어서 사막의 수도

승이나 수도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식별의 여정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또 다른 방식은 “지면에서 떼어 놓는 것”이다. 선택되는 것들은 “선한 것들”⁷⁾이어야 하는데, 일반 규정에 있어서 예외나 완화 시킴 없이 항상 모든 경우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적인 입장이 있다.

식별에서 더욱 필요한 많은 경우들을 배제하는 이런 입장에 반대하여, 회칙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이하 AL)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은총과 사랑의 삶에서 항상 성장”⁸⁾할 수 있음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식별이란 인간적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처음 두 가지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식별은 엘리트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 펴 볼 것과 같이, 성령께서 충실한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식별은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한 선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식별은 이론과 실천이라는 양극단 중에서도 이론적인 기준과 긴장을 이루는 실천적인 기준이며 모든 법칙의 핵심이 된다.

다른 한편, 실천적인 사례가 법칙의 이론적인 공식과 완전히 겹치는 때조차도 식별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는 지성적인 숙고와 의지의 동의 과정이 줄어들어 드는 경우가 생긴다, 즉, 식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곧장 공식화된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복잡할 때는 식별하는 것이 간편하지만은 않은데, 그것이 의무가 되기에, 문제가 되는 사태에 대하여 숙고하여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것이다.⁹⁾

우리가 “식별력을 기른다”고 할 때, 그것은 무척 “충명한” 사람들과 “특수한 사

7) 성 이냐시오는 말한다. 선택의 재료는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거나 선한 것이라야 하며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계 교회 안에서 도움이 되어야지 악한 일이나 교회에 반대되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영신수련』 170, 정제천 역)

8) “정황이나 정상을 참작하여, 주관적으로 죄가 아니거나 최소한 완전히 죄가 아닌 차원의 죄의 객관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사랑하며 은총과 사랑의 삶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사랑의 기쁨』, 305항).

9) “어려운 상황이나 상처 입은 가정들과 마주할 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을 늘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목자들은 진실을 알기 위하여 상황 파악을 조심스럽게 해 나갈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가정 공동체』, 84항)(『사랑의 기쁨』, 79항).

례”에만 맡겨진 덕을 의미하지 않는다.¹⁰⁾ 그보다는 인간적 행위의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판단하는 곳에 스스로를 위치 시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으로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한다.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하기 전에 현실의 복잡성을 고려하며 저울질 하기 위해 시간을 들인다.

이론과 실천 사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과 우리가 행하는 선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우리는 “식별”이라고 부른다. 이 식별이라는 선물을 성장시키는 것은 필수적인데, 특히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와중에 이론 공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선을 향하여 가능한 최선의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얻는 대신에, 한탕주의나 흑백논리에 매몰되어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결단을 내려야만 할 때 식별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식별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워야만 한다. 「사랑의 기쁨」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한 종종 우리는 믿는 이들이 자신의 양심을 키워 나가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믿는 이들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에 응답하며 복잡한 상황 안에서도 자신만의 식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대체가 아니라 양심의 함양을 요청받습니다”(AL 37). 영적 성숙이 주는 보상은, 무차별적으로 ‘법칙을 적용하는 데’에 한정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일시적인 혼란이 야기하는 의견 불일치보다 더 크고 중대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으로서 죄인들의 삶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선함을 식별해 내시는지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수님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꺼버리지 않는 종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분의 식별은 비난하지 않고 자비를 구하면서 모든 이가 선함의 길에 발을 내딛도록 격려하신다. 그분의 식별은 탁상공론에 빠지지 않으면서 때로는 형식적인 율법을 뛰어넘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10) 혹시 이 정신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원되는 듯한데, 왜냐하면 ‘gnomē’ 또는 식별은 공동 원리를 피하는 보기 드문 이상한 경우들을 검토한다. 토마스는 그것을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그 최고 원리에 따라 판단하는 최고 덕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판단의 어떤 예리한 통찰력을 꼭 수반하는 식별(gnomē)로 불린 덕이다.”(「신학 대전」, II-II, q.51, a.4, ad 3^{um})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

식별의 가치를 바라보도록 돕는 다른 기준들

영들의 식별은 요한의 첫째 서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사도 요한은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1요한 4,1) 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권고한다. 참된 영과 거짓 영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은 강생이다. 교종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무척 단순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나 그대 생각이 강생하신 말씀, 즉 사람이 되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¹¹⁾

1) 첫째 기준은 영적 식별이란 관상과 활동을 결합시키는 실천적인 지혜라는 것이다. 현재 구원 지평의 총체성을 취하지 않는 하느님 의지의 식별은 없다. 역사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의 구체적인 식별을 이해하지 않는 구원의 지평은 없다. 교종은 신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학자는 [...] 얼마나 믿음의 진리들이 조화롭게 논리 정연하고, 유기적인 일치를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밖에 신학자에게는 우리 시대의 다른 언어들을 해석하고 식별하며, 주의 깊게 청취하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의 빛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과제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된 진리는 늘 더욱 깊게 이해되고, 더 좋게 이해되며, 더욱 적합한 형식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¹²⁾

2) 또 다른 핵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동시에 무척 일반적인 것인데, “시간과 순간”에 관하여 프란치스코가 채택한 기준이다. 교종이 늘 기억하는 것은 하느님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시간에 대한 지혜”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에 대하여 힘을 행사하도록 해 주는 인간적 덕목이란 사실 없습니다. 시간을 바라보기 위해 가능한 유일한 덕은 ‘주님에 의해 선물되어야 하는 희망’입니다.” “속이게 두지 않는 순간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식별과 함께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순간을 식별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질책합니다.(마태 13,28-

11) Papa Francesco, *Omelia* a Santa Marta, 7 gennaio 2014.

12) ID., *Discorso ai membri della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6 dicembre 2013.

29 참조) [...] 자, 식별은 무엇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순간에 취해야 하는 길들을 알고, 참 표징들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¹³⁾

표명은 단순하지만 아주 치밀하다. 시간 위에 지혜가 없다고 말하면서 어떤 모양에서 지성은 추상의 지평으로 떨어지면서 예방된다. 거기서 체계적으로 변형되기를 원할 때 난관에 뛰어들게 된다. 그리고 하느님 신비의 관상과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원하신 길의 식별로 방향이 정해진다. 신학의 논리는 시간에 대하여 관념적인 힘을 수행하지 않는다.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논리이다. 이 논리는 자비롭고 자유로운 사랑의 선물을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한 논리이며, 단순한 사랑으로서, 항상 놀라운 동시에 늘 이해 가능하며 명백하다.

3) 또한, 프란치스코 교종에게 식별이란 **성령께서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은총**으로서 이 은총은 백성들 가운데에 주어지며 백성들의 구원을 향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체로서의 하느님 백성은 예언자들의 백성이다. 성령의 선물로서 교회 구성원들은 ‘신앙 감각’을 소유한다. 그것은 일종의 ‘영적 분능’으로서 **교회와 함께하는 감각**(sentire cum Ecclesia)을 갖게 하고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과 복음서의 정신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게 해 준다.”¹⁴⁾ 그러므로 식별은 충실한 하느님 백성의 삶을 열어주는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¹⁵⁾ 이러한 개념의 배경에는 하늘나라 신비가 철부지들에게 드러나기에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이미지가 놓여있다.(마태 11,25-26 참조).¹⁶⁾

4) 마지막으로, **악한 영에 맞서 싸우기** 위한 기준이 있다. 영들의 식별이 일종의 신중함이나 순전히 인간적인 조심성, 더 나쁘게는 심층 심리학과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영성 생활에 있어서 악마의 활동에 관한 분명한 지식과 신앙 체계를 갖는 것이다. 실제로 악마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영신수련』의 표현대로, “악한 영”이라는 것을 인격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이

13) ID., *Omelia* a Santa Marta, 26 novembre 2013.

14) ID., *Discorso ai membri della Commissione teologica internazionale*, cit.

15) 신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신앙 감각의 확실한 표현들을 식별하도록 허락하는 기준들을 세밀하게 만들기처럼 교도권은 영이 신앙 감각의 진정한 현시들을 통해 교회에 말하는 것에 주의를 돌 의무를 지닌다.”(같은 곳).

16) 같은 곳. 여기서 교종은 2009년 11월 1일 국제신학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한 미사 강론에서 베네딕토 16세를 인용한다.

나 인간적 구조마저 악마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식별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특별한 도움을 제공한다. 성 이냐시오가 지닌 그리스도중심 영성과 다른 동시대 저자들의 영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찾고자 한다면, 이냐시오나 이냐시오가 충실히 따랐던 위대한 전통에서만큼 사탄이라는 신비가 모든 저자들에게서 강조되지는 않기에, 이냐시오의 업적이 지닌 그림자가 그리스도의 신비가 지니는 빛을 더욱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할 것이다. 은총에 관한 모든 주제들이 『영신수련』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하나로 모아짐에 반하여, 죄라는 주제들은 사탄의 인격에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 보자. 사탄은 적(敵)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그리스도와 사탄이 동등한 수준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사탄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행위를 (그 필요성이나 가치, 지속성 등등에 있어서) 더욱 잘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식별의 과정에서 『영신수련』의 도움¹⁷⁾

이제, 식별 과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 혹은 식별 여정에 있는 이들을 동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제공할 수 있는 독창적인 부분과 유용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영신수련』은 이냐시오의 “복음서”이자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메시지이며, 그의 케리그마¹⁸⁾이다. 이냐시오가 성경에서 끌어온 주제 및 새롭게 고안해 낸 관상과 묵상들, 그런 것들이 짜여진 순서와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 그리고 식별규칙과 각 단계별로 설정된 시간구분 등 『영신수련』의 모든 것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봉사하고자 근본적인 선택을 하거나 생활을 개선하게 될 사람이 기초로 삼게 되는 “영적인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17) M. A. Fiorito, «Apuntes para una teología del discernimento de espíritus», in *Ciencia y Fe* 19 (1963) 401-417; e in *Ciencia y Fe* 20 (1964) 93-123 참조. M. A. 피오리토 신부는 예수회원으로서, 호르헤 베르골료의 양성자이자 가까운 협력자였다. 그리고 40년 이상 “아르헨티나 예수회의 참된 영적 스승이었다.”(A. Restrepo, «Presentación», in M. A. Fiorito, *Buscar y hallar la voluntad de Dios*, Buenos Aires, Paulinas, 2000, 11 참조)

18) 케리그마는 ‘선포’인데, 선포는 신앙과 증거들을 설교하는 용기와 그리스도론적 내용의 밀도에 감사하며, 신앙으로 경청하는 자의 마음 안에 구원적 사건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만약 식별이라는 주제를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으로 한정하는 목적이 어떤 의미에서 환원주의적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보편 교회에서 어떤 카리스마는 보편적인 동시에 구체적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카리스마는 다른 카리스마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응축시키며 보충한다. 그것들은 성령께서 공동선을 위하여 특정한 성인에게 주시는 은총인 것이다.

성 이냐시오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의 『영신수련』에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영들의 식별과 선택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냐시오 자신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고 규명하는 일을 한다”고 말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방법에 따른 신학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감동을 주는” “성 예로니모와 성 아우구스티노, 성 그레고리오 등과 같은 실증신학자들”의 방법이 담겨있다.¹⁹⁾ 이냐시오의 신학은 사람들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영신수련』 363) 돕기를 추구하는 식별의 신학이다. 그것은 관념으로 이루어진 신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변적인 문제에 관하여 교부들이나 성 토마스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까다로운 방법이 아니라 (가톨릭 전통에 따른) 보편적인 접근 방식으로 여겨지듯이, 식별에 관하여 성 이냐시오에게 의지하는 것은 보편교회로부터 영신수련의 수호성인으로 인정받은 인물에게 의지하는 것이다.²⁰⁾ 영신수련을 한다는 것은 보편 교회가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하며 가장 결실이 많은” 방법²¹⁾이라고 추천하는 바를 실행하는 것이다.

영신수련의 융통성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의 특성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융통성으로서, 이는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주님이 맡기시는 종의 위치를 선택하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따르고자 하는 이라면

19) 『영신수련』, 363. 전투 교회에서 진정한 감각을 지니기 위해 지킬 규칙들, 규칙 11 참조.

20) Pio XI, Costituzione apostolica Summorum Pontificum: S. Ignatius de Loyola Caelestis Exercitiorum Spiritualium Patronus declaratur, 25 luglio 1922.

21) ID., *Mens nostra*; Giovanni Paolo II, s., *Angelus*, 10 dicembre 1979; *Codice di Diritto Canonico* (CIC) 246, 5, 770, 1030 참조.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여기서 비오 11세 교종의 제안으로 돌아간다. 곧 교종은 융통성을 들어서, 다시 말해 “모든 계층과 모든 조건의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며” 영신수련을 추천한 바 있다. 그는 신학의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천적인 면에서 모두를 강조했는데, 신학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최고봉의 경지에 이르도록”²²⁾ 이끄는 정감적인 힘을 지닐 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의 확고함에 있어서 가짜 신비주의자들의 위험한 환상에서 벗어나, 목상해야 할 진리들이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추어 질서를 잡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선상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러한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 “무엇보다 사제들이며, 그들이 ‘영신수련’의 조명을 받아 법을 존중하되 거기서 더 나아가 갈 줄 아는 역동적인 사목적 식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예수회의 중요한 임무”²³⁾이기에 여기에 가장 앞장서야만 한다는 것이다.²⁴⁾

식별을 준비하는 걸음들

영적 식별은 자율적인 주체의 개별 행위가 아니라 공동선을 위하여 교회 내에서 낮은 종의 자리를 선택하고 개혁하는 이들의 인격적 행위이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바라시는 삶의 상태나 생활개선을 선택하기에 앞서, 선택할 것들이 교회의 삶 및 구원의 역사라는 넓은 틀에서 복음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신수련』 “첫째 주간”의 구조에는 삶의 식별에 매우 적합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냐시오는 우리의 삶을 잘 선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질서 잡아야 하는 죄와 무질서한 애착에 대하여 목상하도록 한다. 죄라는 것을 보다 더 넓은 구조 속에 위치시키는 방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냐시오가 볼 때, 자기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끊어버릴 수 있으려면,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준비 단

22) ivi.

23) Papa Francesco, “Oggi la Chiesa”, cit., 349.

24) M. Revuelta Gonzalez, *La Compañía de Jesús en la España contemporánea*, vol. 3 Santander, Sal Terrae (e altri), 2008, 305.

계란 창조된 세계와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기에 정화가 이루어 질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관계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은 아닐 것이다. 이냐시오의 “원리와 기초”는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 피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함이다.”(『영신수련』 23)

이러한 회심에 바로 이어지는 단계가 있다. 즉, 죄 목상이 지옥 관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주간”과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부르심”으로 제시하는 둘째 주장을 이어주는 목상이다. 이냐시오는 하루 전체를 이 목상에 할애하도록 한다. 사실상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절박한 부르심이 없다면, 죄의 심오함과 복잡성은 복된 성인들이 걸어간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먹기에 앞서 매우 긴 정화의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영신수련』의 신학적 구조에서 두 가지의 긍정적인 현실 사이에, 즉 창조된 세계와 구원자의 부르심 사이에 죄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자. 프란치스코가 늘 말하고 있듯이, 죄는 감사한 기억이라는 전망과 사도적 희망이라는 전망 안에 놓여있다.

이러한 이냐시오적인 구조는 근본 선택에 대한 식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의식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의 식별을 실천하는 데에도 빛을 비추며 모델을 제시해 준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성찰은 고해성사를 위한 성찰보다 더 폭이 넓다. 의식성찰은 하루 동안 받은 은총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되며,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구체적인 소명에 따라 삶을 바로 잡고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감사한 기억을 떠올리는 데 소홀하게 되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식별도 그 복음적 뿌리를 상실하게 된다. 좋은 지향으로 시작하는 일은 많지만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의지나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체적이고도 충만한 은총에 귀를 잘 기

올이지 않기 때문이다.²⁵⁾

모든 식별의 구성으로서 행복들

신분을 선택하거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식별은 그저 이익과 불이익이라는 인간적인 기준을 따름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식별이란 “아버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준비작업에 더하여, 영적 식별은 보다 더 준비를 잘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나시오는 선택을 위한 준비로서 예수님의 전 생애에 대한 관상 그리고 선택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몇몇 자신의 고유 목상을 『영신수련』 안에 구조적으로 배치하였다.

식별을 잘 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견고한 기초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고 식별을 잘하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은 인간학적이고 신학적으로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지혜로운 행동은 선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목적을 갖고 명령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천적인 위탁과 초대에 순종한다. 그것에 “영원한 왕의 관상”이 도우며, 그 왕은 그의 구원 지평에서 가장 낮은 종의 위치를 발견하도록 모두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신다.

지성적 차원의 속고는 선택의 장(場)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 강화되며, 결국 선택은 두 가지로 환원된다.²⁶⁾ 그 순간 지성은 강화되고, 다양한 외부의 선택 사항을 따질 필요 없이 정감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두 개의 깃발 목상”이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선택도 중립적일 수 없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즉,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있거나 악마의 깃발 아래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경우, 선호하는 것에 대한 사랑은 선한 것을 선택하기를 “미루고”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유혹을 의식할 때 강화된다. 모든 선

25) 영원한 왕의 목상에서 이나시오는 우리에게 은총을 청하도록 한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귀머거리가 되지 않고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완수하기 위해 민첩하고 부지런하도록 은총을 구한다.”(『영신수련』 91)

26) S. Iyengar, *The Art of Choosing*, Kindle, 2010 참조.

택이란 포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선택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지를 식별하는 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묵상”이 도움이 된다.

다른 모든 “선들”보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 특히 가난하고 겸손하시며 순수한 사랑의 빛을 내뿜으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사랑을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인생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이의 식별 능력은 분명해지고 강화될 것이다. “세 가지 방식의 겸손 묵상”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을 바칠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감수해야 하며 어떤 것이 달갑지 않은지, 또한 다른 누구에게보다 가난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께 매력을 느끼는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적 의미에서의 행복, 즉 진복판단의 정신에 따라 모든 식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리는 결정이 그 복음적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하고 건강한 선택은 추인을 얻는다

일할 때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식별하고 선택할 때,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면 그 결과 및 전반적인 경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추인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 내리는 모든 선한 결정은, 한편으로는, 각 결정에 연관된 부정적인 결과(단념, 배제, 반대되는 생각이나 태도)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루어진 선택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하여 기꺼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준다.

『영신수련』은 한 번 선택이 이루어진 다음에, 현실감각을 키우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선택을 주님 수난과 비교하며 추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영신수련』이 제공하는 그 추가적인 도움이란 부활 관상이다. 자신이 한 선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쁨과 위안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하게 이루어진 선택이나 개선이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영신수련』은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영신수련』 230-237)으로써 식별의 추인을 돕는다. 이 관상은 이냐시오 영성의 전형적인 체험으로서 우리 주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찾아 발견하도록 해 준다. 이 때의 평화란 최고의 추인이

다. 왜냐하면 모든 것 안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밥 딜런. 노래는 아직도 바람 속에 흐르고

BOB DYLAN. LA CANZONE SOFFIA ANCORA NEL VENTO¹⁾

클라우드오 존타(예수회)

국춘심 방그라시아 수녀(성삼의 딸들 수녀회, 축성생활신학 박사) 옮김

포착할 수 없는 인물, 모순된 인물, 음유 시인, 시인이고 어쩌면 예언자인, 예술가인 것은 분명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넘어서 있는 인물인 밥 딜런의 모습을 대면하려는 시도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 복합성은 그의 작품 언어에서도 드러난다. 그의 노래는 때로는 이야기식이면서도 세상을 향한 비정한 시선으로 권력의 비참함에 못을 박는가 하면 어떤 때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감정과 마음이 움직이는 세계를 포착하고자 하고 또 어떤 때는 인간 존재와 세상 안에서 진동하는 무한자(無限者)의 그 섬광을 직감하면서 영적이고 성사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그의 글이 지닌 넓은 폭과 깊이는 조화와 대조를 위해 많은 포크 발라드, 블루스의 리듬, 록과 재즈와 통합되고, 그것들 안으로 녹아들면서 가스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밥 딜런이라는 인물에게 접근하려는 생각이라면 토드 헤인스 감독이 만든 영화 「아임 낫 데어」(I'm Not There, 2007)를 다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그는 이 미국인 싱어송라이터의 캐릭터를 풀어 나가기 위해 서로 다른 여섯 명의 인물에 의지하는데, 그들 각자는 밥 딜런의 예술가적이고 인간적인 본성의 요소들을 하나씩 체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 유색 인종 소년은 쉬지 않고 걸으면서 우디 거스리의 영감을 따라가고, 내성적인 포크송 가수 잭 롤린스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귀의하면서 미디어의 도구화를 피해 달아나려고 한다. 케이트 블란쳇이 분한 주드 퀴는 천재성과 분방함 사이에서 역설을 통해 언론에 도전한다. 이들은—꼭 이들만은 아닌데—꿈과 현실을, 창의성과 인간다움을 넘나드는, 그리고 실패와 대성공을 넘나드

1) *La Civiltà Cattolica* 2017 I 427-436 | 4000 (11 febbraio 2017)

는 밥 딜런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면 놀이를 통해 관객에게 제시되는 인물들이다.

초기

딜런의 초기 노래들 중 하나인 「뉴욕을 말하다Talkin' New York」(1962)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의 삶을 바로 하나의 경주로 나타낼 수 있다. 서부의 광야를 벗어나 / 내가 가장 사랑했던 도시들을 떠나 떠돌면서 / 뉴욕 시에 올 때까지 / 나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몇 가지 것을 보았지 / 빌딩들은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는데 / 사람들은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네.²⁾ 이러한 그의 경주는 율리시스와 같은 방식으로 귀향의 추구를 꿈꾸기보다는 결코 완전하게 규정할 수 없는 그 너머를 향해 나아가는 끝 없는 실존적 여정이 된다. 이 여정은 어쩌면 장소를 규정할 수 없는, 오로지 정신과 우연으로 이루어진 여정이다. 『아득한 옛날Time out of mind』(1997)라는 음반에는 「하일랜드Highlands」라는 곡이 들어 있는데 이 곡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분명히 희구되고 추구되는 장소에 대한 갈망과 추구를 표현하고 강조하는 절(節)로 끝난다. 날이 밝으면 내 마음은 고원에 있다네 / 언덕 너머 저 멀리 / 그곳으로 가는 길이 있지 / 나는 어느 정도는 그 길을 알아낼 거야 /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어 /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해.³⁾

중심을, 곧 자신의 히브리적 기원을, 미네소타에 살고 있던 가족을 벗어나 흔적을 남기며 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은 그의 세계관을 변화시켜, 인간의 능력을 빈곤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 구조에 종종 알지 못하는 사이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로 서로 다른 조망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현실에 대한 밥 딜런의 이해는 아래로부터 출발한다. 사람들이 지닌 저마다의 사연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비참한 처지 위로 몸을 굽힌다. 특히 60년대와 70년대에 전개된 미국 역사의 중요한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고자 오로지 이 관점에서만 출발하여 그는 눈을 든다.

2) “Ramblin’ outa the wild West / Leavin’ the towns I love the best. / Thought I’d seen some ups and down / Til I come into New York town. / People goin’ down to the ground / Building goin’ up to the sky.”

3) “Well, my heart’s in the Highlands at the break of day / Over the hills and far away / There’s a way to get there, and I’ll figure it out somehow / But I’m already there in my mind / And that’s good enough for now.”

그는 1963년 12월 3일, 토머스 페인 상 수락 연설에서 케네디 대통령 살해를 언급해 대립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는 더 이상 백인도 흑인도 없고, 우익도 좌익도 없다. 오직 위와 아래, 그리고 아래와 더 아래만이 있을 뿐. 바닥에 이르기까지. [...] 나는 일반 사람들과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생각한다.”⁴⁾ 또 시 「11편의 간략한 비문풍 시」 Outlined Epitaphs」(1963)에서는 이렇게 쓴다. “감정이 상처 입을 때 나는 그 상처 입을 감정 편에 선다.”⁵⁾

밥 딜런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대도시 뉴욕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람들은 땅으로 내려가고 있고 / 빌딩들은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다네.” 이 사회적·도시적 대조는 그에게 하나의 내적 파열의 체험이 되는데, 이는 그의 활동 초기에 저항가요의 노선에 자리한 노래를 통해 밝혀져야 했다. 바로 「뉴욕을 말하다」에서 들을 수 있듯이 듣는 이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야 하는 가사를 동반하는 것은 오직 기타 반주뿐이었다.

단순하고 즉각적인 음악은 마치 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남겨 둘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어떤 사연을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된다. 긴 가사가 이어질 때 반주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베이스 기타의 현소리는 기차 여행의 리듬을, ‘서부의 광야’로부터 뉴욕이라는 도시에까지 이르는 오래된 철길의 리듬을 만들어 낸다. 그런가 하면 긴 여행에서 거쳐 가는 수많은 역들을 알려 주듯이 한 절과 다음 절 사이의 간주에는 하모니카 소리가 동반한다. 「뉴욕을 말하다」는 밥 딜런의 경주를 개시하는 노래인데, 그 경주는 인간을 향한 달리기이다. 수많은 모순들 사이에, 물이해와 계층의 차이와 평화주의적 반란과 무장(武裝)을 향한 달음박질과 정치적 위기와 전쟁의 야만 사이에 선 인간을 향한 달리기인 것이다.

밥 딜런의 음악적 뿌리는 땅에 박혀 있다. 화물 열차를 탄 방랑자요 농민이자 시인이며 화가였던 포크송 가수 우디 거스리도 노래했던 메마르고 쓰라린 땅에 박혀 있는 것이다. 우디 거스리는 30년대에 강한 모래 폭풍의 공격을 받았던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의 광부들과 노동자들과 수많은 주민들의 처지를 묘사했었다. 이 드라마틱한 대기 현상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이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4) www.culturalclassic.it/it/dettaglio_news.aspx?iddettaglio=2128&myband=47

5) “When feelings are hurt, an’ I am on the side a them hurt feelings.”

존재하던 ‘에텐의 동산’이었던 캘리포니아를 향해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거스리가 「도레미Do Re Mi」(1940)라는 곡에서 노래하듯이 “그들은 거기서 설탕 그릇을 발견하리라 생각하지만”⁶⁾ 그것은 돈이 없는 그들로서는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1961년 첫 번째 음반을 낼 때 밥 딜런은 뉴저지에 가서 바로 그레이스톤 파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디 거스리를 찾아간다. 그렇게 그는 자신에게 영감을 준 위대한 스승을 기억하며 「우디에게 바치는 노래Song to Woody」를 부른다. 먼지와 함께 왔다가 바람과 함께 가 버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손에 이 노래를 바칩니다.⁷⁾ 인간 존재는 그 본질과 깊이에서 분석되어 강도 높은 묘사가 이루어진다. 곧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음과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마음은 감정이 자리한 곳이지만 히브리적 해석을 따르자면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편 손은 마음에 자리한 열정과 결정에 기초하여 현실을 변모시킨다.

노래에 묘사된 인간은 또한 성서 문화에 뚜렷이 존재하는 다른 두 용어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먼지와 바람이 그것이다. 이 두 용어는 인간 조건의 연약함과 허무를 상기시키는 상징이다. 하지만 이는 딜런이 노래 하나를 바칠 뿐 아니라 자기 작품의 상당 부분을 바칠 정도로 존엄성을 부여하는 허무이다. 이는 어찌된 밥 딜런의 가장 큰 사랑의 행위요 가장 큰 시(詩)와 꿈의 행위일 것이다.

비참한 사람들의 노래

먼지와 함께 왔다가 바람과 함께 가 버리는, 마음과 손으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은 딜런의 노래 안에서 이름과 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고발당한 미들급 권투 선수 루빈 카터 허리케인Rubin Carter Hurricane과 같은 경우이다. 딜런은 1966년 6월 17일 뉴저지의 라파예트 술집에서 세 명이 숨진 살인 사건으로 형을 선고 받은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자신에게 보낸 이 권투 선수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자크 레비와 함께 이 이야기를 「허리케인Hurricane」이라

6) “They think they’re goin’ to a sugar bowl”

7) “Here’s to the hearts and the hands of the men / That come with the dust and are gone with the wind”

는 제목의 기다란 발라드로 쓰기로 작정한다. 루빈 카터는 연방 법원의 평결을 통해 1985년에 석방되었는데, 연방 법원은 그 소송이 인종차별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살인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선언했다.

발라드는 마치 권투 경기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득점으로 이어진 잭처럼 급박한 리듬과 딱딱하고 날카로운 전자음으로 진행되는데, 바이올린과 빠른 리듬의 기타가 연주하는 빠른 음계가 이를 강조한다. 딜런이 실마리를 얻은 허리케인의 자서전의 제목이 바로 「열여섯 번째 라운드The Sixteenth Round」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허리케인이 수감 생활을 하던 시기처럼 이제는 오로지 절망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만 싸우는, 규정된 한계를 넘어선 가장 힘든 열여섯 번째 라운드.

딜런이 표현하는 실존적 균열은 불의로 인한 것이다. 불의는 인간의 열망과 희망, 특히 이 경우에는 세계권투챔피언이 될 기회를 파괴해 버렸다. 파괴하며 불의가 만들어내는 실존의 균열을 딜런은 표현한다. 이 미국인 싱어송라이터는 먼지에서 와서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덮치는 불의에 맞서 이렇게 노래한다. 이것이 허리케인의 이야기예요. / 그들이 그의 이름의 오명을 벗기고 / 그가 감방에 던져진 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이야기. / 하지만 그는 한때 세계 챔피언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죠.⁸⁾

‘비트 제너레이션’과 상징주의 사이에서

딜런은 포크 스타일에 뿌리를 내린 채로 계속해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인간적·음악적 추구는 그것을 넘어 가냘픈 바람 한 줄기를 따라간다. 그 바람 한 줄기는 그로 하여금 실험을 하도록 하고 변화하게 하며, 이해받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팬들까지도 그를 부인할 정도까지 이끌어 간다. 잭 케루악Jack Kerouac과 윌리엄 버로스William Burroughs에게 영감을 얻은 미국 비트 제너레이션의 길을 가면서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를 알게 된 딜런은 그와 오랜 문학적·음악적 우정 관계를 맺는다. 앨런 긴즈버그가 1976년에 『첫 블루스: 래그, 발라드와 하모늄

8) “That’s the story of the Hurricane / But it won’t be over till they clear his name / And give him back the time he’s done / Put him in a prison cell but one time he could-a been / The champion of the world.”

노래들 1971-74 *First Blues Rags, Ballad & Harmonium Songs 1971-74*』를 내면서 “음유시인 구루지Guruji 밥 딜런에게”라는 헌사를 붙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언한다.

비트 제너레이션의 미학이 지닌 면들 중 하나가 딜런을 매혹시키는데 이는 즉흥이라는 개념으로, 바로 긴즈버그가 제안했던 낭송 중에 표현되었다.⁹⁾ 즉흥이라는 요소는 사실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추진력을 영구화하려는 의도였고 그렇게 주장되었다. 『울부짖음Howl』의 낭송 및 랭보 Rimbaud와 베를렌Verlaine과 같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의 낭송과 더불어 긴즈버그의 참여는 버림, 고독, 자신과의 투쟁이라는 다른 실존적 주제들을 더 심화해 가는 데 토대가 될 것이다. 이 시기의 가장 강렬한 곡들 중 하나는 「폭풍으로부터의 피신처Shelter From The Storm」(1975)으로, 이 곡의 가사는 상징적인 표상들로 짜여 있는데, 이 표상들은 어떤 분명하고 확정된 의미 안에 갇히는 일이 결코 없는 풍부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 나는 광야에서 들어왔네. 형체 없는 피조물로. [...] 강철 눈을 가진 죽음의 세계 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싸우는 사람들 [...] 나는 탈진 상태로 녹초가 되어 우박 속에 묻혔지 / 덩불 속에서 독에 취해 오솔길로 끌려가네.¹⁰⁾ 이는 이 노래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삶이 하나의 형벌로 변할 때까지 얼마나 메마름과 무의미에 빠져들 수 있는지를 밝히 보여 주는 구절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광야와 형체가 없는 피조물의 현존은 불명확성의 표현이다. 곧 자연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 주는 물로 적셔지지 않은 땅은 광야가 되고 불모의 장소가 된다. 한편 형체가 없는 존재는 정체성이 없다. 존재의 본질을 특징짓는 그 모든 한계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래는 그렇게 삶의 정신과 반대되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그 상황은 강철 눈길을 지닌, 그래서 차갑고 비인간적인 죽음의 세계로, 그 안에서 사람들은 따뜻한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다. 삶은 그렇게 ‘삶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점

9) R. Shelton, 『밥 딜런의 생애와 음악(Vita e musica di Bob Dylan』, Milano, Feltrinelli, 1987 참조. “뉴욕 대학에서 1971년 긴즈버그의 시 낭송회에 딜런과 데이비드 앨런이 참석했었다. 딜런은 말을 즉흥적으로 운용하는 앨런의 능숙함에 큰 감명을 받아 1971년 11월 17일과 20일에 녹음 작업을 기획했다.”(330-331)

10) “I came in from the wilderness, a creature void of form [...] In a world of steel-eyed death, and men who are fighting to be warm [...] I was burned out from exhaustion, buried in the hail / Poisoned in the bushed an' blown out on the trail”

점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르러 수동형 동사 세 개가 인간 존재 자체의 사형 선고를 정의하는데, 그 동사들은 곧 ‘녹초가 되다burned out’, ‘묻히다buried’, ‘독에 취하다poisoned’이다. 하지만 밥 딜런의 인간학은 부정적이지 않다. 인간을 관계를 맺는 순간에 표현되는 사랑의 전달자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들어와요.’ 그녀가 말했네. ‘당신에게 폭풍을 피할 곳을 줄게요.’”¹¹⁾ 이는 1절부터 10절까지 각 절의 끝에 나타나는 구절이다. 그리고 노래 중간에서 딜런은 이 반복되는 구절의 의미를 밝힌다. “그녀는 무척 우아하게 나에게로 걸어와 내 가시관을 벗겨 주었지.”¹²⁾ 인간의 삶에는 폭풍을 피할 피신처가 될 뿐 아니라 끌어안아 주기도 하는 사랑이 존재한다.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친밀함으로 인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가시관을 벗길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수난passion과 인간의 열정passion을 연결해 주는 자라는 섬세한 표상을 통해 살아지는 사랑이다. 이는 인간 존재의 근본 요소로 인정받는 사랑이요, 땅을 광야가 아닌 것으로, 세상을 인간을 위한 피조물로, 타인을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존재, 자신을 그에게 비취 보는 존재로 알아보게 하는 근원적 감정으로 인정되는 사랑이다.

하지만 바로 일상의 체험에서 사랑의 부서진 조각들을 체험한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 딜런은 단순화를 용인하지 않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의무를 느낀다. 곧 “이 보게, 내가 그대의 질문을 이해했는가? 희망 없이 버림받은 것인가?”¹³⁾ 하는 질문이다. 이는 열린 질문으로 수사적이고 뻔한 답을 제공할 수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딜런이라는 가수는 “‘들어와요.’ 그녀가 말했네. ‘당신에게 폭풍을 피할 곳을 줄게요.’” 하고 계속해서 메아리치는 구절 안에서, 그 질문을 바람에 날아가며 진동하도록 둔다.

밥 딜런은 스튜디오 녹음에서 솔로 기타와 베이스만을 사용했다면, 이후의 라이브 버전에서는 전기 기타를 사용하여 더욱 공격적인 느낌의 편곡을 택했다. 그로 인해 가사의 몇몇 이미지들이 지닌 거친 느낌과 동시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의 드라마틱한 성격을 강조할 수 있었다.

11)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12) “She walked up to me so gracefully and took my crown of thorns”

13) “Do I understand your question, man, is it hopeless and forlorn?”

밥 딜런과 ‘종교적 3부작.’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은 복음주의 기독교로 개종한 시기인 70년대 말기에 다시 등장하는데, 실존의 의미는 더 긴박해지고 예언적이고 묵시록적인 면들이 어느 정도 강조된다. 이 시기에 인간에 대한 염려가 더욱 더 절박해지는 것을 보면 흥미롭다. 이야기되고 노래로 불리고 살아지고 상상되고 사랑받고 미움받는 그 수많은 사연들은 『느린 기차가 와Slow Train coming』(1979)라는 음반에 수록된 「누군가를 섬겨야 하리Gotta Serve Somebody」라는 곡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데, 마크 노플러 Mark Knopfler의 기타가 멋지게 반주를 한다. 당신은 고급 관리일 수도 있고 젊은 사기꾼일 수도 있겠지요 / 당신은 커다란 텔레비전 방송국의 사장일 수도 있고 /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맹인이거나 절름발이일 수도 있겠지요 / 당신은 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¹⁴⁾

이 시기에 딜런은 듣는 이로 하여금 노래 안에서 이야기되는 사건들에 대해 숙고하도록 끌어가는 실존적 상황들을 묘사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입장을 취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진정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 할 거예요. / 그것이 악마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죠 / 어쨌든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 할 거예요.¹⁵⁾ 이 대목은 루카 복음서의 한 대목(16,13)을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구절은 존재와 그 활동에 긴밀하게 연결된 신앙과 관련된 선택 앞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그가 특히 일부 인간들의 이기심과 오만에 지배당하는 상처 입은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사실, 「느린 기차Slow Train」라는 곡에서 딜런은 소유와 축적의 욕망에 지배당하여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14) “You may be a state trooper, you might be a young Turk / You may be the head of some big TV network / You may be rich or poor, you may be blind or lame / You may be living in another country under another name.”

15) “Indeed you’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 Well, it may be the devil or it may be the Lord / But you’re gonna have to serve somebody.”

피조물 및 자기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 곡식 창고는 넘쳐나고 / 오, 당신은 아는가 / 곡식을 내주는 것보다 곡식을 쌓아 두는 데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을.¹⁶⁾

이 또한 성경을 상기시키는 구절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루카 복음(12,13-21)에 나오는 비유, 곧 자신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순간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 못하는 부자의 탐욕에 대한 비유를 상기시키는 구절이다. 생명을 사고파는 거래 상품으로 간주하면서 양심과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생명 자체를 ‘사물화(事物化)’하려는 인간의 경향에 대한 딜런의 생각은 그의 초기 걸작들 중 하나인 「불어오는 바람 속에Blowin' in the wind」에 들어 있는 예들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 어떤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 [...] 사람은 대체 몇 번이나 위를 올려다보아야 / 하늘을 볼 수 있을까?¹⁷⁾

이 깊은 신앙 체험은 이른바 ‘종교적 3부작’에, 곧 『느린 기차가 와』(1979), 『구원 받은Saved』(1980), 『샷 오브 러브Shot of Love』(1981)에 반영되어 있으며, 내밀하고 평온해진 발라드 『모래알 하나하나Every Grain of Sand』(1981)의 마지막 절로 잘 요약될 수 있겠다. 이 절에는 종종 정언적(定言的)이고 굽힐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 이 체험 역시 실제로는 딜런을 또 다시 바람 속에서 답을 듣게 할 하나의 단계와 다름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바다의 움직임 같은 오래된 발자국 소리가 들리네 / 이따금 내가 돌아설 때 누군가가 거기 있어. 다른 때는 나 혼자이지. / 나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저울에 매달려 있네 / 추락하는 모든 참새처럼, 모래알 하나하나처럼.¹⁸⁾

16) "People starving and thirsting / grain elevators are bursting / Oh, you know it costs more to store the food / than it do to give it."
17)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 Before you can call him a man? [...] Yes, 'n'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 Before he can see the sky?"
18) "I hear the ancient footsteps like the motion of the sea / Sometimes I turn, there's someone there, other times it's only me. / I am hanging in the balance of the reality of man / Like every sparrow falling, like every grain of sand."

밥 딜런에게 있어 결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인간이란 항상 답이 주어지지 않는 질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 딜레마는 오직 무한자의 향기를 풍기는 은유와 이미지로 혹은 고독과 심연의 냄새를 풍기는 비참한 사연들로 이야기되고 노래될 수 있을 뿐이다. 세상을 향한 딜런의 시선은 광대한 것들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관통하는데, 이것들은 인간 존재의 복합성이 분절(分節)되는 지평이요 실존적 자리가 된다. 그것은 딜런이 계속해서 직면하는 복합성인데, 예견할 수 없고 결코 자신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며 항상 되어 가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 묻도록 재촉하기 때문이다.

존재의 빛과 그림자

이 드라마틱한 특성은 『아득한 옛날Time Out of Mind』(1997)이라는 음반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음반에서는 「아직은 어둡지 않아Not Dark Yet」라는 곡이 두드러진다. 나의 인간미는 몰락했다네 / 모든 아름다운 것 뒤에는 모종의 아픔이 있어 왔지 / 그녀는 내게 편지를 썼는데 아주 친절하게 썼더군 / 그녀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글로 썼어 / 나는 내가 왜 거기 신경 써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 아직은 어둡지 않아, 하지만 어두워지고 있군.¹⁹⁾ 이 구절은 상냥하게 쓴 편지로 상징되는 조화로움에 대한 열망과 어둠이 짙어 간다는 느낌 사이의 드라마틱한 긴장으로 진동한다. 한편 반주(伴奏)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이 시적인 노래의 가사를 따라가는, 떨리는 듯 차분한 목소리를 감싸고 있다.

밥 딜런은 이 모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다른 것이 있다. 그의 노벨 문학상의 수상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가 입장을 밝히는 데 늑장을 부린 것 역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노래가 복잡한 역사적 시기들을, 특히 60년대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정치사회적 역사의 시기들을 지나왔다는 것이다. 그의 노래는 가난과 폭력으로 부서진 수많은 존재들에게 목소리를 주면서 시와 섬세함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노래는 권력보다 사랑을, 전

19) “Well my sense of humanity has gone down the drain / Behind every beautiful thing there’s been some kind of pain / She wrote me a letter and she wrote it so kind / She put down in writing what was in her mind / I just don’t see why I should even care / It’s not dark yet, but it’s getting there.”

쟁보다 평화를, 독백보다 대화를 선택할 줄을 알았다. 그의 노래는 영적인 것의 탐구를 시도하면서 하늘을 향해 일어섰지만 발은 종종 메마르고 딱딱한 그 땅에 뿌리박고 있었다. 그의 노래는 아이패드가 꺼지고 나서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메아리치면서 계속 노래하고 바람 속에서 진동한다.

가톨릭 교회의 아동 보호

프란치스코 교종이 바라는 주교의 모습

루이 르브레

: 교황 회칙 「민족들의 발전」의 멘토가 남긴 유산

가톨릭 교회의 아동 보호

LA TUTELA DELL'INFANZIA NELLA CHIESA CATTOLICA¹⁾

한스 졸너 신부(예수회, 교황청 성직자성 고문, CCP 센터장)

입속희 레지나(교황청립 혼인과 가정 대학 신학원) 옮김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적 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아르헨티나에서 다양한 뉴스 채널과 출판물을 통해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아동과 젊은이를 성폭력²⁾에서 보호하는 것은 교회와 사회의 중요한 임무이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명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가톨릭 인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교종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우려를 다시 표현하였다. 남자 수도회 장상들과의 대화³⁾와 성적 학대에 희생된 저자가 쓴 책⁴⁾에 직접 쓴 서문에서 교종은 이 문제에 대해 큰 걱정을 나타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그 책 서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에 봉사하는 사제가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하느님께로 이끌고자 생애를 봉헌한 사람이, 제가 희생자와 교회의 생명을 모두 파괴하는 ‘악마의 제물’이라고 부른 행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자기 탐욕으로 파괴해버리니까? 어떤 희생자들은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죽음들은 저의 마음과 양심, 그리고 전 교회의 양심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저는 사랑과 슬픔과 아울러 겸손하게 용서를 청합니다. 이것은 아주 추악한 행위이자 경악스런 죄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⁵⁾

1) *La Civiltà Cattolica* 2017 I 448-457 | 4001 (25 febbraio 2017)

2)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 등 성(性)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역자 주

3) 프란치스코 교종, 「“진정제 없이 복음을 취하십시오”: 수도회 장상들과의 대화」

4) Daniel Pittet, *La perdono, padre*, Milan, Piemme, 2017 참조.

5) 그 본문은 2017년 2월 13일자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에 「쇼아성애자, 교

교종의 이런 충격적인 표현에 대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종의 말씀은 확실한 결론과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앞으로 몇 달 그리고 수년 동안 이런 종류의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전 세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많은 사례들이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의도적으로 또는 용인하면서 인간이자 그리스도인에 대한 근본적인 사목적 돌봄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욱 심각한 증언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또한 확고한 각성을 요구하는 신호로서 기여할 것이다. 종양이 생기면 상처를 열고 환부를 도려내어 고름이 빠질 때에만 치유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 치유 과정은 사건이 발생한 후 아주 늦게, 수십 년 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든 장소에서 같은 속도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진 가톨릭 교회가 아동 성추행 문제를 드러내고 예방하는 자세와 방법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추행 예방에 대한 교회의 기여는 나라마다 매우 다른 문화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런 도전은 전 세계 200여 국가에 10억 3천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퍼져있으며 이들을 단일한 단위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가톨릭 체제 안에는 220,000개 이상의 학교들이 복합적인 경제, 법률, 문화 안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1,450개의 가톨릭 대학, 수십만 개의 유치원, 유아원, 장애인 복지 센터와 사회 복지 단체, 병원, 쉼터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추문에 대한 응답으로 아주 구체적인 예방책을 도입한다.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모든 분야에서 고용자에게 전문

종의 고통: 어떻게 한 사제가 그렇게 큰 악을 저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다시 게재되었다. 교종은 봉헌생활의 해인 2015년에 바티칸에서 이 책 저자인 Daniel Pittet를 만났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그렇게 열렬하고 열정적인 이 사람이 사제 성추행의 희생자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종은 계속 말했다. “그가 저에게 말한 것과 그의 고통은 나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성추행과 그 희생자들을 기다리는 길고 고통스런 여정이 자아낸 엄청난 해악을 다시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오늘 그의 증언을 읽을 수 있고, 악이 교회의 종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행복하게 여깁니다.” 다니엘은 44년 후에 그를 성적으로 고문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택했다. 교종은 계속 말한다. “그 상처받은 아이는 지금 든든한 남자, 약하지만 든든한 남자이고 저는 그의 말에 아주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해왔고, 그 용서 위에 제 삶을 구축했습니다.’ 다니엘, 감사합니다, 이 증언은 스캔들과 고통을 억압하는 침묵의 벽을 부수고, 교회의 삶에서 지독한 오점에 빛을 비추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올바른 치유와 화해의 은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소아성애자들에게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의식하게 도울 것입니다.”

적인 훈련과 규칙을 제공한다. 이와 반대로 어떤 나라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성적 학대를 찾아내어 이 사건에 개입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은 가톨릭 교회에 최소한 아동 성추행에 관해 공공 행정이나 경제 분야에 흔히 존재하는 체계화된 지침이나 감독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부에서 가톨릭을 보는 인상과는 다르다. 요셉 라칭거 추기경은 교종이 되기 전에도 교황청 신앙성 장관으로서 성추행을 막을 중요한 결정들을 시행하였다. 희생자 보호를 위해 공소 시효가 연장되었고, 정신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도 범죄로 여겨지게 되었다.

교황청의 주도권

교회 전체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해왔는데, 이런 움직임은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고위 교회 성직자들, 특히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 교종은 성직자의 아동 성추행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직면하라고 권고해왔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선임자들의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했는데, 교황청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 *Pontificia Commissione pro Tutela Minorum*를 설립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교종은 보편 교회의 차원에서 지속성과 효과를 가지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아동 보호에 박차를 가하는데 필요한 구조적 물질적 상태를 갖추게 하였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 위원회를 교회의 아동 보호 문제에 도움을 주는 자문 기관으로 위촉하였다.

교종은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의 몇 가지 제안 사항들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성추행의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의 날 제정과 성추행을 알고도 침묵하거나 무시한 주교나 수도회 장상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등을 제도화했다. 교회는 정의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 2011년에 교황청 신앙성은 모든 주교회의에 성추행 사례 지침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큰 수도회 장상들도 이 작업에 참여했다. 그 지침에는 여러 가지 사항 가운데에서도 성추행 예방을 위해 각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학대로 고통당해온 사람들에 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범죄 행위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추행 예방을 위해 사제 양성 과정에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

이 설명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직자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 왜 교회 전체에 통용되는 일관된 지침이 없는지 계속 질문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에서 똑같이 적용해야 할 법적 규정이 적시되어야 한다. 이것에는 각각의 주교가 자신의 교구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따라야 할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사건이 일어나면 조사를 하고 비난받을 만한 사례가 발견되면 그것을 로마의 교황청 신앙성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교황청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을 결정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된 형사 재판은 이런 일이 일어난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식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상적이지만 자국 재판이 힘든 이유가 있다. 형법을 전공한 훈련된 교회법 전문가 인력을 제대로 갖춘 지역 교회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교회의 장상들에 의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문화적 상황의 차이

전 교회 차원에서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어떤 나라에서는 성추행과 예방에 대한 문화적 시각이 다른 나라와는 출발선상부터 다르게 접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차이는 성애(섹슈얼리티), 감정,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그런 주제들에 대해 말하며 살아내는가와 관련된다. 한국처럼 전통적인 유교 국가 안에 가톨릭 교회가 현존하는 나라도 있고, 힌두교가 우세한 인도처럼 성적 관계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나라에 교회가 존재하는 곳도 있다. 수천 개의 아프리카 문화와 남미의 안데스 국가들의 원주민들 사이에도 가톨릭 교회가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인간들의 삶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만남을 토착화(inculturation)라고 부른다. 토착화는 전례 의식과 더불어 교회가 더욱 깊게 관여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성직자의 아동 성추행이라는 꺾끄러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까 또는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까에 영향을 미친다. 6년 전에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주교회의에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지만, 그 동안 5대륙의 112개 주교

회의는 아직 성추행 사례 지침을 발전시킬 어떤 프로젝트도 시작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어권 주교회의들이다.

시민법과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국가 기관들은 성추행 사례를 다르게 접근한다. 이것은 교회가 성추행에 대해 행동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주 논쟁이 되는 문제는 - 때로는 한 나라에서 주마다 규정이 다를 때에도 논쟁이 일어난다 - 개별 시민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성추행 사례를 해당 상부에 보고하는 의무의 차원이다.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는 무조건적 의무부터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여러 주에서는 -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경찰에 알리거나 정부의 사회 서비스 기관에 알릴 수 있는 나라들인데, 그들 편에서 경찰에 알릴지를 결정한다 - 각각의 다른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까지 걸쳐 있다. 우리는 그 규정들이 문서화되고 문자로 고정될 때에도 많은 나라에서 그 규정들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도 덧붙여야 한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많은 지역,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지역들, 동유럽 일부에서, 아동 성추행은 아직은 긴급하고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놀랄 만하다. 왜냐하면 모든 통계의 결과를 보면 미성년자 성추행은 드문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은 아주 높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다. 18세 이하 소년의 10-15%와 소녀의 15-20%가 성폭행이나 성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성 학대 환경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인데 대부분 감추어져 있다. 이런 현실은 가족이 함께 잘 살며 건강한 관계들을 맺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해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제기한다. 남반구 국가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성직자의 아동 성학대가 단지 서구의 퇴폐적인 자유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필리핀 주교들과 르완다 수도회 장상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추행 예방과 아동 보호 문제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지역에서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더 넓은 시야에서 아동과 젊은이 성추행 문제를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후진국에서 아동과 젊은이들은 여러 종류의 잔인한 대우, 다시 말하면 전쟁, 오염된 물, 목마름, 안전 부족, 힘든 육체노동과 임금 착취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폭력적인 세상에 살면서 성추행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다른 이유로 인한 범죄와 별 차이가 없다. 나아가 이런 지역에서 성추행은 아동과 젊은이들이 겪는 더 큰 고통의 일부로 여겨진다. 이런 나라들에서 성폭력에 반대하기 위해 교회와 세상에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면, 성추행 예방만이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아동의 모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 학대에 맞서 싸우자는 주장이, 종종 비인간적이기까지 한 그 나라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에 대하여 전형적으로 형성된 서구인들의 신경증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서구 이데올로기라고 외면당할 위험이 있다.

예방에 대한 의식과 헌신을 증가시키라

현실이 그렇지만 성직자의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의식은 교회, 센터, 주변부에서 (교종이 사용하는 표현을 취하자면)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말라위, 멕시코, 폴란드에서처럼 피지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와 동시에 그들의 사회 안에서) 성추행 예방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많은 장소에서 성추행 사례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 그리고 최소한의 예방을 하고 있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 수도회, 학교, 청년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센터에서 구체화된 예방 지침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런 나라들의 교회에서는 표준이 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기관에 의해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이제부터,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라고 믿는다면 위험하다. 이 문제가 서서히 뒷전으로 사라지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첫째, 교회에서, 사회와 가정에서 성추행 사례들을 계속 다루어야 한다. 예방 도구만 가지고 아동들에게 행해진 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일 것이다. 아동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대한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다. 아동보호를 위해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임무를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이다.

과거 5년 동안 교회 지도층 사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행동하려는 의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장소에서 아동과 젊은이를 성추행에서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인 일로 여기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이 문제에 헌신하지는 않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사회-문화적 이유일 것이다. 정부 기관 또는 엔지오(NGO)와 함께 성추행 예방 문제에 협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교회가 각 나라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달려 있다.

무슬림, 힌두교, 또는 불교가 우세한 국가에서는 힘 있는 지도층의 관용과 선의에 따라 협력할 수도 있고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례를 보자. 그리스도인이 소수이며 온갖 유형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박해받는 나라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 수녀가 있었다. 그녀는 어느 교사가 소녀들 몇 명을 성적으로 학대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양심에 기초하고 자국법과 유럽 후원자들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면서, 이 학대를 공적으로 비난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 교사는 시장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교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종교의 신자였기 때문이다. 그 수녀는 경찰이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고아원을 폐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는 부정적인 매스컴이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기관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단 말인가?”를 구실로 삼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도 있다고 여겼다.

그레고리안 대학의 “아동보호센터”

구체적인 예방 프로그램은 성범죄를 예방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 학대의 상태와 기여 요인과 결과를 널리 알리며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모두에게 촉구한다. 교회는 이 영역에서 교회의 교육, 학문, 자선, 사목적 기관을 통해 이미 제3세계 국가에서 하고 있듯이 다른 종교 공동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유형의 조직들을 위한 국제 규모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황청립 그레고리안 대학교의 아동보호센터(CCP)는 뮌헨과 프라이징 교구, 그리고 아헨 교구의 *Kindermisssionswerk*(독일 가톨릭 교회의 아동 복지 기관)의 관대

한 후원에 힘입어 아동 성 학대 예방이라는 사명에 전념하고 있다.⁶⁾ CCP는 지금까지 거의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에서 주로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이 목적을 위해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양성한다. CCP는 본당, 학교와 유치원 등 교회 환경 안에서 일하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아동과 청년을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한 아이가 학대를 당하거나 당해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본당이나 가톨릭 학교 안에서 아동과 청년에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 학대와 싸우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며 교회와 사회 안에서 거의 모든 사람과의 협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과 행동하는 법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작업은 서서히 진행된다. 이것이 CCP가 가르침과 훈련으로 (미성년자 보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장 또한 이용 가능한) 양성에 전념하는 이유이다.

CCP는 교황청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 Pontific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Minors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분야에서 사제 지망자와 교회 지도자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CCP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교회 안의 예방활동에 지속적인 원동력을 제공하기를 지향한다. 그리고 성 학대 예방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최선의 훈련”을 위한 교육장으로서 CCP의 활동은 모든 나라와 모든 대륙으로 확산된다.

성적 학대와의 싸움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규칙이나 지침을 소개하는 것이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 싸움은 근본적인 회심을 요구한다. 희생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사그러들 때에도 성추행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하느님의 메시지는 이 활동의 원천이자 힘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성찰은 계속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작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어린아들이

6) CCP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는 www.childprotection.unigre.it에서 볼 수 있다.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르 10,14; 마태 19,14; 루카 18,16).

프란치스코 교종이 바라는 주교의 모습

LA FIGURA DEL VESCOVO IN PAPA FRANCESCO¹⁾

디에고 하비에르 파레스 신부(예수회, 『치빌타 카톨리카』 집필자)

김숙희 그라시아 수녀(성심수녀회) 옮김

2015년 5월에 개최된 제68차 이탈리아 주교회의 정기 총회 개회사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주교들에게 배를 모는 “항해사”가 되지 말고 진정한 “목자”가 되라고 부탁했다.²⁾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종은 과거 교구장으로 봉사했을 때 사용하던 이미지를 다시 언급하며 “황태자 같은 주교가 아니라 목자인 주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그가 2006년에 스페인 주교들에게 피정을 줄 때, ‘마니피캇’을 목상하며 “우리 자신을 주인이 아니라 협조자로, 또 귀족이 아니라 성모님처럼 겸손한 종으로 놓고 느껴 보라.”고 말했다. 피정을 마무리할 때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구절에 대한 목상을 나누며, “사람들은 목자를 원하지 세상의 유행에 따르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세련된 주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³⁾

이러한 사목적인 선택은 단지 주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각각 자신의 상태와 환경에 맞게 “파견되는 제자들” 모두에게 속한다.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교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귀족들처럼 다른 이들을 깔보는 자가 아니라 그 백성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어떤 교종의 견해도 아니고 여러 가능성들 가운데 사목적으로 고르는 선택 사항도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 말씀의 명령으로서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확실하기에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 힘을 빼 버리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군말 없이 이를 실천합시

1) *La Civiltà Cattolica* 2015 II 433-449 | 3959 (13 giugno 2015)

2) 프란치스코 교종, 제68차 이탈리아 주교회의 총회 담화, 2015.5.18.

3) J. M. 베르골로,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희망이. 스페인 주교들에게 준 영신수련』(2006.1.15-22.) Milan, Jaca Book, 2013, 14: 82.

다. 설명하지 말고 실천합시다.”⁴⁾

“황태자가 아닌 사목자”의 이미지가 때로 미디어에서는 교종이 주교들과 사제들에게 던지는 질책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비난의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닌 어떤 것이다. 이 이미지는 획기적인 변화를 식별하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더 중요한 의미로는 어느 주교나 어느 사제도 사목자로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기도록 자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초대라고 할 수 있다.⁵⁾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불을 밝히려고 노력하면서 하느님의 충실한 백성과 삶을 나누는 선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 271항)

자기 백성을 지키는 사람들인 주교

그리스어로는 에피스코포스 episkopos인 ‘주교’라는 호칭 자체에서 명확한 은사를 알 수 있다. 2001년 당시 추기경이던 베르골료가 “주교: 세상의 희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봉사하는 종”이라는 주제로 열린 시노드에서 이 은사를 고찰했다. 그 은사란 특히 주교의 사명으로서, ‘보호 감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베르골료 추기경의 발언 전문을 읽어 보자. “주교는 ‘깨어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희망을 수호하며 자신의 백성을 돌본다.(1베드 5,2) 그 영신적 태도는 무리 전체를 ‘감독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주교는 무리가 흩어지지 않고 전체로서의 응집을 유지하게 하는 모든 것을 살피는 사람이다.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또 다른 영신적 태도는 위험에 ‘깨어 있을 vigilant’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주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관련이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깨어 지키는’ 태도까지 더할 때, 이 태도들의 힘이 전체성을 얻는다.

이 태도를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 중 하나를 탈출기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과일절 밤 혹은 ‘깨어 지새우는 밤’이라 불리는 그 밤에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 주셨다는 내용을 전한다.(탈출 12,42) 내가 밀줄을 긋고 싶은 부분은 일반적 의미 또는 어떤 대상을 감독한다는 특정한 의미의 ‘지켜봄 watching over’과 대

4) 프란치스코 교종,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 271항.

5) “사목적 나태”를 언급한 「복음의 기쁨」 83항 참조.

조를 이루는 ‘깨어 지킴(keeping watch)’의 심오한 성격이다. 감시, 감독은 교의와 관습의 보호에 가까운 반면, 깨어 지킨다는 것은 신자들의 가슴속에 소금과 빛이 살아있도록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깨어 있다 함은 임박한 위험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깨어 지킨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그 과정을 인내롭게, 지속적으로 함께함을 말한다. 깨어 있다 함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며 예리하고 재빠르면 된다. 반면 깨어 지킨다 함은 온유와 인내 그리고 애덕을 통해 증명이 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감시하고 깨어 있는 것은 일종의 통제에 관한 것이지만 ‘깨어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 즉 당신 자녀들이 회심하는 과정을 깨어 지켜보는 자비로운 아버지 하느님의 희망을 말해 준다. 깨어 지키는 태도는 주교의 ‘파레시아(parresia(담대함))’를 드러내고 공고히 하며, 이 파레시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계약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며 그 여정을 깨어 지켜보시는 야훼의 이미지와 함께, 더 친근한, 그렇지만 똑같이 힘 있는 이미지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성 요셉의 이미지이다. 성 요셉은 꿈속에서도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시는 분이다. 성 요셉의 이 깊은 깨어 지켜봄에서부터 그의 작은 무리를 소박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는 고요한 장면이 탄생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깨어 있고 기민한 관조가 싹튼다.”⁶⁾ 프란치스코 교종은 종종 잠자는 요셉 성상에 자신의 기도 지향을 쪽지에 적어 요셉 성인이 그것들을 꿈속에서 살피도록 맡긴다고 한다. 이 잠자는 요셉 성인의 이미지는 자기 백성을 살피며 지키는 목자인 주교들의 모습이라 하겠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품는 주교

밑으로든 위로든 모두를 향하여. 프란치스코 교종은 교종으로 선출된 직후, 황태자가 아니라 목자로서의 두 가지 단순한 움직임으로, 하느님 백성 안에 새로운 영적 역동을 불러일으키며 교회의 전통과 바티칸 공의회 전통 안에 자리를 잡

6) J. M. 베르골료, “응집한 무리를 깨어 지키다”, 주교에 관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발언, 「로세르바 토레 로마노」, 로마, 2001.10.4.; J. M. 베르골료,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희망이』, 35 참조.

았다.

공의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비우고” 파견되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처럼 교회도 같은 길을 따르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주고 또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습을” 알아본다.(교회 헌장, 8항)

교종이 하느님 백성의 강복을 받기 위해 머리를 숙였을 때, 그리고 교종 전용차에 올라타 성 베드로 광장의 전체를 돌 때마다, 또는 방문할 곳으로 분쟁 지역을 택할 때마다, 그의 행보는 우리로 하여금 주교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단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게 한다. 다른 주교나 교종들을 끌어내리려는 모습이 아니라 정답고 가깝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선출되고 이를 뒤에 ‘그의 사제들’인 추기경들에게 요구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성령의 조화”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의 태도이다.⁷⁾

그의 제스처뿐 아니라 그의 교의에도, 영적 세속화와 반대되는 자기 낮춤과 포용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것들은 프란치스코 교종이 “최초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언급함으로써 요구한 바이다. “이렇게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인간적인 힘이 필요하겠지만, 현세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범으로도 비움과 버림을 널리 전하도록 세워진 것이다.”(교회 헌장, 8항)

여론이나 미디어에서는 고위성직자가 황태자 같은 태도를 보일 때 엄중하게 판단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이를 품는 사제나 주교 등 사목자들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것도 사실이다. 하느님 백성은 교회의 사목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심을 느낀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목자가 더는 없거나, 부족하거나 혹은 주님의 자비가 좋은 목자들을 배출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선한 양들이 있다면 선한 목자도 반드시 있습니다.

7) 프란치스코 교종, 추기경들의 알현, 2013.3.15. 참조.

선한 양들이 선한 목자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들은 전부 한 분의 선하신 목자 안에서 결합합니다. 그들은 일치를 이룹니다. 그들이 양들을 돌보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친구들은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신앙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⁸⁾

2014년 주교성과의 회견에서 연설을 마무리하며 프란치스코 교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어디서 그런 사람들[복음을 선포하는 주교들, 열심히 기도하는 이들, 사목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선택됩니까? [...] 주님께서 당신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니 당연히 그런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찾으려 들판으로 나가지 않은 것은 도리어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1사무 16,11)라고 한 사무엘의 경고가 우리에게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한 조바심을 주교성이 실제 살았으면 하고 바랍니다.”⁹⁾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주교들

오늘날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성화하고 지도하고 기르는 데 사용하시는 주교의 특징을 교종은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탈리아 주교회의의 주교들에게 그 특징을 상기시켰다. 주교의 영성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교회의 목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교회는 무엇보다 부활하신 분의 공동체이다.”¹⁰⁾ 교종은 그보다 몇 달 전 주교성과의 회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주교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기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¹¹⁾

바로 여기에 교종이 가리킨 “증거자로서의 주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

8)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46, XXX, in Id., Sul sacerdozio, Rome-Milan, La Civiltà Cattolica-Corriere della Sera, 2014, 168.

9) 프란치스코 교종, 주교성과의 회견에서 한 연설, 2014.2.27. www.vatican.va.

10) 프란치스코 교종, 제66차 이탈리아 주교회의의 총회 연설, 2014.4.14.

11) 프란치스코 교종, 주교성 회견 연설, 4항.

는 “그는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을 오늘날과 유의미하게 관련지를 줄 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는] 고립된 증인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¹²⁾ 이탈리아 주교회의 총회에서, 교종은 “주교들이 주님의 지체인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¹³⁾

이러한 특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종에게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주교가 교종의 스타일을 닮을 필요는 없다. 그 반대이다. 교종은 은사의 다양성을 선호한다.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는 목자로서의 규격화된 모델 같은 것은 없다. 그리스도는 각각의 교회가 처한 필요에 응답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 임무라는 면에서 주교들의 특수성을 아신다. 우리의 도전은 특정 교회가 지닌 특수성을 보면서도 그리스도가 보는 그 관점에 시선을 두는 것이다.”¹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의미 있기 위해서는 각자가 고유하고 양도할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어야 하지만, 그 자신의 증언이 다른 이들의 증언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것이다.

본질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프란치스코 교종이 제일 먼저 주교들에게 말한 바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르비 옛 오르비(Urbi et Orbi)’라고 하는 로마와 전 세계에 전하는 말씀과 축복에서, 그는 주교와 관련하여 네 번이나 기본에 대해 언급한다. 교종 선출 기간 콘클라베의 임무는 로마 교회의 주교를 내는 것이다.”라든지, 자신에게 보여준 환대에 대하여 로마 교구 공동체에 감사를 하며 “로마는 자신의 주교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또 그 공동체에, 우리의 명예 주교인 베네딕토 16세에 대해 기도해 달라고 청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여정에 빚대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주교와 백성으로서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주교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청하며 백성들의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¹⁵⁾

교종은 추기경들과 함께한 미사 강론에서 “목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

12) 프란치스코 교종, 주교성 회견 연설, 4항.

13) 프란치스코 교종, 제66차 이탈리아 주교회의 총회 연설.

14) 프란치스코 교종, 주교성 회견 연설, 1항.

15) 프란치스코 교종, 첫 교종 강복 ‘우르비 옛 오르비’, 2013.3.13.

도의 제자들”이라 말하며 주교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리가 만일 십자가 없이 길을 가고, 십자가 없이 집을 지으며, 또한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우리는 단지 주교, 사제, 추기경이나 교종일 뿐 주님의 제자들은 아니다.”¹⁶⁾ 공의회 교회 현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선포하며 세상의 박해와 주님의 위로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아간다.” (1코린 11,26) (교회 현장, 8항; 교회 현장 3.5.42항 참조)

이와 똑같이 중요한 것은, 프란치스코 교종이 추기경들을 알현하는 가운데 전 교종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법이었다. “베네딕토 교종은 베드로를 잇는 사도직을 전적인 헌신으로 수행했는데, 늘 성체 안에 현존하고 살아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시신을 고정하고 현명하고 겸손하게 해석한 분이다.”¹⁷⁾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품으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 주님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움직임으로써 교종은 주교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구상하고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초대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교: 다른 이들을 축성을 하기 위해 축성 받은 자

로마의 주교로서 집전한 첫 성유 축성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근본적으로 주교들의 삶에 따르는 긴장을 사는 사목자들에 대해 성찰한 바를 나누며, 주교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기름을 부어 주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한다. 공의회는 “주님이 그의 백성인 양떼에게 투신한 그 의무는 참된 봉사이다. 성서에는 이를 디아코니아, 직무라는 중요한 호칭으로 부른다.(교회 현장, 24항) “훌륭한 사제는 그의 백성이 어떻게 축성되느냐에 따라 알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된다.”¹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은 주교들이 하느님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교종은 자신만이 그 정신을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고, 다른 주교, 사제, 평신도들과 함께 그 정신을 살고 있다고 말

16) 프란치스코 교종, ‘프로 에클레시아’ 미사 강론, 2013.3.14.

17) 프란치스코 교종, 추기경들의 알현.

18) 프란치스코 교종, 성유 축성 미사 강론, 2013.3.2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 (Christus Dominus) 12, 15, 16항 참조.

했다. 이들은 그와 함께 선교의 제자로 선교를 기쁘게 수행하는 것이다.¹⁹⁾

축성의 관계적인 성격과 역동은, 프란치스코 교종이 첫 번 강론 때 하신 단순한 마디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즉 교종은 주교와 하느님 백성은 함께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 안에서 “거룩한 분에 의해 도유를 받은 것처럼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전체 신자 공동체는 신앙을 드러내는 일에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성령께 도유를 받는 신자 전체는(1요한 2,20,27 참조)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에,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증개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교회 헌장, 12항)

이렇게 함께 걸은 여정이 “시노드”이며 그 말 안에는 바티칸 공의회와 시노드 정신이 숨쉬고 있다. “초세기 교회부터 주교, 사제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공동선과 개별 교회의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내어 놓았다. 따라서 지역 공의회와 전체 공의회인 시노드가 생긴 것이다. 거룩한 보편 공의회는 시노드와 공의회라고 하는 공경할 만한 제도가 신선한 활력을 가지고 커져 나가기를 갈망한다. (CD 36)

프란치스코 교종과 베네딕토 교종 사이의 연계성에 관해 말하자면, 베네딕토 교종이 2009년 아르헨티나 주교들에게 말한 바 안에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그때 베네딕토 교종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같은 목자가 되게 하는 “사제를 축성하는 성유”에 관해 언급하였다. 그 때 전임 교종은 주교, 사제들에게 그들 각자는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온유와 자비로²⁰⁾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사람으로 신자들 가운데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교회 헌장, 27항 참조)고 말했다. 이 주교상에 대해 베네딕토 교종이 아르헨티나 주교들에게 제시한 바를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러한 역사의 시점에 그것을 더 충실되게 살도록 주교들에게 같은 말을 한다.

주교의 사목자 이미지

19) “더 나아가 영혼들을 보살피는 사목 활동은 언제나 선교 정신으로 이루어져 마땅히 본당 사목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한다.”(「주님이신 그리스도」, 30항)

20) 베네딕토 16세,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 방문 시 연설, 2009.4.30., 2항.

“양떼의 냄새가 나는 목자”라는 사목적인 전체 분위기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에 따르는 주교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종이 독창적으로 말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교종이 제시하는 다른 이미지들 모두를 엮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서 양떼의 냄새가 나고 아버지의 미소를 진 목자의 이미지는²¹⁾ 이것이 마치 하나의 큰 “별—목자”인 것처럼, 다른 이미지들을 하나의 별자리 안으로 함께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목자라는 관점이 어떤 면에서 주교상을 말하는데 열쇠가 되는가? 2009년 베르골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의회나 아빠레시다 남미 주교회의에 나타난 언어에는 ‘사목적’이란 개념이 ‘교의적’이라는 말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목적이라 함은 단지 ‘신학에 대한 실제적, 우발적인 적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계시 그 자체나 모든 신학은 사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 세상의 생명을 위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크리스피노 발렌치아노가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사목적인 것을 교의적인 것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교의로부터 원래 있었던 사목적인 입장을 없애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의심이나 혼란 없이 신학이 추종하고 있는 “인간학적인 루트”는 ‘사목적’ 교의와 평행으로 가고 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우리와 본성을 나누어 가지시고, 자신의 양들 하나하나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시와 구원을 받았다.”²²⁾

베르골료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한다. “교의와 사목이라는 통합된 개념은 사제 양성이라는 교령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영구적인 교의가 담긴 ‘헌장’이라 불리는 문서가 탄생했는데, 헌장은 『교회헌장』과 같이 교의적인 문서이기도 하고, 『사목헌장』과 같이 사목적인 문서이기도 하다.)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에는 이 통합된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이 교령은 영혼들을 돌보는 사목자들을

21) 프란치스코 교종, 성유 축성 미사 강론, 2015.4.2. 요한 바오로 2세도 비슷하게 표현한 바 있다. “나는 교종 루치아니의 위안을 주는 미소를 생각합니다. 그 미소로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강론, 2003.9.27.)

22) C. 발렌치아노, 『양들을 돌봄』, Magnano (Bi), Qiqajon, 1994, 16. 베르골료 추기경, “학술적 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교황청 라틴 아메리카 위원회 총회 발표문(2009.2.18)에서 재인용

양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데, 목자들은 한 분이신 선하고 아름다운 목자와 일치하여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강요를 통해서가 아니라 매력을 통해서 이끈다는 의미) 양들을 돌보는 사람인 것이다.²³⁾ 실제로 착한 목자의 이미지는 모든 양성 가운데 으뜸이 되는 덕이다.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목적인 목적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바티칸 공의회나 남미 주교회의의 문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목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양성의 다른 측면과 대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사랑은 모든 덕의 형상이다.’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을 인용하며 말했듯이, 선한 목자의 사랑 안에 모두가 포함된다.²⁴⁾

프란치스코 교종이 교회와 주교들의 삼중 사명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베네딕토 16세 교종의 생각을 인용하는데, 전임 교종은 새로운 강조점을 두며 다음과 같이 목자의 삼중의 책무에 대해 말했다. “교회의 가장 깊은 본성은 그 세 가지 책무 안에 표현되어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선포-순교’), 성사를 거행하며(‘전례’) 자비의 일을 실천하는 것(‘봉사’)이 그것이다. 이 의무들은 하나하나 서로를 전제로 하며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²⁵⁾ 베네딕토 교종이 이런 가르침을 말할 때 ‘선포-순교(케리그마-마르티리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프란치스코 교종도 말씀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분의 증인으로서 주교들을 말할 때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베네딕토 교종이 지도, 안내하는 사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랑에 찬 봉사, 즉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프란치스코 교종도 그것을 우선으로 둔다.²⁶⁾ ‘디아코니아’의 이런 측면은 다른 두 요소만큼이나 본질적이다. 베네딕토 교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에 대해 말하자면, 자선은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넘길

23) 베르골료, “학술적 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24) 베르골료, “학술적 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여기서 인용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래 문장은 “Ambrosius dicit, quod caritas est forma et mater virtutum.”(Aquinas, *De virtutibus*, 2, 3, sed contra)이다.

25)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005.12.25., 25항. 「주님이신 그리스도」 11.30항 참조; 교회현장, 7항.

26)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적입니다. 바로 이 본성에서 이웃을 향한 실질적인 사랑, 이해하고 돕고 격려하는 공감이 솟아납니다.”(「복음의 기쁨」, 179항)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복지 활동이 아니라 교회 본성의 일부이며, 교회의 존재를 표현하는데 불가결의 요소이다.”²⁷⁾ 베네딕토 교종이 교서를 쓰는 데에 있어 식별의 기준은 세상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해에 근거한다. 그리고 사랑은 “양들의 냄새”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양들의 냄새를 풍기며 아버지의 미소를 지닌 목자

프란치스코 교종은 “죄책감”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을 포함하여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인 목자들”임을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에 관해 말하는 그의 가장 전형적인 문구인 이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문구이다. 그런데 죄인이란 개념은 윤리적으로 속박한다기보다 저항할 수 없이 매력적이고 심미적인 어떤 것이다. 그 유명한 표현인 “양들의 냄새를 풍기고,” “아버지의 미소”를 지닌 목자에 대해 성 목요일에 부연하여 말했다.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종이 마음에 품고 있는 주교들에게 바라는 모습인 것이다. 주교뿐 아니라 사제, 추기경, 그리고 교종인 자신에게도 해당된다. 목자가 양들의 가죽만 입고 있기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열정적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다.²⁹⁾

우리는 여기에서 주교의 모습 이상으로, 향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강한 냄새는 여러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말 없이’³⁰⁾ 입혀져야 하는데 주교들에게는 양들의 냄새가 나야 하며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인 것이다.

“양떼의 냄새를 풍기는 목자”의 모습과 함께 착한 목자의 비유는 자주 듣는 해도 그다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데, 이 비유는 신선한 미풍과 같은 힘을 가지고 이념적인 몽상이나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깨어나게 촉구하며,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목자는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양들의

27)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

28) 프란치스코 교종, 강론, 2014.1.31.

29) D. Fares, “*Pasci il mio gregge*”, in Agostino, s., *Sul sacerdozio*, cit., VI. 참조.

30) 「복음의 기쁨」, 271항.

냄새에 자신을 흠뻑 적신다. 이 냄새는 실험실에서 만들어 낼 수가 없으며 또한 목자는 풀을 뜯고 있는 양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냄새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 양들 중 하나인 자신의 냄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돌보는 백성은 그 자신이 그곳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양떼의 냄새”는 베르골료 추기경의 기름 부음과 관련한 주제인,³¹⁾ 견실한 교의로 양들을 돌보고, 안전하게 지키고, 식별하는 것, 적으로부터 보호하게 하는 것들과 연결시켜 준다. 양의 겂옷을 두르고 있어도 “이리의 냄새”를 감출 수 없듯이 그렇게 양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면에서, 냄새라는 영적인 의미는 주교들로 하여금 영성적으로 세속화되고 현학적인 향수를 뿌리는 것의 진실을 파헤치고 유혹을 뿌리치도록 해 주는데, 양떼의 냄새는 주교들에게 감별을 할 수 있는 “후각”적인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그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배출한 바로 그 양떼 안에 머무르게 하고 양들이 그를 알아보게 한다.

자기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주교들

프란치스코 교종의 생각에 목자의 개인 기도와 전례적인 기도는, 기름 바름과 같이,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퍼져나가 변방에 다다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마치 아론의 수염에서 그 옷자락까지 기름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³²⁾

따라서 교종이 위에서 언급한 사목자의 기도는 항상 사람들의 얼굴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지친다면 그것은 하늘로 조용히 오르는 유향과 같아서 [...] 아버지의 마음에 직접 가 닿는다.”³³⁾고 하며 프란치스코 교종은 최근 성유 축성 미사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 기도는 사제들을 안으시는 하느님의 포옹과 같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기도하는 주교의 이미지는 그가 자신의 시간을 그의 백성에 대한 봉사를 하는데

31) 프란치스코 교종, 성유 축성 미사 강론, 2013.3.28. 참조.

32)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고 즐기게 수행하는 사제들은 그 고유한 방법으로 성덕을 추구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 (Presbyterorum Ordinis), 13항)

33) 프란치스코 교종, 성유 축성 미사 강론, 2015.4.2.; 「주님이신 그리스도」, 27항 참조.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하느님 중심으로 사는지를 보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³⁴⁾ 이 이미지는 주교들이 하느님과, 자신의 성화와 개인 기도에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같은 말씀을 설교하는 데에 기울이는 데에 드는 같은 인내와 진솔함을 가져야만 한다.”³⁵⁾

이것이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이 12년 전에 그의 교황 교서 「나는 당신들에게 목자를 보냅니다」(*Pastores dabo vobis*)에서 사목자들에게 촉구한 구체적 사목 행동들을 풀어 주는 영성이다.³⁶⁾ 요한 바오로 교종은 “오늘날 교구 사제들의 영성”에 관해 이미 주어졌던 강론들을 찾아보았던 것이다. 그는 본당 사제의 (주교는 더더군다나) “사목적 존재 이유”에 대해 다음의 말씀을 상기시킨다. 즉 사제가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는 자신을 사목적인 삶의 합당한 표상이 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사목이라 함은 바로 같은 공동체의 대인 관계라는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⁷⁾

교황 교서 「당신들에게 목자를 보냅니다」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모범적인 주교의 모습으로 제시한 성 가롤로 보로메오는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의 영성을 좋아하였다. 『영신수련』은 사목자들에게 베드로 파브르 성인이 의도했던 바와 같이 관찰과 활동을 통합할 필요에 대해 제안한다. 파브르 성인은, “훌륭한 일 안에서 하느님을 영신적으로 찾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좋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해도, 더 잘 영신적으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³⁸⁾라고 하며 활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성인은 이러한 권고를 했다. “무엇보다 당신들이 하는 좋은 일이라는 보물을 향해 기도가 가도록 명령한다면, 그 반대인 것보다 더 나올 것입니다.”³⁹⁾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본 다음 주님이 바

34) “하느님을 중심에 모실 때만이 우리는 세상의 변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 예수 성당에서의 강론, 2014.1.3.) 이 강론에서 교종은 성 베드로 파브르의 예를 들며,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시기”를 바라는 성인의 열망을 언급하였다.(P. Favre, *Memorie spirituali*, Roma-Milano, La Civiltà Cattolica - Corriera della Sera, 2014, 68 참조).

35) 프란치스코 교종, 주교성 회견 연설, 상동, 7항.

36)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권고 「나는 당신들에게 목자를 보냅니다」(*Pastores dabo vobis*), 1992.3.25.

37) 요한 바오로 2세, 강론, 1980.11.4.

38) P. Favre, *Memorie spirituali*, 위의 책, 126-127항 참조.

39) 같은 곳.

라시는 대로 우리의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은혜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보로메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교회의 사람들에게, 모든 활동에 앞서고, 함께하고, 뒤따르는 묵상과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노래 부르며 묵상하리라(시편 100,1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성사를 거행하려면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묵상 하시오. 미사성제를 거행하려면 봉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성가대에서 시편을 노래하려면 누구에게 무엇에 관해 말씀드리시기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영혼들을 안내하려면 누구의 피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해지도록 하시오. (1 코린 16,14).”⁴⁰⁾

따라서 프란치스코 교종이 끊임없이 말하는 자신을 초월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하느님과 성인들, 기도 안에서이며, 둘째는 이웃과, 하느님 백성을 향한 것이다. 그는 멕시코 주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주교가 하느님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초월함은 자기 백성들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⁴¹⁾

따라서 양들의 냄새는 실제 양의 냄새뿐 아니라 이미 하늘의 주님 목장에 있는 사람들의 냄새이기도 하다. 이 냄새는 기도 안에서 또 성인의 삶을 읽음으로써, 하늘의 성인들과 가까이 함으로서 나는 거룩한 양들의 기본 좋은 향기이다. 교종이 마음에 두고 있는 주교의 모습에는, 성인들의 표양, 특히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끈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의 모습이 기본이 된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소위 말하는 “동일한 방법론”으로 시성하고 있는 성인들은 “위대한 복음전파자이고, 복음의 기쁨에 깔린 영성과 신학과 조화를 이루는 인물들이다. 바로 위와 같은 이유로, 나는 이러한 사례들을 선택했다.”⁴²⁾ 그들은 복음을 토착화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그 문화

40) 요한 바오로 2세, 「나는 당신들에게 목자를 보냅니다」, 72항; Charles Borromeo, s., *Acta Ecclesiae Mediolanensis*, Milan, 1559, 1178 참조.

41) 프란치스코 교종, 사도좌 정기 방문 중인 멕시코 주교단에게 행한 연설, 2015.5.19.

42) 프란치스코 교종, 마닐라행 비행기에서의 기자회견, 2015.1.15.

에 토착화시켰던 사람들로 자기 백성에게 사랑받은 복음 전파자들인 것이다.

복음을 토착화하고자 하는 갈망은 복음 전파자이자 사목자인 주교의 기도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베르골료는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성인들에게 기도했던 주교였는데 유년 시절부터 그에게 성인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 행렬에 그를 데리고 다니셨던 할머니 로사의 영향으로 대중 신심을 친숙하게 여겨 왔다.⁴³⁾

교종이 주교들에게 제시하는 바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주교들의 초월의 모습은, 신자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모습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교종은 하느님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주교들을 바라는데, 그들의 기도는 영성과 민중적인 신비주의의 향기를 지닌 기도인 것이다.

“종말론적인 향기”를 지닌 주교들

양떼의 냄새를 풍기는 목자의 모습은 상징적인 것이다. 과르디니가 큰 힘을 불러일으키는 “원초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라도 묘사한 이미지이다.⁴⁴⁾ 이 이미지는 하나의 스테레오 타입이 될 정도로 인용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짧은 신학적 성찰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이미지는 하나의 초안이며 프란치스코 교종의 신학적, 인간학적, 존재론적 차원을 지닌 밀도 있는 언어로 들어가기 위한 초대인 것이다.

우선 교종이 사용한 이 비유에 적절한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이런 언어가 교종의 발언으로 거칠게 느껴지고, 심지어 신학적 내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이 비유는 매우 특별하며,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지식인들은 그분을 “좋아하지” 않지만 민중은 그를 “이해한다”. 어떤 사람은 민중의 마음을 건드리려고 하는 교종의 갈망은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에 불과하지 않으냐고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참된 믿음의 계시는 교육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겸손한 이들에게 안다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

43) “매우 어린 시절부터 저는 대중신심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J. Camara - S. Pfaffen, *Aquel Francisco*, Cordoba, Raiz de Dos, 2014, 31 이하).

44) R.Guardini, *L'opera d'arte*, Brescia, Morcelliana, 1998, 21.

는 선물이 주어진 것이다. (마태 11,25-27; 요한 2,26-27)

교종의 비유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봐야 한다. 오늘날 언어의 홍수 속에서 그 이미지들은 목자의 휘파람과 같은 것이다. 양들은 그 소리를 잘 알고 거기에 따라 길을 인도받는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언어는 남미의 언어로서 독창적일 뿐 아니라, 분명하고 진실되며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불러일으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비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뛰어난 지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⁴⁵⁾

우리가 양떼의 냄새를 풍기는 목자라는 이미지를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묵상하고,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같이 인간 속성을 삼위 중의 한 분의 속성으로 연결시킨 교부들의 전통을 자유로이 따른다면, 양들의 냄새는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적인 향기이며, 육화와 수난의 냄새이며 속박과 피의 냄새이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었고 군중에 둘러 싸여 있었던 분의 땀의 냄새이다. 또한 발을 씻어 준 냄새이며 라자로의 봉대에서 나는 코를 찌르는 냄새이다. 이 냄새는 또한 여성스런 향기이기도 한데, 집을 가득 채웠던 마리아의 향유, 들판에서 바람에 실려 오는 백합의 향기이며, 베드로에게 배를 저으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의 그 호수의 냄새이기도 하다.

요한 바오로 2세의 다음 말씀은 이를 확인해 준다. “깊이 있게 숙고된 사목의 그리스도론적 차원은 그 사목의 삼위일체론적인 기초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그리스도의 삶은 삼위일체적이었다. 그는 성부의 영원한 외아들이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으로 보내졌다. 성부와 함께 교회에 성령을 보낸다. 이 삼위일체론적 차원은 그리스도의 삶과 활동의 모든 측면에 드러나는데 주교들의 삶과 활동의 모습을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 시노드 주교들은 분명하게 주교들의 삶과 활동을 삼위일체론적 교회론의 빛 안에서 설명했는데 이는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에도 담겨있다.”⁴⁶⁾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인간학에 빛을 주며, 출발점으로 삼은

45)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1459a 5f.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를 만드는 것은 “전달할 수 없는 재능”이지만 모든 사람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46)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양 떼의 목자」(Pastores gregis), 2003.10.16., 7항.

그의 선택을 아름답고 참되고 선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는 바로 교의론적인 정의에 관한 담론과 비실용적인 도덕적 권고에 절어 있는 오늘날 양떼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바에 대한 식별이다.

아름다운 것과 함께 공정함, 선함도 함께 들어가는데 이 각자는 진리를 진정으로 갈망하게 된다. 이것이 목자의 교육방법론이다. 이것이 만일 철학적 용어로 된 생각이라면, 양들의 냄새는 공정함과 관계가 된다. 목자에게 양떼의 냄새가 불쾌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명백한 그리스도교적 공정함으로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영광이 과장 없이, 다른 형태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종의 네 가지 원리를 마음에 두고 이것들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양떼의 냄새라는 후각적인 이미지는 최고의 원칙에 해당한다. 양떼들의 냄새는 기름 바르는 성유의 냄새이며, 이는 “거룩하고 믿음에 있어 오류가 없는”(『복음의 기쁨』, 119항) 하느님 백성의 전체성을 가리킨다. 강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맵고, 음식이 상했을 때 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상쾌한 향수와 같이 강한 이끌림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냄새는 “목자가 양들과 가까이 있음”으로 경험하게 된다. 모두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하지만 특별히 병들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원리가 있다. 그 두 가지 원리는 오직 가까이 있음으로만 세워진다. 하나는 일치의 원리인데 이는 대립보다 우월하며 (왜냐하면 대립의 바로 그 성격은 분리하고 대조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의 원리인데, 이는 이상보다 우위에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에 뛰어 들어 열린 상처에 손을 대고 이웃의 일을 외면하지 않을 때에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양들과 함께 길을 가는 목자의 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밖으로 나가는 교회의 이미지, 즉 “교회의 모든 사목에 대한 패러다임”(『복음의 기쁨』, 15.17.20항 참조)의 변화가 떠오르고,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시간은 공간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길은 스스로를 대립에 의해 막혀 버리게 허용하지 않고 또 공간들을 장악하지 않으며 거슬러 가거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

다. 복음의 기쁨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공간을 소유하기보다 어떤 과정을 시작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한다. (「복음의 기쁨」, 223항)

향해사인 주교가 아니라 친교의 사람인 주교

교종은 주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 수업을 하듯이 하지 않는다. 교종이 사목자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가 한쪽 귀로는 복음에 그리고 다른 쪽은 신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있음에 주목한다(「복음의 기쁨」, 154항). 그의 말, 멈춤, 그의 표양들, 미소와 제스처 등을 통하여, 우리는 주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하고 통일된 이미지를 본다. 즉 주교는 예수님의 사랑에 중심을 두고 자신의 백성과 하나 되어 사는 친교의 사람인 것이다.

이것이 2014년 5월에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행한 연설의 중심이 되는 주제이다. 그 때 프란치스코 교종은 하나의 중요한 제스처를 보여 주었는데, 바로 바오로 6세가 1964년 같은 주교회의의 주교들에게 “정신과 하는 일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는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쇠신된 일치정신”을 촉구한 말씀을 선물로 주었다.⁴⁷⁾ 이 일치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되며, 주교들로 하여금 “교회의 목자”가 되게 하며, “진실과 자비”라는 웅변적인 제스처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약속”이 되는 것이다.⁴⁸⁾

세상에 희망을 주는 친교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오늘날 로마의 주교이며 “모든 교회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교종에 의해 마지막으로 제시되는 주교의 모습이다.⁴⁹⁾

교종이 이탈리아 주교들에게 2015년 5월 18일에 말한 바와 같이 친교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교회적인 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친교는 향해사처럼 길을 이끄는 주교가 아니라 목자처럼 그의 양들과 함께 하는 주교들을 통한 성령의 일이다. 주교들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을 떠맡고자 하는 평신도들의 필수불가결한 역

47) 프란치스코 교종, 이탈리아 주교회의의 제66차 총회에서 행한 연설.

48) 위의 연설.

49) 프란치스코 교종, 첫 교종 강복, 「우르비 엿 오르비」

할을” 강화시킨다. 주교들이 가진 교회적인 감수성은 “주교들 간의 일치와, 사제들과 주교와의 친교로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물질적이나 성소에서 빈부차가 있는 교구들 간에, 그리고 중심부와 변방 간의 친교에 의해, 또 각 나라의 주교회의와 베드로의 후계자 사이의 친교”를 통해 드러난다.⁵⁰⁾

50) 프란치스코 교종, 이탈리아 주교회의의 제66차 총회에서 행한 연설.

루이 르브레

교황 회칙 「민족들의 발전」의 멘토가 남긴 유산

LOUIS LEBRET,

L'EREDITÀ DEL MENTORE DELLA «POPULORUM PROGRESSIO»¹⁾

페르난도 데라이글레시아 비기리스티 신부(예수회,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

이근상 시몬 신부(예수회) 옮김

1966년 7월 20일 루이 르브레 신부가 선종하였다. 프랑스 도미니코회원인 그는 자기 고향과 조국,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이 겪는 사회 문제, 특별히 남미와 아프리카가 겪는 사회 문제를 전 생애에 걸쳐 씀 없이 걸머졌다. 그는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의 사회교리 발전을 이끌었다. 그는 교황 회칙 「민족들의 발전」의²⁾ 작성에 도움을 준 위대한 지성적 멘토였다. 1967년 이 회칙을 발표한 교종 바오로 6세는 루이 신부를 존경하고, 예찬하였다.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그가 남긴 유산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의 삶과 활동과 영성을 간추리며, 이 글을 그에게 바친다.

* * * * *

2016년 7월 20일은 루이 르브레 신부의 서거 50주년이다. 브르타뉴 출신의 이 도미니코회원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회칙 「민족들의 발전」의 위대한 멘토가 주목을 받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그의 삶과 사상, 영성을 살펴보고 그가 남긴 유산의 가치를 음미해 볼 것이다.

1) *La Civiltà Cattolica* 2016 III 313-325 | 3987-3988 (1 agosto 2016)

2) 교종 바오로 6세의 사회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3.26)은 교종이 1960년대 초 남미와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그들 대륙이 겪고 있는 심한 곤경을 직접 보고”(4항) 발표한 회칙이다. 회칙은 식민주의(7항), 신식민주의(52항), 불공정한 국제 통상 관계(56-58항)를 통해, 후진국의 가난이 내부에서가 아니라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라는 사실을 천명했다. 세계화의 근본적, 구조적 문제를 반세기를 앞서 지적인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 회칙이다.—역자주

생애

루이 르브레는 1897년 6월 26일, 프랑스 브르타뉴의 생말로 Saint-Malo 근처 미니이크쉬르랑스 Minihic-sur-Rance 마을, 바다에서 일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해군 조선소의 선임 조선 목공이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1917년 제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이미 어뢰정의 선장 보좌관이 되었다. 1920년에는 브레스트 사관학교의 해군 장교 교육관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베이루트로 파견돼 거기서 항구 운수 책임을 맡았다. 23세에 명예 기사 칭호를 받았고 중위로 진급했다. 보다시피 그는 이른 나이에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는데, 그의 적극적인 성격을 잘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성직자가 되려는 마음은 루이 르브레가 해군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결국 해군 장교로서의 탁월한 경력을 버리고, 그는 도미니코회원이 되었다. 그는 앙제 Angers에서 수련을 마치고 네덜란드의 레이콜트 Rijkholt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학업의 마지막 해를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을 위해 고향 근처 생말로의 한 공동체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가 바닷가 근처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다. 거기서 그는 전에는 몰랐던, 그러나 그에게 아주 밀접한 삶의 현실을 만난다. 그것은 거의 극빈에 가까운 가난과 기본적인 인간 존엄이 박탈된 그 지역 어부들의 삶이었다. 그들에게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교 해양 청년회 Christian Maritime Youth를 만들어 보았지만, 얼마 안 되어 이런 노력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나중에, 에르네스트 라모르 Ernest Lamort와 함께 프랑스 선원 노조 연합 the French Federation of Professional Seamen Unions을 창설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또한 1932년부터 1939년까지 노조신문 「벳사람의 목소리 La Voix du Marin」를 발행했다. 십여 년 동안 그는 모든 노력과 힘을 바다에서 일하는 이들과 이와 연관된 이들을 위해 쏟아 부었다. 그의 활동은 두 갈래에서 펼쳐졌는데, 첫째, 법 개정을 위해서 유관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둘째, 바다에서 일하는 이들과 직접 함께 활동하는 것이었다.

생말로에서 활동했던 시기는 르브레 신부의 삶에서 무척 중요하다. 거기에서 그의 향후의 모든 활동 양식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그가 전 생애에 걸쳐 추진한 모든 일의 바탕과 핵심에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항상 복음적 자비였다는 점

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모든 활동을 설명해 주며 그의 모든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로 꿰 수 있는 틀이다. 사회학, 경제학, 경제개발은, 처참한 곤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빼면 그에게 의미 없는 개념이다. 그는 사람들이 곤경에서 벗어나 스스로 존엄을 지키며 진보해 나가기를 갈망할 뿐이었다.

르브레 신부에게 사랑이란 온정주의paternalism나 구호alms-giving에 갇힌 것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불의한 세상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애처로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들과 하나의 운명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누구라도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자 투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투쟁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비참함을 없애기 위한 이 위대한 사업에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에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로써 활동가는 하느님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활동가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하나됨의 현상이며, 자신이 녹아 들어가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그의 고향 땅에서 루이 신부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수행하게 될 하나의 방법을 실천한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탐사investigation의 방법이다. 그는 모든 주장이 사실facts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말했다. 그가 보기에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관찰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착수할 것인가가 결정되었다.

성 도미니코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후예로서, 그는 교육받은 자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확고한 근거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유명한 연구 회합들은 생말로에서 시작하였다. 거기서 그는 사회 현상의 원인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악의 뿌리를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루이 신부는 교육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에게 평신도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었고, 자연스러웠다. 에르네스트 라모르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세상의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가 자리한 세상의 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해결책들이 근거를 가져야 하

기에, 그는 사회학적 연구 조사, 통계 분석, 그리고 단호한 전략과 전술을 가능케 한 경제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가 이끌었던 잡지 「뱃사람의 목소리」에서 그의 이런 노력들을 볼 수 있다.

극심한 경제 위기 동안 모든 산업과 직업군이 영향을 받았지만, 특별히 해양 관련 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었다. 프랑스 어부의 60%가 살던 브르타뉴 지역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시기가 있었다. 아주 극소수의 어부들만이 합당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벌었다. 르브레 신부가 주축이 되어서 어촌을 돌며 진행한 연구들이 그의 잡지에 발표되었고, 혹독한 상황을 알렸다.

그것은 전체 8만 5천 명 어부 중에 단 3만 명에게만 일감이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5만 5천 명은 일을 찾아 어딘가로 떠나야만 했다. 르브레 신부는 이런 상황을 프랑스가 용인해도 되는 것인지 물었다. 그리고 그는 이 많은 실업자들이 공공 부문과 산업 단지의 공장에서 일거리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질문하였다. 재난을 그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정부가 긴급하게 재정 지원을 하고 각 가정에는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양 관련 단위들이 굳건한 노조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었다. 브르타뉴 지방의 어업 행정을 돕기 위해서였다.

이런 환경에서 루이 신부는 보호 무역주의 정책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따르려고 하던 방임주의 정책들의 사회적 결과가 두려웠다. 그는 프랑스 선원들이 당시의 포르투갈 선원들처럼 비참한 처우를 받게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노동자들끼리 경쟁해서 다 같이 빈곤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그의 땅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폭풍우를 견디려면,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수단들이 필요했다.

르브레 신부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활동해 나갔다. 그의 동료인 에르네스트 라모르가 그 노동조합의 핵심멤버였다. 어업과 관련한 다양한 직종들이 함께 만든 여러 위원회들은 훗날 그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가장 자연스러운 조직이라고 부를 만큼 효과적이었다. 데이터에 확고하게 근거한 노조 활동으로 그가 목표한 것은 오로지 사람들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브르타뉴 해변이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이미 루이 신부는 생말로에서 시작한 사업을 확대하고 심화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현장 활동가들은 자기들대로 책임감 있게 자기 성찰을 깊이 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는 현장 조사와 이론 연구를 위해서 연구 센터를 세울 마음을 먹었다. 그는 경제학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통합하려고 했다. 1941년 9월 24일, 마르세유에서 ‘경제와 인본주의Economie et Humanisme’란 단체를 등록했다. 여기에는 그와 함께 도미니코회원들 그리고 저명한 경제학자인 프랑수아 페루Francois Perroux 같은 평신도들도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그 유명한 ‘선언Manifesto’을 발표하였다. 폐쇄 경제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둘로 나뉜 프랑스의 현실에서 선언은 몇 년에 걸쳐 더 진전될 생각과 대책들을 담고 있었다. 거기에서 그는 이윤에 근거한 경제 체제의 거부, 개량주의를 넘어서는 구조 변화, 재화 자체와 재화에 대한 필요의 구분, 그리고 공동체주의적인 경제 체제의 초기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마르세유에서 보낸 이 시기 동안 르브레 신부는 어부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연구 조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연구 센터는 곧 리옹으로 이전했다. 그곳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이 더욱 잘, 더욱 넓게 받아들여지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루이 신부와 ‘경제와 인본주의’에 1947년은 중요한 해였다. 루이 신부는 브라질의 상파울루 정치 자유 대학Fre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of San Paulo의 초대로 그해 5월부터 9월까지 한 과목을 가르쳤고, 남미 여러 나라와 미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그의 강의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수강생들은 루이 신부가 위대한 스승이며 친근한 형제라고 느꼈다. 참으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브라질과 다른 남미 국가들이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 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이 겪는 극심한 가난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저발전 국가들을 돕는 데 헌신하겠다고 결심하였다.

프랑스로 돌아올 무렵 르브레 신부는 거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만성적인 실업, 영아 사망, 문맹, 열악한 주거 환경, 기아와 같은 인간 품위의 적나라한 전락을 목도하고, 저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너무나 넓게 퍼진, 충격적인 가난을 접하고 그는 가장 가난한 프랑스 사람도 남미 사람들에 비하면

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루이 신부의 삶은 새로운 시기로 접어든다. 그는 저발전 국가들의 사회 경제적 문제에 집중한다. 그리하여 1958년, 발전의 문제가 20세기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교육과 발전을 위한 국제 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of Research for Training and Development(IRFED)를 설립했다.

‘경제와 인본주의’처럼, IRFED는 일련의 폭넓은 활동을 수행했다.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조화로운 발전에 어떤 요소가 담겨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 예를 들어 GDP 증가와 같은 것만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삶을 온전히 살아 낸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진보여야 했다. 따라서 르브레 신부는 연구소 내에 ‘발전과 문명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부서를 만들고, 경제 중심주의를 벗어나, 산업화 이전의 가치들을 간직한 새로운 문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IRFED는 매년 남미, 아프리카, 마그레브,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서까지 다양한 연령과 경험을 가진 100명의 학생을 초청하여 가르치는 교육 기관이 되었다.

르브레 신부는 교육을 크게 강조하였다. 동시에 그는 경제학, 사회학,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지만,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우선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았다. 그는 센터에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봉사의 마음을 가지길 원했다. 그는 이들이 죄수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오래된 한 수도회와 같은 수도 단체처럼 되기를 원했다.

그의 삶에서 이 시기에 르브레 신부는 전 세계적인 권위를 얻게 되었다.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베트남에서까지 주교들이 그를 초청하였다. 그는 세네갈에서 조연자로 활동하였다. 1960년부터 64년까지 레바논으로 파견되었다. 레바논은 그가 젊을 때 활동했고 사랑했던 나라였다. 이 파견이 그의 마지막 주요한 봉사였다. 그에 앞서 르완다와 베네수엘라에 가기도 하였다. 바티칸은 그를 여러 가지 UN 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르브레 신부는 삶의 마지막 시기에 다다랐다. 이 무렵 그는 바티칸에서 중요한 일을 수행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의 활동과 사상이 점차 더 잘 알려졌고, 1962년 르브레 신부는 제네바에서 열린 저발전 지역을 위한 과학 기술 유엔

회의에 교황청 특사로 임명되었다. 여기서 그는 탁월한 역량을 보여 주었다. 조화로운 발전에 대한 그의 사상을 훌륭하게 소개했다.

루이 신부는 로마에서 보편 교회를 섬기며 현역으로서 마지막 4년을 보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봉사가 귀하다고 생각했다. 이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문을 열던 시기였다. 교종 바오로 6세가 르브레 신부에게 애정 어린 찬사를 보냈고, 1964년 그를 공의회 전문가로 임명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개인 알현의 시간을 가졌고,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초안이 발표될 무렵에 교종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 1965년 2월, 르브레 신부는 세계 공동체와 관련된 장(章)을 써서 공의회에 제출했다.

불행하게도, 공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진행될 때 르브레 신부는 위독한 상태였다. 그는 그림자로 남겨졌다. 교종 바오로 6세가 친히 그에게 무리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초안 13장이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이 되었다. 르브레 신부는 정의성청 Secretariat for Justice의 설립을 위해 개념을 제발하고, 내용이 그 문서에 담기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교종 바오로 6세가 썼듯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발전이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정의성청이 교의적인 지원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었다. 정의성청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포괄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에 대한 한결같은 교의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어야 했다. 덧붙여, 성청은 바로 그 교의가 실제 삶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었다.

르브레 신부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 1966년 7월 20일 선종하였다. 그가 선종한 다음 해, 교종 바오로 6세는 공개적으로 르브레 신부의 이름을 인용한 문서, 「민족들의 발전」을 발표했다. 르브레 신부의 흔적은 문서의 거의 모든 단락에서 드러났다.

르브레 신부의 표현 방식이나 어휘에 익숙한 이들은 회칙에서 그의 영향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장은 그의 것에서 통째로 인용된 것임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종 바오로 6세가 회칙을 만드는 데 그에게 언제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종 자신이 르브레 신부를 존경하고 의지했다고 밝힌 것 그리고 회칙 「민족들의 발전」이 르브레 신부라는 교회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기억이며 경의의 표시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의 사상

우리는 이미 그의 삶의 여러 시기를 돌아보며 그의 사상의 상당 부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의 사상의 세 가지 요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첫째 공동선에 대한 이해, 둘째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조화로운 발전이란 그의 개념이다.

르브레 신부에게 공동선이란 인류 사회의 선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선을 추구한다. 선을 실현하고, 모든 구성원이 그 선을 누린다. 선에 대한 공동 욕구가 있다. 그 선은 사회정의를 통해서 획득된다. 우리는 각자 고립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우리 자신이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본성에 새겨져 있다.

모든 개인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자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필요한 이들에게 자기의 재화가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나누어야 하고,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자는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누군가의 소유물이란 (모든 것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역자 주) 공동선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르브레 신부에게 있어서 무질서란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들(예를 들어 토지, 공장, 과학, 능력들)이 그 자체를 위해 사용될 때 발생한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이런 일을 현대의 자본주의가 벌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동선에 봉사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선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해 자본주의는 사회정의를 반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었다. 그것은 덜 인간적이고 덜 솔직하며, 피고용인들을 착취하여, 더 낮은 임금으로 가능한 한 오랜 시간 일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현혹적인 광고로 시장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선을 위한 필수 조건은 전체가 함께 융성한다는 생각과 상호 신뢰다. 이를 위해서 (기능에 한정된 교육이 아니라 더 넓은 인식이 가능한—역자 주) 뿌리 깊은 교육, 즉 종교 교육이 요청된다. 그것은 교회가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장이다.

이런 위대한 인간 중심의 이상을 가졌지만, 르브레 신부는 마르크스주의에 단호

하게 반대했다. 그는 『자본론』을 읽고, 마르크스주의의 지침들이 공동선의 원리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교 인간학에 기반하여, 결정론적 체제인 마르크시즘을 거부했다. 거기에는 인격의 개념이 자리할 수 없고, 자유가 행사될 수 없으며, 도덕의 자리가 없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자본주의의 다른 한 면으로 이해하며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덜 해로운 것이라 보는 시각을 거부했다.

루이 신부는 새로운 문명을 열기 위해 열정적으로 싸웠다. 그가 내놓고자 한 것은 새로운 문명이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전이란 개념이 경제 성장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그의 주장을 이해해야 한다. 발전은 GDP의 증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말한다. 단순히 생산량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발전을 본다면 그 발전은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 아니다.

르브레 신부는 이런 발전의 개념을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실재, 즉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에게서 차용했다. 그것들은 성장하는 존재들이다. 이 개념에는 성장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할 내적 균형equilibrium이 포함된다. 발전은 발전하는 존재의 본질에 담긴 조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존재의 가치를 드러낸다. 발전이란 가능성이 실현되어 가는 진화다. 결국 최적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고, 최적의 상태에 다다랐을 때 종결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적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양육, 힘, 활동성, 지적 성숙도 그리고 도덕적 영적 삶의 충만함 등이 최적의 상태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다양한 발전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에만 달성된다. 그것은 질서 있는 성장이며,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성장과 닮아 있다. 그것은 정말이지 경제적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욱 포괄적인 인간 문제를 다루어야만 한다. 발전에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발전이 있기 때문이다.

르브레 신부는 기발전 국가와 미발전 국가, 양자가 연대를 통해서 문명을 창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그는 서구 산업 문명이 전통적인 문명의 가치 체계에 주는 충격에 대해서 염려했다. 제3세계의 발전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영혼 그리고 살아갈 이유 등을 앗아 버리는 경제 성장으로만 점철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루이 신부는 전통적 가치를 지킨다면서 발전을 거부

해 버릴 위험이 있다는 점도 이해했다. 그러나 동시에 산업화를 거치며 전통 가치를 파괴해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란 점도 분명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 르브레 신부는 그 응답을 가치 체계의 공생에서 찾았다. 공생이 이루어지면, 이 때의 발전은 형편없이 분배되어 생산의 전 세계적인 수준을 단순히 높이는 것을 넘어서는 성취가 될 것이다. 그것은 앞선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역동적 조화가 될 것이다. 그것은 토착 가치와 이방 가치의 조화가 될 것이다. 조화로운 발전이란 진정한 의미의 연대 속에서 최대의 인간적 경제의 실현을 의미한다.

그의 영성

르브레 신부가 현세의 문제에 아주 깊이 천착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은 그가 도미니코회원이란 사실에 아주 놀란다. 이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만일 먼저 선원이 되었다가 나중에 도미니코회원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해내지 못했으리라고 고백했다.

모든 것은 그가 태어난 브르타뉴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평생 고향과 아주 깊이 연결되었다. 유아기 그리고 가족들과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브르타뉴 사람들의 전형적인 가치들이 그 안에 뿌리를 내렸다. 많은 브르타뉴 사람들이 신앙을 지녔다. 들판과 바다에서 고된 일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힌 사람들이었다. 진취적이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가 도미니코회원이 되어 생말로로 돌아왔을 때, 그는 브르타뉴가 1930년대의 사회 경제적 위기로 황폐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목전에서 빈곤을 보았고, 때때로 그것은 거의 비참의 수준이었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삶의 불안정이었다. 단지 어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농부들 역시 농사에서 미래를 볼 수 없었다. 1900년에서 1940년 사이에 약 60만 명의 브르타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참다운 의미의 발전이 결핍된 이런 현실이 루이 신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이 그를 자신의 동향 사람들인 브르타뉴 사람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봉사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풍부한 신앙적 환경에서 교육받은 그는 어릴 때부터 신부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세르부르 근처에 있는 브리크벡

Briquebecq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정이 더욱 활동적이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레바논에서 그는 예수회의 성소 식별 피정에도 참가했다. 하지만 예수회원들은 그에게 성 이냐시오의 후예가 되기에 그가 너무 독립적이라고 말하며 도미니코회원이 되면 어떻겠느냐고 권고했다고 한다. 그는 예수회원들이 그를 원하지 않았다고 농담을 하곤 했는데 이런 사건은 하느님의 섭리였다. 그는 정말 도미니코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 있을 때 그는 볼로냐에 있는 성 도미니코의 무덤에서 성체성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의 일기를 읽으면, 그가 얼마나 강렬하게 도미니코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르브레 신부는 자기 수도회의 정신을 사랑했다. 그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지성의 스승으로 모셨다. 그는 수도원의 일상을 좋아했다. 기도 시간을 사랑했고, 침묵과 노동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그를 풍부하게 했고, 사도직에서 그를 도와주었다. 이런 점에서 르브레 신부는 기도의 사람이며 관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우리에게 여덟 권의 영성 서적을 남겼다. 그는 참여하는 영성으로 많은 신자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저작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반복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거기에는 주님과 하나된 걱정적 삶이 있다. 그 삶은 그의 기도 안에서 숨김없는 진솔함으로 드러나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드러난다. 하느님이 사랑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르브레 신부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시선은 바로 주님을 흠송하는 시선과 관상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웃을 향한 이런 자비로운 사랑은 그가 쉽 없이 공동선을 추구하고 보편적 형제애를 증진하도록 만들었다. 사랑이 그를 전 생애에 걸쳐 불의에 맞서 싸우도록 이끌었다.

루이 신부가 바친 기도들은 영과 육이 결합된 신비와 관상의 결과물이었다. 영적 도피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다급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1946년과 1949년 르브레 신부는 로마에 있었다. 그때 그는 산 루이지 성당에서 영적 수련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이는 저작물로도 출간되었는데 그는 여기서 구원 역사 전체를 다루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우리의 이웃이란 인간 전체로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루카 16,19-31)를 복음에서 읽을 때, 이는 즉각 우리 역사에 적용되어야 했다. 즉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라자로인 것이다.

우리는 악한 부자다. 지금 라자로는 우리의 식탁 밑에 웅크리고 앉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다. 우리 국민 소득의 백분의 일, 이백분의 일, 천분의 일(의 부스러기들). [...] 라자로는 군중이다. 인류의 거대한 다수가 라자로를 이루고 있다. 한때 라자로는 바다 건너 저 멀리에 있었다. 우리의 경제 체계가 그 라자로를 미친 듯이 착취했었다. 그러나 이제 라자로는 우리 가까이 있다. 세상이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라자로는 이제 우리에게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제서야 그를 발견한 것이다. 신문 기사로 판단해 보건대, 그는 세상에서 작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두려워한다. 라자로는 저항하는 법을 배우고... 읽는 법을 배우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라자로는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흔들고 있다. 우리는 라자로를 더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도우려면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이들이 증오를 멈추고, 군비에 쓰는 돈을 줄여야 한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대신, 서른 배의 비용을 군비에 쓰고 있다. 우리의 자만과 어리석음이 라자로를 분노케 한다.

르브레가 사람들을 사랑했듯이, 사람들 역시 그를 깊이 사랑했고, 그를 필요로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기도, 「당신 안에서 내가 사랑했던 이들」을 나누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한다. “나의 하느님, 저는 당신 안에서,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 위에서 많은 것을 사랑해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사랑이 언제나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제 이기적인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아이였을 때, 저는 미사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가난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자루에 빵을 채워야 하는 걸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포트사이드에서 석탄을 나르던 부두 노동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플랑드르 제방의 안개 속에서 우리에게 침몰당해 도움을 청하던 독일 해병을 사랑했습니다. 기계화와 세계 경제 위기에 몰려 굶주리며, 도시로 떠나야 했던 어부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뢰브Loew 신부가 저를 데려가서 만나게 된 마르세유의 빈민을 사랑

했습니다. 리우의 파벨라와 레시피의 모캄부의 빈민촌 흑인들을 사랑했고, ... 경찰에 의해 살던 장소가 파괴된 도쿄의 넝마주이를 사랑했고, ...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불쌍한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돈의 노예가 된 부자들을 사랑했고, ...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능력도 탁월함도 없는 정치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참 사랑만이 붙들어 줄 수 있는 가련한 수많은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 안에서 사랑했던 이들,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저와 함께했던 이들이 다 같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해 준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제 부족함은 당신의 이름에 희망을 두고 있는 모든 이와 온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이 채워 주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우리는 르브레 신부의 저작 전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씩씩한 브르타뉴 사람은 자기 고향 마을, 자기 나라 그리고 세상의 사회적 문제를 참으로 진지하게 감당하였다. 우리는 교회의 사회교리에서 발전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있어서 그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다.

그는 진정한 발전이란 전체로서 한 인간의 성장이며 모든 인류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시대를 앞서 소개했다. 그의 세대, 1950-60년대에 발전이란 그저 경제적인 요소에 한정된 초보적인 개념이었다. 우리는 그의 저작을 읽을 때, 그의 사상이 가진 명료함과 시의적절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은 그의 심오한 영성에서 출발했다. 하느님의 자비로 마음이 움직인 그는 사회적 행동에 참여해야만 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높은 평가와 감탄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

‘마토’ 같은 교종: ‘작은 돌의 철학’과 ‘건전한 광기’

수도생활은 보편 성소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 「사랑의 기쁨」, 식별과 그리스도인의 성숙

‘마토’ 같은 교종

‘작은 돌의 철학’과 ‘건전한 광기’

IL PAPA COME IL «MATTO»

La «filosofia del sassolino» e la «sana pazzia»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예수회)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가르멜 수도회, 대전 가톨릭 대학교) 옮김

부활절 아침 신문 기사실 게시판은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했다. “교종께서는 강론을 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절 메시지와 더불어 ‘우르비 엷 오르비(Urbi et Orbi)’ 축복이 미사 후에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몇 마디 말씀을 하기로 하셨다. 교종께서는 팔짱을 낀 채 여러 가지 생각과 말에 대해 묵상하면서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것은 마치 신자들로 가득 찬 광장 앞에서 하는 강론이라기보다 일대일로 대면해서 하는 개인적인 고해성사와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땅의 작은 돌들인 우리들은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된 이 지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함께 수많은 불행 속에서도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더 이상 장벽은 없습니다. 지평선이 펼쳐져 있고,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양면성을 지닌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달아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 작은 돌이여, 당신은 삶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죄의 사악함이 내던져버린 바로 이 돌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는 수많은 비극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는 단순합니다. 버려진 돌이 정말 그렇게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돌을 밟고 그 돌에 붙어 있는 작은 돌들은 버려지지 않았습니 다.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며 교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이는 교종의 말씀이다.

교종: “그대, 작은 돌이여, 당신은 삶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종은 찢어지고 상처 입은 세상에 대해 전하며 큰 음성으로 목상했다. 그분은 이후 ‘우르비 옛 오르비’ 축복에서 상처 받은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이에 대해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이 강론에서 당신께서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누어 어느 청년의 이야기에 머무셨다. “어제 저는 중병에 걸린 어느 청년(교양 있는 엔지니어)에게 전화를 해서 신앙의 징표를 전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에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밖에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하느님은 성자에게 물어보셨고, 성자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걸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대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십자가가 앞서 나가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내려옵니다.”

교종은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그 청년의 편에 서서 그의 입장이 되어 주었다. 그가 쉬운 대답을 제시하진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징표’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프란치스코 교종은 비극 앞에서 예수님이 엠마우스의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했다. 그는 원칙적 설명으로 도피하지 않고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의 경험을 받아들였다. 그의 동반자가 되어 주고 그와 함께 걸었다. 그리고 그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었다.

교종 성하는 자신의 믿음과 더불어 단순히 이렇게 말한다. “멈춰 서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비참한 일들과 세상의 드라마 앞에서 우리에게 멈춰 서라고 부탁한다. 왜냐하면 버려진 돌이신 예수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죽음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무덤을 넘어서는 그 무엇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종은 ‘돌’이란 말이 지닌 두 가지 상

충하는 의미를 통하여 말할 수 있었다. 무덤의 치워진 돌, 내버려진 돌, 그 돌은 돌
아가신 예수님으로서 이제 생명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이다.

교종 성하는 팔짱을 끼고 말씀하는 가운데 방금 사용한 비유에 의해 눈에 보이
듯 이해된 것처럼 자연스레 땅에 있는 작은 돌같은 우리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
다. 그 돌들은 비록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어도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그대, 작은
돌이여, 당신은 삶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복음적인 순
결함과 더불어 그렇게 말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 돌, 그 바위에 달라
붙어있는 데에서 유래한다. 그리스도의 바위에 달라 붙어있는 작은 돌들인 우리
앞에는 ‘장벽’이 아닌 ‘지평선’이 펼쳐져 있다.

마토: “이 돌은 뭔가를 위해 필요하다.”

— 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를 믿기 어렵
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뭔가를 위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보십시오. 예
컨대, 저기 있는 돌을 집어보세요.

— 어떤 돌이요?

— 이 돌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 이것 역시 뭔가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작은 돌도 그렇습니다.

— 어디에 필요한가요?

—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만일 그걸 알았다
면, 제가 누가 되는지 아세요?

— 누구요?

—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겠죠. 그분은 당신이 언제 태어
나는지, 또 언제 죽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이
돌이 어디에 필요한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 뭔가를 위해 필요할 겁니다. 만일 이게
무익하다면, 모든 것 역시 무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별들마저 그럴 겁니다. 당신
또한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 아둔한 머리와 함께 뭔가를 위해 소용될 겁니다.

이는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의 영화 「길La strada」에서 ‘마토Matto’로 분장
한 배우 리처드 베이스하트가 (잊을 수 없는 줄리에타 마시나가 연기한) 젤소미나

에게 한 말이다.¹⁾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잠파노라는 방랑자는 지방의 여러 장터에서 불을 먹는 모기를 보여주는 건장한 남자였다. 어느 날 그는 장터에서 10,000리라를 주고 젤소미나를 사게 된다. 온순한 그녀는 가난하고 못 생긴데다 무식했다. 이 불쌍한 여인은 그를 위해 하녀, 요리사, 연인이 되어 주었다. 섬세하고 신비스러움이 감도는 젤소미나와 폭력과 잔인함의 상징인 잠파노는 더 할 나위 없이 대조되어 드러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삶 속에 광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마토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

이 곡예사는 교묘하게 잠파노를 자극하는 가운데 아이러니하면서도 가볍고 유쾌한 방식으로 그를 놀려댔다. 반면, 젤소미나에게는 삶의 가치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이에 화가 난 잠파노는 우발적으로 마토의 머리를 세계 후려친 후 그가 풀밭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둔다. 결국 젤소미나는 미쳐버리고 잠파노는 그런 그녀를 그녀의 운명에 맡긴 채 떠난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곳으로 돌아온 잠파노는 우연한 기회에 젤소미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술주정뱅이였던 그는 해변가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외로움 그리고 우주의 거대함을 깨우치며 울기 시작했다. 지독하기 그지없던 잠파노는 해변에서 자연과 생명의 신비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의 울음은 마치 새로운 탄생, 부활을 알리는 듯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좋아하는 영화, 「길」

프란치스코 교종은 펠리니의 영화를 잘 알고 있다. 2013년 9월호 「치빌타 카톨리카」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교종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펠리니의 영화 「길」은 아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영화와 저를 동일시하곤 하는데, 그 영화에는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언급이 암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²⁾

1) 이 작품은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어 있다. 인용된 것을 보고자 하는 이는 이를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youtu.be/EXRvLWozlo4/> 이 점과 관련해서 본 잡지에 실린 위대한 영화감독에 대한 인터뷰를 읽을 수 있다: V. Fantuzzi, “ai raggi X”, in *Civ. Catt.* 1990 I 58-71. 여기서 인용된 영화와 관련해서 ‘기초적인 그리스도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p. 64).

2) A. Spadaro, “Intervista a Papa Francesco”, in *Civ. Catt.* 2013 III 472. 이어서 교종은 2016년 6월 16일에 있었던 ‘Giubileo dello Spettacolo Viaggiante’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한 담화에서 그 영화의

그러나 교종은 특히 마토가 고백한 ‘작은 돌의 철학’이라 부르는 철학을 좋아한다. 필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11월 교종 성하가 피노 솔라나스 Pino Solanas라는 아르헨티나 영화감독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펠리니의 이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종은 분명 마토의 입장이 되어, 음울한 트럼펫 연주자인 마토가 젤소미나를 잠파노의 폭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그녀에게 했던 ‘작은 돌’에 대한 담화를 신자들에게 했다. 펠리니 영화가 간직한 진정한 의미는 — 정의된 바와 같이 — 마토가 젤소미나에게 했던 ‘밤의 설교’에 있다. 즉, 어떤 생물이든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으며 어떠한 고통도 헛되지 않다. 만일 작은 돌이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³⁾

‘광대’ 너머에 있는 마토

그러므로 교종 프란치스코는 마토처럼 하고자 했다. 더욱이 그는 2013년 5월 16일 마르타의 집에서 한 강론에서 하느님에 대한 광기(狂氣)에 대해 언급했다. “사도적 열정은 광기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광기, 건전한 광기입니다. 사도 바오로 역시 이런 건전한 광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기를 구현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다. 이에 대해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1코린 1,23). 또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1코린 1,27).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1코린 4,10).⁴⁾

사운드트랙에 대해 의미 있는 언급을 했다.

3) 최근 본지의 작가인 비르질리오 판투치Virgilio Fantuzzi 신부에 의해 밝혀진 영화의 배경이 의미 심장하다. 젤소미나와 마토 사이의 대화는 영화감독과 함께 영화의 전문가로 익히 알려진 예수 회원, 에우제니오 부르노Eugenio Bruno 신부에 의해 정확히 삽입되었다. 이는 로마의 Via degli Astalli에 있는 예수회 제수 공동체에서 둘 사이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만남은 2016년 9월 24일 아벤티노 언덕에 있는 성 안셀모 교회에서 판투치 신부에 의해 거행된 잔 루이지 론디Gian Luigi Rondi의 장례식에서 비롯되었다.

4) 이미 베르골료 신부는 자신의 어느 글에서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의 『교리서』를 인용하는 가운데 이를 상기한 바 있다. J.M. Bergoglio, *Nel cuore di ogni padre. Alle radici della mia spiritualità*,

‘하느님께 미친 자’는 그 자체로 생명의 의미와 고통의 땅이 지닌 의미를 간직한 메시지를 수호하는 자이다. 이 경우, 그리스도라는 돌 곁에 있는 ‘작은 돌’이 바로 메시지가 된다. ‘돌’과 ‘작은 돌’ 사이에는 연대감과 상호 귀속 그리고 깊은 동반이 존재한다. 이 ‘돌’은 버려진 돌이자 바위로서 우리에게 의미를 계시하고 우리를 살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질문을 없애주진 못한다. 오히려 프란치스코 교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도대체 왜 이렇듯 많은 불행, 병고, 인신매매, 전쟁, 파괴, 훼손, 복수, 증오가 생겨납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또한 교종은 “슬픔, 패배의 슬픔으로 닫힌 마음”을 비극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젤소미나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젠 사는 게 피곤해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죠?” 여기서 교종은 젤소미나의 목소리와 그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해답을 전하는 설교가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탄식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슬픈 리타니를 읊조리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 각자는 매일의 문제와 우리 또는 우리 친척 가운데 그 누가 겪었을 병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전쟁과 인간적인 비참함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나 교종은 바로 이 슬픈 리타니 앞에서 “단순하게 겸손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장담합니다.” 부활에 대한 선포가 조난의 한 복판에서 조난자에 의해 선사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프란치스코 교종이 완벽하게 마토의 입장이 되어 구현한 그리스도교적인 역설이다.

쇠렌 키에르케고르에서부터 이미 신학은 신학자가 광대와 같이 여겨질 것이라

Milano, Rizzoli, 2014, 305 참조. 베르골료는 교황좌에 오른 후부터 인간을 악으로 밀어붙이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광기를 경계하는 가운데 ‘건전한 광기’에 호소했다. 그는 2013년 7월 28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귀환하는 비행기에서 안전에 대한 주제와 관련하여 기자들에게 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주교와 하느님 백성 사이에 두터운 공간을 만드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광기를 선호합니다. 즉, 바깥에서 다른 광기의 모험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광기를 좋아합니다. 바깥.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교종은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화를 다시 상기하는 가운데 이 ‘광기’를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적이면서도 위대한 신앙 행위로 밀어붙이는 상태로 규정했다. 일곱 살 난 여자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의사들은 그 아이에게 약간의 생명만을 연장해 줄 뿐이었다. 결국 전기기사인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미치광이가 되어 그 광기 속에서” 버스를 잡아타고 70km나 떨어진 루한의 성모 성지로 은총을 청하기 위해 갔다(참조. 마르타의 집에서 한 강론, 2013년 5월 20일).

는 사실을 예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정말로 불이 난 것을 보며 “불이야!” 하고 외치는 가운데 단지 목격자들의 눈물을 쫓 빼놓을 정도로 웃음을 자극하는 광대나 다름없는 신학자의 슬픈 모습을 담고 있다. 결국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강론과 더불어 광대는 이제 미친 곡예사에게 걸음을 양보한다. 그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사람이다. 잊을 수 없는 ‘바보’ 미쉬킨 왕자의 모습을 찬찬히 읽어보기로 하자. 베르골료 교종은 아름다우면서도 비참한 이 왕자와 돈키호테를 많이 좋아했다. 펠리니의 영화에 등장하는 마토라는 인물에서는 이 모든 것이 수렴되어 드러난다. 그에게는 순결함과 비참함, 아름다움과 유머가 공존하고 있다.

광대는 복음을 설파하면서 성공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한다. 그러나 마토는 스스로의 자유를 해방시키고 모든 가면을 벗어던짐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암호를 만들어내고 있다.

* * *

‘마토’는 곡예사이다: 그가 대면하는 창공의 팽팽한 줄로 대변되듯이, 삶의 의미는 위험을 내포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꿈을 꾸는 사람이다. 잠과노의 폭력을 헤아릴 줄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무력화시킬 줄은 알았다. 우리 안에서 신비에 대한 의미를 흔들며 깨우려면 ‘마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기 위하여서도 그러하다.

수도생활은 보편 성소에 참여하는 것

LA VITA RELIGIOSA: PARTECIPAZIONE A UNA CHIAMATA UNIVERSALE

도날드 말다리, 예수회

심애정 쯤마 수녀(성바오로딸 수도회) 옮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신학자들은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인 삶의 가치를 경시하지 않으면서, 가톨릭 신학에서 전통적으로 “수도생활 또는 축성 봉헌 생활”이라 알려진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수도자religioso”와 “축성 봉헌 생활자consacrato”란 용어는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생활양식을 한 그룹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양식이 가진 수도적 특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수도생활 신학의 발전은 “수도자religioso”와 “종교religione(경건함)”에 대한 현대적 개념의 발전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현실의 내재적 차원을 초월적 차원과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이 경우, 내재적 차원을 ‘불경스러운’ 또는 ‘세속적인’ 것으로, 초월적 차원은 ‘성별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종교를 후자의 차원과 과만 연결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종교religione(경건함)”와 “수도자religioso”란 용어가 유용할 수 있으려면, 궁극의 초월적 진리라고 확신하는 인간 믿음의 기능 안에서 발전하는 내면적 문화를 포함해야 한다.

종교에 대한 후기 계몽주의 개념 비판

브렌트 농브리Brent Nongbri는 종교 개념의 역사에 관한 연구에서, 종교개혁으로 인해 사람들과 하느님과과의 관계가 사적인 것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계몽주의는

그 관계를 “세속 문화”¹⁾라 불리는 것과 구분했다. 18세기 후에 일반 신자들은 종교를 문화의 하위에 있는 선택적이고 사적인 범주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자신들이 영성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는 주장이 퍼져 나갔다.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성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들의 영성을 자신과 하느님의 사적인 관계라고 해석하며, 이 관계가 자신들의 세속 일상의 삶에 개입하거나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프랑스 혁명 후 세속성 laïcité의 발전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4년에 프랑스 총리실이 발간한 문서는 이러한 관점을 시사한다. 이 문서는 세속화로 나타났던, ‘근대성’이라 불리는 것 안에서 세속성이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한다. 즉 18세기 말 계몽주의, 각 개인에게 인정된 자율성, 양심의 자유, 지식의 진보와 사회 진보와 더불어 세속성이 형성되었다.”²⁾

거의 같은 시기에 신학은 수도승 생활과 관련해서, 요한계 문헌이 해석했던 ‘세상’이란 용어에 따라, ‘세상에서 물러남 fuga mundi’을, 더 이상 단순히 죄를 거부하는 것만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신학은 세속화된 세상을 계몽주의가 만들어 낸 것이라 경멸하고, 거룩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교구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현세적 차원에 관심을 기울였다. 수도생활은 분명히 완덕의 삶이었고 비수도생활은 명확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다.

계몽주의 이후 서양 문화에서 세속 종교란 범주들이 생겨나고 그 결과 (복수의) 종교들은 신앙이 인간 삶 전체에 미치는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 범주들은 신앙 행위에 영향을 받는 문화의 한 요소만 분리시킬 것을 요구한다. 후기 계몽주의 사조는 이를 ‘성스러움 il sacro’이라 부르지만 ‘초월 진리 verità trascendente’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 사실 인간 문화의 모든 측면은 어떤 초월 진리에 대한 믿음에 의해 형성된다.

계몽주의 이후에 이해된 “종교성”과 “종교들”의 범주는 후기 계몽주의 우주론이 “세속성 il secolare”이라고 일컫는 신앙의 범주를 통합시키지 못한다. 이 세속성ⁱⁱ

1) B. Nongbri, *Before Religion. A History of a Modern Concep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3 참조.

2) *La laïcité aujourd'hui. Note d'orientation*, in www.gouvernement.fr

secolare은 현실의 내재적 차원이라 정의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범주의 사용은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 활동을 진정한 성취라고 인식하는 것을 별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분리는 무엇이 이른바 “비종교적 혹은 세속적인 활동”을 일으키고 부추기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티모시 피츠제럴드 Timothy Fitzgerald,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Wilfred Cantwell Smith, 미셸 데플랑 Michel Despland, 윌리엄 카바노프 William Cavanaugh, 브렌트 농브리 Brent Nongbri, 다니엘 두뷔송 Daniel Dubuisson³⁾ 등 수많은 종교 관련 학자들은 “종교”의 근대적 개념이 유용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서양 문화가 (복수의) “종교들”이란 개념에 이어 “종교”란 범주를 만들어냈고,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일련의 결과들이 포함된 이들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한다.

큰 맥락에서 볼 때, 이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발전했다. (1) 장엄한 예식으로 표현되고 한 사람 삶의 일상 활동에 영감을 주는 깊은 내적 태도로서의 종교에서부터, (2) 한 개인의 문화 안에 있는 수많은 범주들 중 하나로 그 사람 외부의 무엇인가로서의 종교로, (3) 사람들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그룹의 지성적인 확신과 예식을 구성하는 ‘신념체계’(-ism)로서, 복수의 “종교들”의 구분에 이르기까지 발전했다.

티모시 피츠제럴드는 “종교”란 단어가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연구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⁴⁾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 Peter Sloterdijk는 종교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 적도 없으며, 그 보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통치구조 regimi spirituali”에 자신들을 내맡겨 이른바 “인간적 기법 antropotecnica”으로 스스로를 표현한다고 주장한다.⁵⁾

브렌트 농브리는 “경건성 religioso”과 “세속성 secolare”의 범주에 대한 근대적인 이

3) W. Cantwell Smith,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63; M. Despland, *La religion en Occident. Évolution des idées et du vécu*, Montréal, Le Cerf et Fides, 1979; D. Dubuisson, *L'Occident et la religion. Mythes, science et idéologie*,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1998; T. Fitzgerald, «A Critique of Religion as a Cross-Cultural Category», in *Method and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9 (1997) 91-110; Id., *The Ideology of Religious Stud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Id., *Discourse on Civility and Barbarity. A Critical History of Religion and Related Categories*, ivi, 2007; B. Nongbri, *Before Religion...*, cit 참조.
4) T. Fitzgerald, «A Critique of Religion as a Cross-Cultural Category», cit.; Id., *The Ideology of Religious Studies*, cit.; Id., *Discourse on Civility and Barbarity...*, cit. 참조.
5) P. Sloterdijk, *Devi cambiare la tua vita*, Milano, Raffaello Cortina, 2010.

해로의 발전은 최근의 현상임을 보여준다. 그는 계몽주의 이전의 텍스트를 읽는 이들이 “종교”란 단어에 후기 계몽주의적 의미를 부여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는 완전히 다른 뜻을 지닌 외국어 표현에 종종 ‘종교’란 단어를 쓰는 번역물에도 해당된다.⁶⁾ 예를 들어, 가장 많이 통용되는 영어 번역인 개정표준판 Revised Standard Version에서 성경은 모두 제 2경전에 나오는 네 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하는데 “종교(religione)”란 단어를 열두 번 쓴다. 이 중 어떤 것도 후기 계몽주의가 의미하는 종교를 뜻하지 않는다.

번역자들은 또한 순전히 후기 계몽주의 용어인 서구의 “종교religione”란 단어를 그에 상응하는 비서구의 용어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서구 언어들에는 서구의 “종교religione”란 단어에 해당하는 토착 용어가 없다. 예를 들어 인도의 헌법은 영어로 종교religion로 번역되는 다르마dharma(धर्म)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종교religion’란 단어는 ‘믿음, 정의, 일상의 의무 [본성, 본체, 법, 계율, 부처의 가르침]을 내포하는 ‘다르마dharma’란 용어가 지닌 풍요로운 의미를 포착하기 어렵다.

농브리의 지적은 계몽주의 우주론의 렌즈로 바라본 비계몽주의 문화 해석과 상충된다. 그래서 피렌체 대성당의 1300년대 양식 종탑 외벽에 직물이나 약초 등의 작품으로 묘사된 벽돌들은 용어의 현대적 의미에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장면의 묘사만큼 종교성을 지닌다.

피에르 테이아르 드 샤르댕은 암시적이고 매우 표현력이 풍부한 그의 전형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했다. “이 지상에서 볼 줄 아는 이에게는 그 어느 것도 세속적이지 않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 안에서 완성의 여정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력에 끌리도록 선택된 입자를 간파해낼 줄 아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성스럽다.”⁷⁾ 그의 우주론은 “인류 역사의 무대인 이 세계를 향해 주저 없이 말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현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에 반영될 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그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에서 테이아르 신부의 공헌을 언급한다(83항, 주53).

6) B. Nongbri, *Before Religion...*, cit., 3 참조.

7) P. Teilhard de Chardin, *L' ambiente divino*, Brescia, Queriniana, 1994, 41. A. Spadaro, «Il sacerdote e la “maturazione universale”. Pierre Teilhard de Chardin su Eucaristia e cosmo», in *Civ. Catt.* 2016 III 226-238 참조.

스미스와 두뷔송은 종교religione와 종교적인 것religioso(수도자)의 범주를 폐기하자고 제안한다. 이 용어들에 호의적인 학자들마저도 이 용어들이 모호하다는 것을 인정한다.⁸⁾ 카바노프Cavanaugh와 데플랑Despland, 두뷔송, 농브리, 슬로터다이크, 스미스, 테이아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종교religione란 개념은 사실상 인간 문화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총체성을 개개인의 근본적인 고뇌이자 궁극의 관심사인 하느님께 대한 긴장감에 의해 인도된다.”

수도생활을 정의하는 어려움

공의회는 수도생활을 비수도생활과 대립되는 완덕의 삶으로 묘사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결정을 했고, ‘거룩함으로의 보편적인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 분투했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G)은 보편적 성화 성소에 할애된 장 뒤에 의도적으로 축성 봉헌된 수도생활에 관한 장을 배치했다. 그 목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충만함으로 성화의 소명을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공의회와 후속 신학은 보편적 성화 성소의 맥락 안에서 축성 봉헌된 수도생활을 특징짓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노력했다.⁹⁾ 공의회의 난관은 교회

8) D. Dubuisson, L' Occident et la religion..., cit., 83 ss 참조. Per le considerazioni di studiosi che sostengono che «religione» è una categoria valida e utile, «Review Symposium: “Daniel Dubuisson, The Western Construction of Religion”», in Religion 36 (2006) 119-178 참조; W. Cohn - S. Z. Klausner, «Is Religion Universal? Problems of Definition», i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 (1962) 25-35; F. Schüssler Fiorenza, «Religion: A Contested Site in Theology and the Study of Religion», in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93 (2000) 7-34.

9)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31. 평신도의 본성과 사명: “여기에서는 성품의 구성원과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의 구성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된다. 곧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성품의 구성원들은 어떤 때에 세속에 살며 세속 직업까지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특수한 성소 때문에 주로 직무상 거룩한 교역에 임명되고, 수도자들은 참행복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도 없고 하느님께 봉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 신분으로 빛나는 뛰어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곧 각각의 온갖 세상 직무와 일 가운데에서, 마치 그들의 삶이 짜이는 것 같은 일상의 가정생활과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또 그렇게 하여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증거로서 믿음과 사랑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특별히 하여야 할 일은 자신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세 사물을 조망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발전하여 창조주와 구세주께 찬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에 관한 교의 헌장(인류의 빛, LG)의 수도생활에 관한 장에서 특히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공의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성사에서 죄에 죽고 하느님께 축성 봉헌되는 것이 근본적임을 인정한다.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은총의 더욱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복음적 권고들을 서원한다”고 가르친다. 복음적 권고를 서원함으로써 신자는 하느님 섬김에 더욱 깊이 봉헌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견고하고 더욱 확고한 유대를 통하여, 신부인 교회와 불가분의 유대로 결합되신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낼수록 이 봉헌은 그만큼 더 완전해질 것이다.(LG 44).

수도생활 쇄신에 관한 공의회 교령 「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은 이 개념들을 거듭 강조한다. 이 교령에 따르면, 수도자들은 복음적 권고를 서원함으로써 하느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자신들의 의향을 선언한다. 그들은 세례의 축성에 깊이 뿌리를 박고 이를 더욱 충만하게 표현하는 어떤 특별한 축성”(PC 5)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온 삶을 바친다. 수도자들은 오로지 필요한 단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루카 10,42; 마태 19,21 참조). 요한 바오로 2세는 1996년 사도적 권고 「봉헌 생활」(Vita consecrata)에서 이 개념을 다시 언급하는데, 축성 봉헌 생활은 “객관적 탁월성”(VC 18, 32)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수도생활을 특별한 봉헌의 성격으로 간주하여 묘사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가치에 관한 의문을 일으킨다. 수도생활이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 위한 하나의 방식 혹은 더 긴밀한 봉헌으로 복음적 철저함을 사는 것이라고 묘사한다면 “무엇보다 더하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수도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과 대비시킨다면 이런 비교는 그리스도교 입문의 가치를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일부는 다른 이들보다 더 충만한 성화로 부르심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 문헌들에 따른 비교가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면 선익을 얻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면, 공의회 문헌들은 복음 권고의 실천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사하는 가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헌장 「인류의 빛」은 43항에서 복음적 권고가 각 사람 안에서 대신덕(virtus theologica)이 성장하도록 이바지하는 데 특히 효과적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수도생

활 교령 「완전한 사랑」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수도자들은 복음 권고 서원을 통해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 살겠다는 자신의 의향을 선언한다”는 주장은 앞서 기술한 해석이 공의회 사상을 그런대로 잘 *verosimilmente*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면 수도생활을 하지 않는 이에게는?” 하는 질문이 남는다.

복음 권고를 서원하는 것이 하느님을 위한 봉헌이라는 주장은 특정 삶의 양식, 곧 특정 영성에서 영감을 받고 또 때로는 특정한 활동들로 이루어진 봉헌의 삶을 현실에서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을 통해 더 잘 이해된다.¹⁰⁾

수도생활 고유의 요소들을 그 상징적 가치 속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은 앞서 기술했던 특별한 축성 봉헌에 근거한 시도들과 똑같은 난관에 봉착한다. 그것들이 제시하는 상징들 중에는 종말론적 표징과 예언적 표징, 교회 자체의 상징, 그리스도와 당신 교회 사이의 혼인이라는 상징이 있다.¹¹⁾

프란치스코 교종은 2013년 11월 남자 수도회 총원장들에게 한 권고에서 이 딜레마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깨우십시오!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전망, 곧 이 지상에서 육화된 하느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저는 “철저하게”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적 철저함은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수도자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곧 예언자적 방식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수도자들은 세상을 깨울 수 있는 남성들과 여성들이어야 합니다.”¹²⁾

교종은 복음적 철저함이 수도생활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

10) A. de Bonhome, «Estne consecratio per consilia nova consecratio?», in *Periodica de re morali, canonica, liturgica* 67 (1978) 373-390 참조.
11) J.-M. R. Tillard, *Davanti a Dio e per il mondo*, Alba (Cn), Paoline, 1974 참조; L. Boff, *Testimoni di Dio nel cuore del mondo*, Cinisello Balsamo (Mi), San Paolo, 1985; A. Sicari, «Inspiration and Genesis of the Evangelical “Counsels”», in *Communio* 9 (1982) 51-66; J. M. Lozano, *Vita religiosa, parabola evangelica. Una reinterpretazione della vita religiosa*, Milano, Ancora, 1994; S. Decloux, *Inattualità della vita religiosa*, Roma, Rogate, 1995.
12) Francesco, «Svegliate il mondo! Colloquio di Papa Francesco con i Superiori Generali», in *Civ. Catt.* 2014 I 5.

“수도자란 특별한 방식으로 예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교종이 특징지은 것은 “특출함”보다는 “서술적”으로 더 잘 정의한 것이다. 이는 도로시 데 이와 마르틴 루터 킹처럼, 수도자는 아니지만 교종의 마음 가까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예언자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¹³⁾ 교종의 권고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 사실, 수도자들의 삶을 포함해 모든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통적으로 축성 봉헌된 수도에 부여되었던 상징적 가치를 가진다.

수도회들은 종말론적 표징과 교회의 상징으로서 봉사하지만, 수도회와 평신도의 상징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이들 가치를 수도회에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충분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성경은 혼인성사가 메시아적인 종말론적 만찬이란 상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상징함으로써 적어도 수도생활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과 속의 구분에서 자유로운 가톨릭의 이해는 공의회 의 딜레마를 해결한다. 그것이 인정하는 바는 입문성사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이자 삼위이신 하느님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 자기네 문화 전반을 형성하는 데에 철저히 매진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돌보는 데 하느님께 협력하고자 노력한다. 그 돌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의 육화를 통해 처음부터 이미 실현된 구원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노력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정 생활양식과 특정 영성에서 영감을 받은 성소를 택하고 취한다.

영성의 역할

자신의 신앙고백을 진지하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통 수도생활에서 부여되는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들의 계획 안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특별한 영성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영성이란, 요셉 수드브락 Josef Sudbrack이 알려주듯, 하느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생한 힘

13) 상동, «Discorso all'Assemblea plenaria del Congresso degli Stati Uniti d'America», 24 settembre 2015 참조: www.vatican.va 참조.

이다.¹⁴⁾

그리스도교는 이 생생한 힘이 성령이라고 이해한다. 공관복음서 중 성령론이 가장 발전된 루카 복음에서 성령은 공동체를 고무하여 선교 활동 안에서 모든 인류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만드는 특별한 선물이다. 요한 복음서에서 성령을 받는 이들은 이미 새로 태어났고, 성령을 거부하는 이들은 이미 단죄 받았다. 바오로 서간에서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사람에게 성령의 새 생명으로 선사하여(1코린 6,17 참조) 자신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준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실존 자체 *pneumatikos* 즉 “영성적”이 한다. 그래서 1코린 2,13-15는 영성적이지 않은 사람 *psychikos*과 영성적인 사람 *pneumatikos*을 대조시킨다. 바오로에게 영성적인 사람 *pneumatikos*은 성령과 그 은사로 가득 채워져 그 선물로 살아간다. 현세적 인간 *psychikos*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성령을 남용한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시선으로 영성을 증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닌 카리스마적인(은사를 받은) 인물들이 나타났다. 미셸 두푸이 Michel Dupuy는 그리스도교에 등장했던 다양한 영성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슬 방울이 햇빛에 반사되어 수많은 색깔들을 발산하듯이 하느님과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들은 부유한 하느님의 선물을 세련되게 만든다.”¹⁵⁾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린다. “영성 생활은 우리를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다.”¹⁶⁾

4세기에 시작된 수행 전통, 곧 그리스도교 남녀 수도승 자신들을 “경건한 이들 *religiosi*”이라고 일컫는 것은,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특정 영성으로 구현된 ‘거룩한 치유’로서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설명한다. 베네딕도회의 표어인 “기도하고 일하라 *ora et labora*”는 이러한 개념의 본보기이다. 이런 맥락에서 수도생활은 진정 성령의 영감을 받은 수많은 은사 활동들(카리스마 운동들)이다. 이 은사 활동들은 다양한 생활 형태들을 선사하여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하느님 신앙을 실천

14) J. Sudbrack, «Spiritualità», in K. Rahner (ed.), *Sacramentum mundi*, vol. VIII, Brescia, Morcelliana, 1977, coll. 1-22 참조.

15) M. Dupuy, «Spiritualité», in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ascétique et mystique*, vol. 14, Parigi, Beauchesne, 1990, col. 1171.

16) 상동, col. 1173.

함으로써 피조물을 보살핀다.

이기주의를 능가하는 수덕주의 (금욕수행)

카리스마적 인물들이 선사한 영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 중에 금욕수행이 있다. 금욕주의는 분별있는 긍정적인 솔선수범이다. 금욕수행은 성령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 은총은 사람들이 현세적 인간^{psychikoi}에서 영성적인 인간^{pneumatikoi}으로 변모하게 해준다.

금욕수행의 목적은 모든 “무질서한 경향”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영혼의 준비와 태세라고 로울라의 이냐시오가 잘 표현한 바 있다. 그리스도교에서 금욕수행은 인간 존재가 은총을 받도록 준비시켜 준다. 즉 그로 하여금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함으로써, 피조물을 돌보는 일에서 하느님과 협력하여 구원을 향하도록 해준다. 이냐시오가 말하는 “무질서한 경향”은 하느님과 인간의 협력을 방해하는 이기주의를 뜻한다.

각 수도회 고유의 영성에 따라 특별히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여러 수도회 전통 속에 포함된 금욕주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 지혜를 표현한다. 모든 이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성령의 힘을 이끌고 발전시키는 영성을 갖고 있다. 모든 이는 자신의 영성을 증진시키도록 돕는 수단으로 금욕수행에 정진한다.

그리스도교에서 금욕주의는 사람이 세상과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갖도록 돕는 데 이바지한다.¹⁷⁾ 케노시스^{kenosis}, 곧 자기 비움을 통해 허영심에서 벗어나 회심하도록 촉진한다.¹⁸⁾ 금욕수행과 고해성사,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강

17) R. Darling Young, «Recent Interpretations of Early Christian Asceticism», in *Thomist* 54 (1990) 123-140 참조.

18) 이 비움(kenosis)은, 열역학 제2법칙을 유추해서 말하자면 에너지 기울기를 생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법칙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활동들을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의 시스템으로 흐르는 에너지 이동의 결과로 설명한다. 두 시스템 사이의 에너지의 양의 차이는 에너지의 기울기이다. 물리적 데이터는 우주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더 많은 응축 시스템에서 더 적은 응축 시스템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열역학 제2법칙은 결국 모든 에너지가 전체 우주에 고르게 분산되어 생명을 포함한 모든 운동 변화가 멈추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물리학에서는 무한한 에너지 원천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지만, 신학에서는 성령을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깨달음의 우주론과는 달리, 실재의 내재적인 차원과 초월적인 차원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인정하는 가톨릭의 통합적 우주론은 둘 사이의 시너지 효과(협력작용)를 인식한다.

화된 그리스도교 입문의 케노시스(자기 비움)는 사람이 이기주의에 죽고 성령께서 주신 은총의 삶으로 새로 태어남을 실현한다.

교회 전승은 대신덕 *virtù teologali*을 통해 자비와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지지하는 자기 비움(케노시스)의 과정에서 복음적 권고가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순명은 은총의 선물인 믿음 안에서 하느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진하는 수단이다. 청빈은 희망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정결은 애덕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구체화되도록 촉진하는 수단이다. 복음적 권고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만족적 독립과 교만, 이기주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에 맞서 싸우도록 도와준다.¹⁹⁾

로울라의 이나시오가 “무질서한 경향”이라 부르는 것은 고생물학자이자 해부학자, 생물학자이면서 신학에도 흥미를 가진 대릴 돔닝 Daryl Domning의 말대로, “원초적 이기주의 *egoismo originario*”라고 부를 수 있다.²⁰⁾ 진화의 작용 원리인 자연 선택 과정은 이기적인 행위를 발현시키는 그룹을 선호한다. 돔닝의 주장에 따르면, 신적 계시와 더불어 인간의 양심은 이기주의가 삼위일체의 무상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류는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도록 예정되었다. 루카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라고 쓸 때, 완전함과 자비의 관계를 보여주는 반면, 마태오는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라고 쓴다.

자비는 완전함을 촉진한다. 이 완전함은 이기주의에서 해방되는 것을 포함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기적인 행동을 일으키기 위해 발전시킨 일련의 정교한 기술 덕분에 자연 선택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모든 인간 존재는 자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이기주의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이것은 바오로가 말했듯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끄는 신적 부르심과 이기적이 되려 하는 진화적 본능 사이에서 투쟁하는 인간 조건이다. 어느 순간 우리는 바오로의 외침에 동참하게 된다. “나는

19) D. C. Maldari, «Asceticism at the Service of Grace», in *Louvain Studies* 28 (2003) 32-47 참조.

20) D. P. Domning - M. K. Hellwig, *Original Selfishness: Original Sin and Evil in the Light of Evolution*, Burlington, Ashgate, 2006 참조.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로마 7,24) 뎀닝도 바오로와 같은 대답을 한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특정한 생활양식과 특별한 일을 채택하는 것은 ‘기록해지라’는 하느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에 모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응답하는 방식이다. 수도생활은 이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다.

“예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식별과 그리스도인의 성숙

«GESÙ NON IMPmaturityONE MAI»

«Amoris laetitia», discernimento e maturità cristiana

피에트로 M. 스키아보네 신부(예수회)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대전 가톨릭대학교) 옮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는 이렇게 말했다.¹⁾ “「사랑의 기쁨」이 인간들의 도덕 규범이나 교회법적 규정들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하게 하느님의 자비와 연민을 기억한다는 점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프란치스코 교종이 그의 교황직 초기부터 되풀이하여 다루었던 주제이다. 로마 교구의 교회대회를 개막하면서²⁾ 교종은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섬세함으로**³⁾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하느님 방향으로 위치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비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실제 상황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현실주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실주의**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참으로 다른 이들의 구체적인 삶을 접하는 것을 수용하고 자애로움의 힘을 깨닫기 위해서는 얽히고설킨 인간 드라마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해 주는 ‘울타리’를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수용하고, 동반하고, 식별하고, 통합하는** 가정 사목을 펼쳐갈 것을 명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교종이 “우리 공동체들 안에서 이중적인 윤리, 곧 까다로운 윤리와 관용적 윤리,

1) 바르톨로메오, «La compassione del Dio vivente», in *Oss. Rom.*, 2016.12.3.

2) 프란치스코 교종, «La letizia dell'amore: il cammino delle famiglie a Roma», 로마, 라테라노 대성전, 2016.6.16.

3)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엄격한 윤리와 방임적 윤리가 생겨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중에 이런 말들을 하였다. “두 가지 모두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규정 한 다음, 교종은 이렇게 말했다. “복음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덕 생활에 참견하지 않으면서 이 네 단어를 택합니다. 바로, 수용, 동반, 식별, 통합입니다.”

식별과 통합은 정상을 참작하고 상황들을 고려한다. 이는 「사랑의 기쁨」(이하 AL)에서 말하듯이 “교회는 정상 참작의 요인들과 상황에 관한 확고한 생각이”(AL 301)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식별과 통합은 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그 체험으로부터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로마 12,1)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세례 받고 이혼한 다음 사회법적으로 재혼한 이들에 관한 “통합의 논리는 그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의 핵심입니다.”(AL 299)라는 단언과 함께 우리가 하나의 지침으로⁴⁾ 여기는 지침들이다.

“구체적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기”

「사랑의 기쁨」 제2장인 “가정의 현실과 도전” 첫머리의 말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의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이하 FC) 4항을 인용하면서, 교종은 이렇게 말한다. “구체적인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성령의 부르심과 요구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며’ 이를 통하여 ‘교회는 또한 [...] 혼인과 가정의 끝없는 신비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AL 31). 이것은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이하 GS) 4항과 11항에서 말했던 가르침이다. 4항은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세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회는 현재와 내세의 삶의 의미 그리고 그 상호 관계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4) 이 연구의 전문은 M. Schiavone, «“Amoris laetitia” e santa discrezione. Una “chance” per conseguire “maturità cristiana”», in *Ignaziana* 22 (2016) 248-262 참조, www.ignaziana.org 참조.

그 세계의 기대와 열망 그리고 때로는 극적이기도 한 그 특성을 인식”해야 할 의무를 재천명한다.(GS 4)

두 번째 본문도 이에 못지않게 명확하다. “하느님의 백성은 온 누리에 충만하신 주님의 성령께 인도되고 있음을 믿는 그 신앙에 따라, [...] 사건과 요구와 염원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그 계획의 진정한 징표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신앙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로운 빛으로 밝혀 주고 인간의 소명 전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 주며, 따라서 참으로 인간적인 해결로 마음을 이끌어 준다.”(GS 11) 이 말들은 사람, 시간, 장소, 그리고 그 밖의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말들이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의 사건들 안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이어서, 식별을 통하여 성령의 요청과 호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얽혀 있는 현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베르골료 교종은 「최종 보고서」 51항을 인용하며 이를 다시 강조한다(보고서는 다시 FC 84항을 인용한다). “어려운 상황이나 상처 입은 가정들과 마주할 때,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늘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목자들은 진실을 알기 위하여 상황 파악을 조심스럽게 해 나갈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AL 79)

이는 바로 이어서 다시 「최종 보고서」에 따라 밝히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책임의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판단력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지만,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겪는 고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⁵⁾

교종이 “구체적인 상황들의 엄청난 다양성”을 열거한다는 점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주교대의원회의도, 이 교황 권고도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교회법과 같은 새로운 일반 규범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5)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인생에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우리의 삶은 유일하고 되풀이될 수 없는 것으로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눈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특히 사제의 삶은, 신중하고 심오하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식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가든 예외 없이 하느님께서 자기를 실제로 환대하셨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Misericordia et Misera)」, 14항).

개인적 사목적 식별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경우마다 따르는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식별에서 규정의 결과나 효과가 늘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AL 300)⁶⁾ 그래서 “시노드 교부들은, 사목자의 식별이 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잘 식별하는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⁷⁾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AL 298)

구체적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초대는 교황 권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된다. “상황”이라는 단어가 90회 이상 사용된다는 것만 보아도 충분히 이를 알 수 있다. “배경”에 대해 15회 정도 말하고, 명사 “정상 참작”과 “참작하다”는 9회 반복된다.⁸⁾

특히 **상황**들에 관련해서는, 때로는 “혼인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인위적인 신학적 이상, 곧 실제 가정의 구체적 상황과 현실적 가능성에 동떨어진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AL 36)라고 개탄한 다음 “종종 우리는 믿는 이들이 자신의 양심을 키워 나가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보충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에 응답하며 모든 도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복잡한 상황 안에서도 자신만의 식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AL 37)라고 밝히고, “우리는 신자들의 양심을 대체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함양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상동)라고 결론을 내린다.⁹⁾ 이어서 “긍정적이고 환대하는 사목적 접근법 [...] 부부들이 복음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AL 38) 사목을 지향할 필요성을 말한다. “어려운 이상을 제시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자나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와 같은 취약한 이들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상동)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물론 그리고 언제나, “사제들은 [이혼한 뒤 재혼한 이들과] 동행하며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주교들의 지침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6) 본문은 여기서 각주 336을 달아 놓는다. “이는 성사 규율에 관한 경우도 그러하다. 식별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7) 베네딕토 16세, 제7차 세계 가정 대회에서 한 연설, 밀라노, 2012년 6월 2일.

8) 특히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35와 2352를 인용하는 AL 302를 지적해 둔다. 더 자세한 설명은 P. M. Schiavone, «“Amoris laetitia” e santa discrezione...», cit., 252-254 참조.

9) 이는 부당한 간섭을 뜻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가톨릭 교리를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 AL 35 참조.

줄’ 의무가 있다.”(AL 300)

식별과 하느님의 뜻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구체적 현실 곧 하느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 및 주관적 질서의 요소들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를 내포한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로부터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는 데에 이르고 주님 안에서 *in Domino*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분별을 요구하는 질문이다.¹⁰⁾

성 바오로는 에페소서 5,8-17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고하고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라고 가르치며,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미련한 사람 *asophoi*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sophoi* 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라고 권고하며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 *aphrones*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에페 5,8-10.15-17).

어리석은 자로 처신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주의 깊게 찾는 이들이 되도록 돕는 것은 사제의 임무들 가운데 하나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이하 PO)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사제들은 신앙의 교육자로서 스스로 또는 다른 이들을 통하여,¹¹⁾ 모든 신자가 각기 성령 안에서 복음에 따라 자기 소명을 계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자유와 실천하는 진실한 사랑에 이르도록 보살피 주어야 한다”(PO 6,2).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아름다운 의전도, 화려한 모임도, **사람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육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다지 쓸모가 없다**”(상동).

그러나 그 성숙함은 과연 무엇인가? 명백한 대답이 있다. “이러한 성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자들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 일이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quid res exigant, quae sit Dei voluntas*) 읽어낼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는 법을 사제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상동).

이 “그 일이 요구하는 것 *quid res exigant*”(여기서 “그 일”은 구체적 현실이다)이

10) P. M. Schiavone, *Il discernimento. Teoria e prassi*, Milano, Paoline, 2016, 548-564 참조.

11) 그 첫째는 부제들과 특별한 축성을 살도록 부름받은 이들, 독서자들과 교리 교사들이다.

「사랑의 기쁨」 31항에서 되올린다. 여기에는 상황, 배경, 참작할 조건들이 포함된다. 여기서 “그 일이 요구하는 것 *quid res exigant*”과 “하느님이 뜻하시는 것 *quae sit Dei voluntas*”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는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를 실행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해석”하는 한 방법

이냐시오에게 분별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점을 바로 강조해 둔다. 예수회 회헌(C)에서는,¹²⁾ 책임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영원한 빛께서 주실 분별로 사람, 장소, 시간, 그리고 그 밖의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C 746). 또한 “애덕과 성령의 분별이 따라야 할 절차를 알려 줄 것이다.”라고도 말한다(C 219). “애덕과 분별”은 함께 존재해야 하는 두 가지 덕이다. 이 분별 있는 애덕 *discreta caritas* 이라는(C 209; 237; 269; 582 등 참조)¹³⁾ 표현의 의미는 “식별과 분별이 가득한 애덕, 식별과 사랑으로 감도되고 사랑을 향하는 사랑, 식별하며 성령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¹⁴⁾이다. 바오로의 기도가 떠오른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필리 1,9-10)

지식에서 성장하고 온전한 분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다양성과 주체들의 상이성”을 고려하면서(C 367; 64 참조) “우리 주님 안에서 큰 주의를 기울이고 숙고하며 행할” 필요성을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C 204).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령, 기질, 성향, 각자의 특별한 기초와 예상되는 공동선”(C 354; 참조. 92), 재능(C 522), 그리고 “신체적 상태”(C 298; 301), “분별에 따른 각자의 인내력”(C 285), 교정이나 참회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사람들과 그 각자의 교화”(C 269) 그리고 “하느님과 보편적 선

12) 로올라의 이냐시오, *Gli Scritti*, Roma, AdP, 2007 참조. 주해는 Maurizio Costa.

13) C 754에서는 “신중한 애덕”을 말한다. “분별있는 애덕”에 반대되는 것은 “무분별한 애덕”이다(C 217). C 182에서는 “무분별한 신심”을 말한다. C 211; 462; 825에서는 각각 “분별있는 열정”, “식별과 고려”(C 193 참조), “분별과 절제”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14) 로올라의 이냐시오, *Gli Scritti*, cit., 680, 각주 168.

에 대한 더 큰 기여”(C 618: 623: 625)를 고려해야 한다.¹⁵⁾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인간(재능과 은사, 지적 및 의지적 능력, 습관과 상황, 기질과 성격 등)을 고려하고 환경적 상황(전통, 관습, 사고방식, 그 지역 사람들의 요구 등) 그리고 하나의 결정이 사람들, 가정, 집단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들에 따른 적용은 분별의 구성적 원리이며, 신앙 교육자를 특징짓지 않을 수 없는 자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계시에 대해 하신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요한 16,12)라는 말씀과 『영신 수련』(ES)의 다음과 같은 원리를 기억할 것이다. “이 수련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나이, 교육 또는 지성에 맞추어 적용해야 한다. 교육을 적게 받았거나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잘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ES 18,1-2)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실 자체로 무분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기 전에 “모든 애착에서 벗어나” 내적 자유를 기르며 “하느님의 더 큰 영광, 공동선 그리고 가능한 한에서의 개별적 선”을 우선해야 하며 (C 222), 주님께 빛을 청하고 다른 이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책임자들은 “어려움과 의심이 많을수록 우리 주 하느님께 그 일을 맡길 것이며, 그 일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듣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이들과 그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이다.”(C 211)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는 “우리 주 하느님께서 이 경우에 대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알려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다(C 220).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각각의 이유들”을 헤아리고(C 222) 그에 따른 결정들을 할 것이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이는 “모든 것을 헤아려, 최고선인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그리고 그분을 더 잘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C 437)

“하느님의 최고선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회헌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주님 안에서 in Domino’와 같은 의미이다. 이는 성령께 주의를

15) 다른 단락에서, 다른 주제들에 관련하여 여러 조건들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는 부분들에 관하여, 상동, 681, 각주 170 참조.

기울이고 성령께 순응하면서 기억하고 검토하고 평가하고 숙고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주체를 지칭한다. 분별의 판단은 이러한 깊은 검토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다. **양심 안에서 모든 것을 고찰하고서**, 곧 인식과 확신 속에서, 주님 안에서 in Domino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더 큰 영광과, 또한 관련된 모든 사람과 그 각 개인들의 온전한 선을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닌)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마술 지팡이를 사용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예수회 총원장이었던 피터한스 콜벤바흐 Peter-Hans Kolvenbach는 이렇게 말했다. “사방에서 우리에게 매달리는 서로 반대되는 가치들 앞에서 오늘날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선택에 대한 동기들이 모두 한편인 경우는 드물다. 언제나 찬성과 반대의 동기들이 있다. 여기서 식별은 근본적인 일이 되는데, 식별은 사실에 관한 자료들을 알고, 숙고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들을 살펴보고, 가치들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어떤 결정이 가난한 이들에게 가져올 영향을 고려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선택을 사는 것이다.”¹⁶⁾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식별” 또는 “식별하다”라는 단어는 약 40회 사용된다. 특히 사목자들 곧 주교들과 사제들, 지역 교회, 부부, 신자들은 식별하도록 부름받는다.¹⁷⁾ 물론 여기서는 필요한 준비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은 (히브 5,12-14 참조) 적절한 체험을 당연히 전제한다.

사목자들과 관련해서는, 고해 사제는 “규범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회자의 선과 그의 그리스도교인의 여정에 직접 관여하는 목자이며 아버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사랑의 기쁨」에서 지적한 태도는 고해 사제가 자비로운 마음과 치유적인 지향을 가지고 참회자와 그의 행위에 연관된 사람들의 선을 평가하는 데에서 더 큰 개인적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의 역할은 분명 훨씬 더 무겁지만, 또한 더 의미 있고 더 풍요로우며 더 사목적으로 충만해진다고 말해

16) P.-H. Kolvenbach, «Pedagogia ignaziana: un approccio pratico», in Appunti di spiritualità, n. 36, Napoli, CIS, 1994.

17) 이 권고가 주교, 사제, 부제, 봉헌 생활자, 그리스도교 혼인을 한 부부와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지침을 기억할 것이다.

야 한다.”¹⁸⁾

신자들과 부부들에 관해서는, 이미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회에 대해 말했던 바가 있다. 교회는 “사목자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복음적 식별을 수행”한다.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부모들은 남녀가 혼인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화 안에서 진정한 복음적 식별을 발전시키는 데에 특수하고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 공동체」, 5항)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인들에게,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라고 지적한 다음, “아직도 하느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남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젓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히브 5,12)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젓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아기이므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서툰다.”라고 언급하고, 모든 이들이 (특히 사제들이) 개인적으로 양심을 성찰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히브 5,13-14).

요셉 로비라 벨로소 Josep Rovira Belloso가 말하듯이¹⁹⁾ “현명한 식별은 특정한 실제 상황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요소들에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식과 자유를 지닌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순전한 본능”의 단계를 넘어섰음을, 그리고 “식별이 인간 정신의 고유한 성찰 활동”이며 “모든 인간은 그와 그의 세계에 관련된 문제들 앞에서 책임을 갖도록 부름받는다”는 것과 “이 책임에 비례하여 자신의 개인적 문제들과 그의 세상의 문제들에 - 진리, 정의, 사랑을 존중하면서 - 더 적절한 응답을 식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음을 뜻한다.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성인 교리서』에서 제시한 원칙도 고려할 것이다. “각자의 개인적 책임은 다양한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들로 특징지어진 어떤 상황 안에서 선을 존중하고 원하는 실제적 능력에 비례한다. 충만한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가장 완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을 행

18) B. Petrà, «“Amoris laetitia”. Un passo avanti nella Tradizione», ne *il Regno* n. 8, 2016, 251.

19) J. Rovira Belloso, «Chi è capace di discernere?», in *Concilium* 14 (1978) 1606-1619 참조.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걸음으로 정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919항) 그러나 언제나 “개인의 양심”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AL 303) 이를 위하여 “계몽되고 양성되어, 사목자의 책임 있고 신중한 식별을 따르는 양심의 성숙을 촉구하고 은총에 대한 신뢰를 더욱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식별은 “역동적이라는 것 [...] 성장의 새로운 단계와, 이 이상을 더욱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에 늘 열려 있어야”(상동) 한다는 점 때문에도 그렇다.

마지막으로, 교종의 다른 가르침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네가 하고자 한다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늘 초대하시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예수님께도 양심 곧 당신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²⁰⁾

또한 교종은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자유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묻는다. 그 대답은 이렇다. “자신의 양심 안에서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에서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과 이야기할 줄 모른다면, 자신의 양심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면, 그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양심에 더 귀 기울이기”를 배울 필요가 나온다. 특히 “양심은 진리에, 선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는 내면의 공간이기에,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 내면의 장소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식별하고 깨닫도록, 그리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앞으로 나아가 충실히 머물도록 도와주십니다.”²¹⁾

* * *

20) 프란치스코, 2013년 6월 30일 삼중기도.

21) 상동. 이미 로마노 과르디니는 양심이 “하느님과 서로 이해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양심은 “인간이 깨어 있으면서 기꺼이 지나가는 순간마다 계속해서 분명해지는 하느님의 뜻과 서로 이해하는” 장소이다.(R. Guardini, *La coscienza*, Brescia, Morcelliana, 1977, 42)

이와 관련하여, 복자 존 헨리 뉴먼의 가르침이 떠오른다.²²⁾ “내가 점심 식사 후에 건배를 하면서 종교를 끌어들이야 한다면 [...], 여러분이 원한다면 교종을 위해 건배를 하겠다. 그러나 먼저 나의 양심을 위해 건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종을 위해서 하겠다.”

같은 편지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흥미롭고 적절하다. “양심은 우리 정신의 법이지만 정신을 넘어서는 법이고, 명령을 내리는 법이며, 책임과 의무, 경외심과 희망을 뜻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 양심은 은총의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도 은밀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사자입니다. 양심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 가운데 첫째입니다.”²³⁾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특별서기 몬시뇰 브루노 포르테의 글도 생각할 것이다. 키에티-바스토의 대주교인 그는 “교회는 이혼 후에 재혼한 이들에게 영성체를 주기 위해서 또는 주지 않기 위해서 주교 대의원회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축소적”이라고 덧붙인 다음, “그 목적은 각자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도록 동반하고 통합하는 어머니인 교회가 되는 능력에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²⁴⁾

마지막으로, 교종이 고해 사제들에게 요청하는 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든 이를 **관대**하고 심각한 죄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며 참회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악을 반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배려**와 도덕적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참회의 여정에 있는 신자들 곁에서 끈기 있게 가까이 동행해 주며 개인들의 사정을 **현명**하게 식별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베푸는 데에 **관대**할 것을 요청합니다.”²⁵⁾

22) J. H. Newman, *Lettera al Duca di Norfolk. Coscienza e libertà*, Milano, Paoline, 1999, 236-237.

23) 이 단락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78항에 인용되었다.

24) B. Forte, «Il “Vangelo della famiglia” secondo Francesco», in *Credere* 15 (2016) 14.

25) 프란치스코,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Misericordia et Misera*), 10항. 강조는 원문의 것이다.

이탈리아어판

laciviltacattolica.it

info@laciviltacattolica.it

facebook.com/civiltacattolica

twitter.com/civcatt

한국어판

korcuria@gmail.com

laciviltacattolica.kr